

3기

교육하고 섬기고 심는 교회

(2000~2011)



I. 개관

1. 주요 연혁

■ 2000년(표어: 선교와 사랑의 현장)

- 1월 2일 홍철원 전도사 전임전도사로 부임
- 6월 21일 당회실을 계단 아래 공간으로, 당회장실을 기존 당회실로 자리바꿈
- 9월 17일 양인석 목사를 담임목사 청빙 후보자로 선정
- 11월 25일 당회에서 양인석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기로 만장일치 결의
- 12월 31일 제직회에서 양인석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기로 만장일치 결의

■ 2001년(표어: 선교와 사랑의 현장)

- 2월 21일 주일 1부 예배와 교회학교 모임 시간을 9시로 변경(유치부는 11시)
- 3월 4일 새벽기도회를 1부(5시)와 2부(6시 30분)로 증설
- 3월 11일 당회에서 ‘천-백-십-일 운동’의 추진을 결의
- 3월 14일 당회에서 강택현 목사를 초청 대리당회장으로 초빙할 것을 결의
- 3월 17일 당회에서 전북노회로부터 행정적으로 탈퇴할 것과 양인석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것을 결의
- 3월 25일 공동의회에서 본 교회는 전북노회에서 행정적으로 탈퇴할 것과 양

인석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것을 결의

- 5월 6일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강림가족한마당 축제(영생고등학교)
- 6월 19일 금암동 1581-17 대 200.8㎡(60.8평)을 소유권 이전 등기
- 7월 1일 “교회 창립 20주년 소사” 「선교와 사랑의 현장」에 게재
- 7월 1일 창립 20주년 기념예배
- 7월 1일 양인석 목사 담임목사 취임예배
- 7월 1일 1000-100-10-1 운동 시작
- 7월 15일 ‘교육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심는 교회’로 목회방향 제시
- 7월 15일 1000-100-10-1 운동 추진 기획위원회 조직(위원장: 안송엽)
- 11월 19일 홍철원 목사 안수 후 부목사로 부임

■ 2002년(표어: 선교와 사랑의 현장)

- 1월 1일 동선옥 전도사 사임하고, 시간제 심방 전도사로 부임
- 1월 1일 노운숙 전도사 심방전도사로 부임
- 1월 1일 심해련 목사 교육목사로 부임
- 1월 1일 문종립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부임
- 2월 3일 장학위원회 발족(위원장: 진교헌)
- 2월 3일 사회복지위원회 발족(위원장: 황경주)
- 4월 예배실에 빔프로젝터 설치
- 6월 19일 금암동 1581-17 대지 200.8㎡(60.8평) 매입
- 11월 17일 전주강림교회 직원 선택 내규 재제정

■ 2003년(표어: 선교와 사랑의 현장)

- 1월 1일 동선옥 전도사 사임
- 1월 1일 장동현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부임
- 1월 1일 교회발전위원회 조직(위원장: 안송엽)

- 1월 1일 지역사랑위원회를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으로 전환
- 1월 1일 장학위원회를 강림장학재단으로 전환
- 1월 19일 부부선교회를 예제선교회로 개명
- 6월 7일 전주강림교회 부부(부모)학교 개교(강사: 황경주)
- 8월 3일 지하 장의자를 개인용 의자로 교체
- 9월 7일 기존의 시무권사 대상으로 안수예식
- 9월 13일 5차 임직예식(장로 5인, 집사 20인, 권사 33인)
- 11월 9일 정책당회에서 “강림교회 10개년 발전계획” 채택

■ 2004년(표어: 교육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심는 교회)

- 1월 1일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의 모임 시간을 주일 오전 10시 50분으로 변경(고등부만 9시 유지)
- 1월 1일 심해련 목사 사임
- 1월 1일 김주옥 전도사 교육 전임전도사로 전환
- 1월 1일 박금녀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부임
- 1월 1일 김정태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부임
- 2월 14일 금암동 1581-17 대지 200.8㎡(60.8평) 소유권 이전 등기
- 2월 14일 금암동 1581-38 대지 178.6㎡(54.1평) 건물 90.6㎡ 소유권 이전 등기
- 4월 공간 조정 : 당회장실과 사무실을 사랑관으로, 흰구름반 교실을 넓혀 유치부실 겸용, 교육관 1층 전체를 식당으로, 교육관 2층 전체를 하나로 통합
- 9월 16일 미국 어학연수 지원사업 시작(1기: 김성호 안효열)
- 11월 27일 모세선교회와 한나선교회를 모세한나회로 통합
- 12월 5일 김신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부임
- 12월 31일 양기영 장로 시무 은퇴

■ 2005년(표어 : 금년에는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 1월 1일 소년부실을 교육관 2층으로, 중등부와 고등부는 지하로
- 5월 17일 금암동 1583-5 대성연립주택 제 나동 3층 303호 대지 2044.1㎡(비율 5678/204410) 건물 51.35㎡를 전북노회 교회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1층 104호와 교체)
- 7월 3일 크리스천진학연구소 개설(소장 : 안길권)
- 7월 27~29일 전교인 가족 여름수양회(전북학생해양수련원)
- 9월 4일 예배실 강단 및 3층(유아실 만들기) 부분 리모델링 완료
- 10월 13일 구주회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부임
- 11월 13일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 사업으로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 개원

■ 2006년(표어 : 금년에는 더욱 더 기도하게 하소서)

- 1월 1일 김정태 전도사 전임으로 전환
- 1월 1일 남경호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부임
- 1월 1일 김연백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부임(2007.12.31. 사임)
- 1월 1일 해외어학연수원 설립
- 3월 4일 예수학교(Jesus Academy) 개설
- 3월 29일 전주강림노인대학을 강림경로선교대학으로 개칭(운영일 : 수요일)
- 4월 16일 홍철원 목사 사임(무주 장안교회 담임으로 부임)
- 4월 17일 허연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부임
- 5월 7일 임대영 집사 교회 관리인 사임
- 5월 30일 금암동 1581-12 대 166.7㎡(50.5평) 소유권 이전 등기(건물 88.84㎡ 멸실)
- 5월 30일 금암동 1583-5 대성연립주택 제 가동 1층 106호 대지 2044.1㎡(비율 5678/204410) 건물 51.48㎡ 소유권 이전 등기
- 6월 18일 교회 직원 선택 내규에 따라 양인석 목사 재신임 및 안식년
- 6월 24일 대학부 학생들 필리핀 단기선교(레이테 산사태 구호와 이주지역 봉사활동)

- 6월 25일 마지막 맥추감사절
- 9월 10일 양병택 집사 계약직 관리인 채용
- 10월 12일 제14회 금암동사무소와 함께하는 지역 경로잔치(사업 종료)

■ 2007년(표어: 한 영혼을 내게 주소서)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 사업

- 1월 1일 여전도회를 여선교회로 변경
- 1월 1일 강림청소년교육문화센터 개설(센터장: 반정수)
- 2월 18일 허연 목사 사임
- 3월 4일 전도부(부장: 박영숙 권사) 병원 전도 시작(수병원)
- 3월 11일 주일 오후 ‘주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 시작
- 3월 25일 최재룡 목사 고등부 담당 교육목사로 부임
- 4월 14일 전체 여선교회 선교 바자회
- 5월 20일 제6회 전교인 체육대회(전주 종합경기장)
- 6월 3일 교회 앞 공터(금암동 1581-18) 약 75평 임차(주차장으로 활용)
- 10월 13일 6차 임직예식(장로 5인, 집사 13인, 권사 22인)
- 11월 20일 김정태 목사안수 후 부목사로 부임
- 11월 25일 김연백 전도사 사임
- 11월 25일 문승현 전도사 중등부 담당 교육전도사로 부임

■ 2008년(표어: 성경 읽는 교회)

- 1월 1일 김주옥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전환
- 1월 1일 문화규 목사 교육목사로 부임
- 1월 1일 성경을 『새번역 성경』으로, 찬송가를 『21세기 찬송가』로 변경
- 1월 13일 최규익 집사 전주강림교회 사회복지사로 부임
- 3월 23일 무료 법률상담 시작(전휴정 변호사)

- 3월 31일 금암동 1581-20 대지 161.1㎡(48.8평) 소유권이전 등기
- 3월 31일 금암동 1581-21 대지 142㎡(43평) 소유권 이전 등기
- 3월 31일 금암동 1583-5 대성연립주택 제 나동 1층 103호 대지 2044.1㎡(비율 5678/ 204410) 건물 51.35㎡를 소유권 이전 등기
- 5월 14일 금암동 1581-11 대지 162.9㎡(49.4평)를 소유권 이전 등기
- 5월 교회 뒤편 제2 주차장 조성(금암동 1581-12, 1581-11, 20, 21의 대지)
- 6월 1일 무료가족치료 및 부모교육 상담 시작(상담사: 황경주)
- 11월 16일 당회는 전북노회 재가입을 결의
- 11월 30일 김주옥 전도사 사임
- 11월 30일 지승한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부임

■ 2009년(표어: 성경 읽고 말씀 따라 살자)

- 3월 2일 전도부 주관 예수사랑방(천막) 전도 시작
- 3월 10일 제152회기 정기노회에서 전북노회에 복귀
- 8월 2일 당회에서 양인석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것을 결의
- 8월 16일 공동의회에서 양인석 목사 위임목사 청빙의 건을 가결
- 11월 15일 기관연합 농촌 의료봉사 활동 시작(장수 원양교회)
- 12월 27일 현성실 목사 교육목사로 부임

■ 2010년(표어: 구역사랑을 회복하자)

- 1월 1일 구역을 지역 구분 없이 25개 구역으로 개편하고, 구역예배를 주일 오후 구역·말씀예배로 통합
- 1월 14일 153회 정기노회(예은교회당)에서 양인석 목사 위임 청빙 허락
- 1월 24일 7주 교리공부과정 개설
- 2월 17일 미국 L.A 장학숙을 설립하기 위하여 아래의 주택 매입
123 South Ardmore Ave, Los Angeles, CA90004, USA

11월 28일 창립 30주년 기념 식수(교회 마당 느티나무)

11월 28일 교회 로고 선정

■ 2011년(표어: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

1월 1일 김일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부임

1월 1일 김혁수 목사 교육목사로 부임

2월 20일 최재룡 목사 케냐 선교사로 3년간 파송

2월 21일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사경회(21~24일)

5월 8일 창립 30주년 기념 전교인 체육대회

6월 기쁜노래 중창단 활동 시작

6월 11일 양인석 목사 위임예식 및 7차 임직예식(장로 5인, 집사 11인, 권사 26인)

7월 2일 창립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7월 3일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및 기관별 찬양대회(전북교육문화회관)

2. 상황 읽기

1) 이 시기를 규정하는 교회의 상황

이 시기의 시작 지점에는 고 안창엽 목사 소천 후의 위기, 2001년 양인석 목사의 부임과 교회 창립 20주년 등의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2011년 창립 30주년에 한 시기의 매듭이 형성되었다. 2001년, 양인석 목사를 담임목사로 하는 청빙 과정에서 노회의 간섭과 그에 따른 전북노회와의 갈등 끝에 노회로부터 행정적으로 탈퇴하는 아픔이 있었다. 교회는 다양한 형태의 잔치들을 열어 한편으로는 아픔을 치유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새길을 내기 위한 힘을 모으면서 그 어려움을 넘어섰다. 새길 찾기

의 나침반이 된 것은 양인석 목사가 2001년 취임 직후 교회의 정책적 목표로 제시한 “교육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심는 교회”라는 목회 슬로건이었다.

2001년 7월 1일 창립 20주년 기념 주일 예배에서 양인석 목사는 “21세기의 강림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씨를 뿌리는 교회’, ‘책임 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를 그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주 뒤인 7월 15일부터 3주간의 설교를 통해, 그 ‘21세기 강림공동체의 비전’과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라는 전주강림교회의 목회 철학을 구체화할 정책적 목표로 ‘교육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심는 교회’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선교와 사랑의 현장”을 모토로 전개해 오던 사업들은 더욱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인재양성이라는 새로운 선교 영역을 개발하여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 과정에서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였고, ‘강림장학재단’, ‘해외어학연수원’, ‘크리스천진학연구소’, ‘강림청소년교육문화센터’ 등의 사업기구들을 차례로 갖추었으며 미국 L.A에 장학숙도 마련하였다.

이 시기의 끝 무렵인 2009년 3월 15일 전북노회 152회 정기노회를 통해 전북노회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또한 5차·6차·7차 임직예식을 통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면서 장년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다. 특히 7차 임직예식과 함께 치러진 양인석 목사 위임예식은 이 시기의 출발선에서 시작된 전북노회와의 갈등과 그에 대한 화해의 과정에 종지부를 찍고 한 시대의 표지석을 세우는 일이었다. 이 시기를 보여주는 자료로는 연도별 당회록, 제직회의록, 공동의회록, 연도별 교회 수첩, 연도별 주보, 교회학교와 청년부 각 부서의 연도별 활동 자료 모음, 당회록에 첨부된 월별 목회 보고서, 연말에 각 교역자가 당회에 제출한 사역평가 보고서, 각 선교 실행기구들의 회계 및 사업 자료, 남·녀선교회 회의록과 회계자료, 연도별 행사 자료집 등이 있다.

2) 교회 밖 상황

이 시기 교회 밖의 세상은 이전 시기와 완전히 다른 지형을 그리고 있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였고,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이로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급진전되어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 조성 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이 성사되었다. 육로로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게 되고, 개성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이들이 생겨나면서 남북 분단선의 심리적 높이가 크게 낮아졌다.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4강 진출, 열정적인 광장 응원의 경험들이 사회 전반에 자신감과 열정 그리고 참여의 문화를 불러일으켰다. IMF로 상징되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한 일과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경제의 성장도 큰 몫을 하여, 많은 한국인이 어깨를 펴고 세계 곳곳을 누비기 시작하였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을 연결하고 가정마다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정보화 사회로 빠른 발걸음을 옮겨갔다. 또한 2002년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를 계승하면서 역사에 대한 낙관적 신뢰가 더욱 자라났다.

그러나 국제 정세는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등에 대한 자폭 테러 사건이 터지면서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조지 W. 부시의 미국 정부는 이를 이슬람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다. 또한 2002년 1월 29일 이란, 이라크, 북한을 테러 지원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악의 축’으로 명명한 후, 2003년 3월 20일에는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한반도에 커다란 불안을 조성하고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가로막기 시작하였다. 또,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둘러싼 진보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반면에 보수진영은 ‘반북’(북한), ‘반김’(김정일), ‘반핵’(북한의 핵무기 개발), ‘반미군철수’ 등을 내세우며 강력하게 결집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4대 개혁 입법(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 개혁, 과거사 진상 규명, 언론 개혁)은 대부분 좌초하거나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IMF 구제금융과 함께

전면적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빈부 양극화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대량 해고 문제 등이 불거졌고, 부동산 과열에 따른 주거 불안정 문제가 겹치면서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각종 개발 사업과 대기업 우선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곳곳에서 경제적 양극화 문제와 생태 파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의 지진(규모 9.0)과 그로 인한 해일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4호기가 폭발한 사고는 생태 문제를 크게 고조시켰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¹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침으로 결론 내렸고,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켰다. 2006년 10월 9일 1차에 이은 2009년 5월 25일의 2차 핵실험 역시 남북관계를 냉각시켰다.

한편, 2008년 급속한 한미FTA 추진에 대한 범국민적 반발로 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압박을 가하던 중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0년 어간 극단화된 경제적 양극화 문제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 등의 해결 방안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리하여 보편적 복지와 생태 문제에 관한 관심이 새로운 시대정신의 중심축으로 형성되었다.

1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 772 천안함이 침몰하며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사건

3) 보편교회의 상황과 전주강림교회의 응답

이 시기 들어 한국교회의 보수진영이 한국교회를 과도하게 대표하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배경이 존재한다. 첫째는 1990년대를 지나면서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대변되는 한국교회 진보 진영이 지리멸렬해진 점이다. 진보 진영의 목소리가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보수진영의 대표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둘째, 보수적으로 경도되어 있는 한국의 언론들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한국교회 전체의 의견인 양 보도하면서,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묻힌 면도 있었다.

셋째,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 보수진영의 적극적인 정치세력화 시도가 있었다. 2004년 기독교자유당을 필두로 선거 때마다 극우에 가까운 정당의 결성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이슈마다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국교회 보수진영이 담당하였다. 반김(정일)반핵 집회 등 우파 이데올로기의 선봉에 섰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포비아(이슬람과 그 신봉자인 무슬림들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과 혐오감)를 일으키고, 동성애 문제를 논쟁적 이슈로 부각시켜, 그것을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전선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것은 정의와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사이의 전선을, 이슬람과 동성애 문제에 대한 태도 쪽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였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뉴라이트 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 보수진영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극우적 보수에 가까운 대형교회들의 영향력이 한몫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정치 행위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한국 사회 안에 각인되었다.

이처럼 보수진영이 한국교회를 과다 대표하면서, 그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젊은 층에서 교회에 대한 거리두기가 심화되었다. 여기에 저출산, 젊은 층의 대도시 집중, 과도한 경쟁 체제로의 몰입, 토요 휴무와 레저 및 여행 증가 등의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교회학교, 청년부, 젊은 장년층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대형교회들과 유명 교회 지도자들의 추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한국교회는 성장의 둔화를 넘어 교세 감소의 상황으로 들어서

고 말았다.²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전주강림교회의 응답은 세 갈래였다. 첫째, 농촌교회와의 협력 선교와 지역사회 봉사 선교를 통해 발전시켜온 통전적 선교의 실천을 지속하면서 한층 체계화하였다. 둘째, ‘인재양성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 영역에 천착하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하나님의 인재들로 길러내는 일에 힘을 썼다. 셋째, 각종 개혁적 조치들을 통해 여러 가지 관행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중요한 이정표들

1) 양인석 목사의 부임

당회는 2000년 3월부터 담임목사 청빙의 요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선교와 사랑의 현장’으로 집약되는 목회 철학과 그 결과물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목회자, 탄탄한 신학적 소양과 폭넓은 교양을 겸비한 40대의 목회자를 기준으로 두고 추천을 받아 청빙의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담임목사 청빙 공고가 5월 7일 주보에 게시되었다. 8월 31일까지 마감한 결과 추천된 6명 가운데 4명은 기준에 미달하였고, 최종 2인에 대해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보강토록 하였다. 이어진 9월 17일 당회의 최종심사 결과 양인석 목사가 담임목사 청빙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양인석 목사는 교회의 개척 초창기인 1983년 12월 당시 동산중앙교회에 처음 등록하였다. 당시 그는 신학생(한일신학교 재학) 신분이었다. 이후 청년으로 개척기를 함께하였고, 1986년 말부터는 교육전도사로 교회학교와 청년부를

2 2000년대 당시 한국교회의 신뢰도 추락에 대해서는 한미준-한국갤럽, 『한국교회 미래리포트』(두란노, 2005년, 서울), 232~237, 299~303; 이원규,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대한기독교서회, 2000년, 서울), 249~250 참조.

담당하여,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인 1991년까지 전주강림교회의 목회에 참여한 바 있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알고 있고 안창엽 목사의 목회 철학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를 확정하기 위한 당회가 10월 8일에 소집되었다. 그러나 임시당회장 정복량 목사는 ‘타교파에서 이명 온 목사는 1년간은 교회 청빙은 받을 수 없고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당시 헌법 정치 제4장 제33조 2항을 들어 양인석 목사 청빙 결의를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2000년 11월에 열릴 제85회 총회에 상정된 헌법조례 제정안은 헌법 정치 제 33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미국장로교회(PC USA) 출신 목사의 경우 노회에 가입 청원을 하고 교단 직영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한 후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을 합격하면 청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장로 전원이 이를 근거로 하여 양인석 목사 청빙 건을 가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부목사였던 온성진 목사가 이 결의는 노회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이의를 제기하자 임시당회장은 이에 대한 결의를 보류한 채 10월 17일 임시당회장직을 사임하였다.

후임 임시당회장으로 이윤철 목사가 파송되었다. 11월 11일 85회 총회에서 헌법조례 제정안이 확정된 후인 11월 25일에 담임목사 청빙 결의를 위한 당회가 다시 소집되었다. 그 사이에 당회는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하여 ‘조건부 노회 가입 전에 교회에서 먼저 청빙 청원을 하는 것이 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둔 상태였다. 청빙 결의를 거부하는 임시당회장과 끈질기게 설득하는 당회원들 사이에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만장일치로 양인석 목사 담임목사 청빙을 전북노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 내용이 11월 27일 주보를 통해 발표되었다. 다음 절차로 제직회 결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윤철 목사는 12월 17일에 임시당회장직을 사임하고 박영래 목사가 후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었다. 2000년 12월 31일 임시당회장 박영래 목사의 사회로 열린 제직회는 당회에서 제출한 양인석 목사 담임목사 청빙 청원의 건을 가결하였다. 이로써 교회 내에서의 청빙 절차를 마무리하고 노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서 사임한 온성진 목사는 2000년 12월 29일 노동청사 인



양인석 목사 취임

근 현대아파트 상가 건물 지하에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리고 양인석 목사 청빙에 불만을 품었던 김기범 장로와 1부 찬양대 지휘자 이진산 집사 등 일부 교인들이 ‘주님의 교회’로 이동하였다.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는 2001년 1월 2일 자로 양인석 목사에게 청빙서를 송부하였으며, 양인석 목사도 이를 수락하고 2001년 1월 10일 자로 전북노회에 조건부 노회 가입을 청원하였다. 또한, 당회원들은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양인석 목사의 노회 가입 허락 전 시무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양인석 목사에게 요청하였다. 양인석 목사는 이에 응하여 2001년 2월 11일 주일예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2월 15일부터 교인들을 심방하는 것으로 전주강림교회에서의 목회를 시작하였다. 이후 전북노회가 양인석 목사의 노회 가입을 불허함에 따라 양인석 목사는 전주노회 전도목사로 가입 청원하여 허락을 받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소속 목사가 되었다. 또한, 2001년 3월 17일 당회와 3월 25일 공동의회의 결의를 근거로 하여,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는 7월 1일 오후 3시 취임예식을 통해 전주강림교회 담

임목사로 취임하였다.

양인석 목사 부임 설교(2001.2.11)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여호수아서 1장 1~9절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은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모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위기에 봉착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서슬퍼런 바로의 손아귀에서 믿음의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 40년 동안 훈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백성으로 만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광야생활에서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주릴 때는 만나를 내리게 하여 생명을 건져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강성한 가나안 사람들과 일전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모세를 불러가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누가 대신할 것인가?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모세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였습니다. 후계자로 지명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위대한 지도자를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가나안 정복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당장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 믿음을 인정받았을 때는 좋았지만 막상 그 뒤를 이을 것을 생각하니 막막하였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자리가 너무나 큰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세와 비교될 것인데, 그 배신과 서러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며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을 괴로워했고 고통을 느꼈습니다. 위대한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을 느꼈던 것입

니다.

그러나 모세와의 인간적인 비교보다도 큰 두려움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과 장점이 있는 것이니까 여호수아도 자기의 장점을 살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고민의 본질은 ‘모세와 함께하시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실 것인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항상 함께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자신의 젊음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출발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출발하는 여호수아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흔들림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하는 땅을 얻게 하리라.” 하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래서 자신있게 외쳤습니다. “어둡고 긴 밤이 지났다. 일어나라. 진군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모세와 같은 안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강림공동체가 1년여 동안 얼마나 불안과 아픔 속에서 지내셨는가를 잘 압니다. 목회자의 공백 기간은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탄생하는 위기의 전환기가 전주강림교회의 고통과 아픔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고민의 출발은 가정문제였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과 미국 생활에 이제 적응하여 즐겁게 근무하고 있는 아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큰 문제는 이민 목회의 경험을 쌓았으며 이제 막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를 포기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작은 고민이었습니다. 더 크고 본질적인 고민은, 훌륭한 안 목사님의 후임으로 제가 ‘강림공동체를 승리의 공동체로 이끌 자질이 있는가’였습니다. 안 목사님의 영성과 신앙에 비춰 저는 너무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저는 부족하고 약점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강림공동체를 승리의 공동체로 이끌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멘!’ 하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임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안 목사님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강림공동체는 21세기에 빛의 공동체가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뒤를 돌아다보지 맙시다. 지난 사건들은 훈련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일어나 전진하는 신앙의 용사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 전주강림교회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전주강림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깊고 넓은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 성처럼 높고 강한 장애물이 놓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교회와 함께하시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강림교회는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교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공동체, 승리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실패의 삶입니다.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값진 삶입니다. 승리의 삶입니다.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맙시다. 높은 장애물

을 뛰어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 전북노회와의 갈등과 화해

(1) 전북노회와의 갈등과 행정적 탈퇴

전북노회는 양인석 목사의 노회 가입 허락 전 시무에 대해, 2001년 2월 14일 자
임시당회장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교회는 2001년 3월
6일 “존경하옵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전북노회 소속 목사
와 총대 장로들에게 호소문을 발송하였다. 호소문은 안창엽 목사의 서거 후 교회가
처한 어려움, 양인석 목사를 교회 후임 목사로 청빙하게 된 연유, 양인석 목사와 교
회와의 관계 그리고 노회의 허락 없이 양인석 목사를 강단에 서게 한 까닭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또한 양인석 목사 노회 가입의 헌법적 근거와 노회 상비부서(정치부)에
서 이미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한 점 등을 들어, 양인석 목사의 노회
가입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과 노회의 허락 없이 사전에
강단에 서게 된 교회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전주강림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에 근거한 양인석 목사의 전북노회 가입 청원 건
은 2001년 3월 13일 삼례제일교회당에서 열린 전북노회 136회 정기노회에 제출되었
다. 가입 청원을 검토한 정치부는 법적으로 검토한 바 적법한 청원으로 받아들여 만
장일치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미국 장로교회 소속 양인석 씨가 청원한 노회 가입 청
원은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압니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한 노회원이 양인석 목사
는 노회의 허락 전에 교회에 부임하여 시무하고 있어 노회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으

므로 노회 가입이 불가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본 교회 파송 총대인 황경주 장로가 노회 허락 전에 시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다. 그러나 노회의 권력을 쥔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노회원으로 받고 안 받고는 노회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기립 투표를 강행하여 양인석 목사의 노회 가입 청원을 부결하였다. 게다가 온성진 목사를 전주강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함으로써, 교회에 모멸감을 주고 대화의 길을 차단하였다.

전북노회의 처사에 맞서 교회는 노회로부터의 행정적 탈퇴로 대응하였다. 2001년 3월 14일 당회원들은 전북노회 탈퇴를 결의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 강택현 목사를 초청 대리 당회장으로 초빙하였다. 3월 17일 초청 대리 당회장 강택현 목사의 사회로 열린 당회에서 전북노회를 탈퇴할 것과 양인석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것을 결의하였다. 전북노회 탈퇴의 건은 3월 18일 소집된 제직회에서 다시 한번 만장일치로 결의되어 공동의회로 넘겨졌다. 3월 25일 소집된 공동의회는 전주강림교회가 전북노회에서 행정적으로 탈퇴할 것과 양인석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전주강림교회가 전북노회로부터 행정적으로 탈퇴함을 3월 27일 자로 전북노회에 통보하고, 3월 29일 자 새전북신문과 3월 31일 자 목회자신문에 노회 탈퇴 선언을 실었다.

이에 대해 전북노회는 4월 14일 자로 탈퇴 통보문을 반송하고, 노회원들과 전주강림교회 성도들에게 반박 서신을 발송하였다. 또한,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류시영, 안송엽, 진교현, 황경주 4인의 장로를 노회 재판국에 기소하고, 전북노회 재판국은 7월 27일 4인에 대해 면직 판결을 내린 후 이를 2001년 8월 18일 자 한국장로회신문과 기독교보 광고면에 공고하였다. 교회는 이미 전북노회와의 행정적 관계를 단절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개의치 않고 당면한 위기 극복의 길로 걸어 나갔다.

(2) 화해와 노회 재가입

이후 전북노회와의 갈등은 소강상태로 들어섰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의 기

류가 형성되기 시작하자 2004년 12월 5일 당회는 전북노회 재가입 추진을 위해 류시영, 안송엽, 진교현, 황경주 장로를 추진위원으로 선정하고 안송엽 장로를 협상대표로 지정하였다. 2005년 1월 2일 공동의회에서 전북노회 재가입을 추진키로 하고, 2월 27일 당회는 김기범 장로에게 내려졌던 치리 처분(2001년 8월 26일 치리회의 장로직 면직과 출교 처분)을 해벌(解罰)키로 결의하였다. 3월 5일에는 박영래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받아들이고 당회를 열어 전주강림교회의 전북노회 재가입과 양인석 목사의 전북노회 청원 가입, 류시영, 안송엽, 진교현, 황경주 장로를 노회 총대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전북노회의 기류가 불투명하여 전북노회 재가입 청원은 보류하게 되었다.

전북노회와의 화해 기류는 2008년에 다시 한번 형성되었다. 2008년 11월 2일 전북노회가 임시당회장을 온성진 목사에서 김하웅 목사로 교체하였고, 새로운 임시당회장 김하웅 목사는 11월 16일 전북노회 재가입 건으로 당회 소집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16일 당회에서 전북노회 재가입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2009년 3월 10일 전북노회 152회 정기노회에서 ‘전주강림교회 화해조정위원회’ (위원장 : 황세형 목사)는 전주강림교회와 전북노회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청원하였으며, 노회는 이를 허락하였다. 이어서 인사부(부장 : 주건국 목사)는 전주강림교회 임시당회장 김하웅 목사가 청원한 양인석 목사 임시목사 청빙 청원 건을, 정치부(부장 : 김기범 장로)에서는 임원회장 이병우 목사가 청원한 전주강림교회 임직자 장로 9인(정인기 김영선① 김영선② 장지석 안길권 강형희 이연우 김종희 이한규) 추인의 건을, 재판국(국장 : 주건국 목사)은 전주강림교회 시벌자 4인(류시영 안송엽 진교현 황경주)의 면직 처분(2001년 7월 27일자) 해벌의 건을 제출하여 모두 허락되었다.

이로써 전주강림교회와 전북노회의 관계는 정상화 되었다. 후속 조치로 임시당회장 김하웅 목사가 소집한 2009년 8월 2일 당회와 8월 16일 공동의회에서 양인석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청원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9월 6일 당회에 김기범 장로와 온성진 목사가 방문하여 인사를 나눔으로 화해하였다. 전주강림교회와 전북노회 간의 화해를 기념하여 153회 전북노회를 2009년 10월 13일 본교회당에서 개최하였

으나, 안타깝게도 노회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파행되고 말았다. 전북노회는 2010년 1월 14일 예은교회당에서 다시 소집된 153회 정기노회에서 양인석 목사 위임 청빙을 허락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11년 6월 11일 양인석 목사 위임예식이 이루어짐으로써 전북노회와의 화해 절차가 완결되었다.

3) 창립 20주년과 30주년

(1) 20주년 기념사업

당회는 1999년 8월 1일 창립 20주년 준비위원을 선임한 바 있었다(장로대표 안송엽, 은호섭, 황경주, 안수집사 대표 전재형, 안길권, 권사 대표 배인순, 서리집사 대표 한은숙, 청년 대표 이감철). 그리고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인 2001년 여러 가지 기념사업들을 추진하였다. 먼저, 2001년 5월 6일 ‘교회창립 20주년 기념 강림가족한마당 축제’라는 이름으로 전교인 체육대회가 전주영생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후 제출된 평가 보고서는 “다시 한번 교회의 하나 됨을 이루고, 온 교회가 그동안



20주년 기념 강림가족한마당 축제(2001년 5월 6일)



오전 행사에서 간판의 차이로 삼손팀이 앞선 상태에서 오후 경기가 약 2시부터 시작. 첫 번째 경기였던 가위바위보 릴레이는 다윗팀이 승리하면서 삼손팀을 20점차로 패배. 두 번째 풍선터뜨리기 경기에서도 다윗팀 승리. 전세는 역전 이었던 애 릴레이다 경기는 양팀의 노인 신도들이 나와서 활약을 남는 게임이었으나 역시 다윗팀이 두 번 다 승리. 결승전은 900:800으로 다윗팀의 승리기 상송.

그러나 오후 경기의 첫 번째 하이킥이브이와 아워경기였던 줄다리 기에서 다윗팀이 다시 승리하면서 삼손팀의 패배가 시작. 줄다리 경기의 팀보다 호흡이 중요했으니 삼손팀이 전원이 포트라지면서 박자가 맞지 않아 패배. 이후 출발 강렬코의 CXX 경기가 번외경기로 치러지면서 양인석 목사의 몸무게가 공개되는가 하면 편이칠 장로님

의 원세도 공개.

예수님 섬기기 경기 역시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으나 안길면 집사의 생활(약)으로 삼손팀 승리. 삼손팀 드디어 오후 경기에서 전세 대역전. 널뛰기에서도 삼손팀의 여정남들과 편사남들이 승리했으나, 다윗팀과 비교해서 거의 비슷비슷. 멋진 그림 하나 장오라고 뛰어다녔던 카메라만 쏘는

경. 마지막 경기였던 제주. 역시 축제의 백미는 제주에 있었다. 양팀 모두 유적현에서부터 제1남선교회까지 약 40여명이 참가한 제주에서 초반 다윗팀과 삼손팀이 막상막하의 승부를 보였으나 중반 이후 다윗팀이 상당한 거리로 승세를 잡았다. 삼손팀이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 제2남선교회의 선수들이 사력을 다해서 거의 따라잡았으나 막판에 넘어지면서 다윗팀이 다시 여유있게 앞서기 시작. 다윗팀의 마지막 주자는 선수선발에 주목없이 나섰다고 이기와 집사의 머물이를 먹으면서도 끝내 참가한 전교원 장로. 평강은게 배라다니 구박받으며 출전을 고집했던 전교원 장로가 전교인의 원호와 박수속에 결승인 대열을 끊는 영광을 안았다. 다윗팀의 막판 제주 승리도 최종 점수는 1380:1370. 다윗팀 최종 승리.

20주년 기념 강림가족한마당 축제 당시의 교회 신문

사랑의 현장을 섬기는 교회,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미래 비전을 담은 운동이었다. 2001년 3월 11일 당회에서 이의 추진을 결의하고, 3월 18일부터 주보의 한 면을 할애하여 천-백-십-일 운동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01년 7월 15일에 기획위원으로 안송엽, 황경주 장로와 김구태 집사, 김현경 집사, 이종순 집사를 선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3월 4일 주간부터 새벽기도회를 1부(5시)와 2부(6시 30분)로 나누어 드리고, 7월 1~20일에는 교회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하였다.

창립 20주년 기념 주일인 7월 1일에는 풍성한 잔치가 열렸다. 20주년 기념예배는 오후 1:30~2:50에 있었다. 양인석 목사가 “전진하는 교회”(민수기 13:30~14:3)를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기관별로 준비한 찬양으로 축하 잔치를 하였다(중등부, 고등부, 1청년부, 2청년부, 여전도회 1·2팀, 남선교회 1·2팀). 이어 오후 3시에 양인석 목사 취임예배가 있었다. 취임예배의 집례는 초청 대리 당회장인 강택현 목사, 설교는 백남훈 목사,

의 근심을 떨치면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안창엽 목사의 소천 이후 교회가 겪었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 행사가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천-백-십-일 운동’을 시작하였다. ‘천-백-십-일 운동’은 천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 백 명의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 십억 원의 재정으로 선교와

축사는 유태주 목사, 취임하는 목사에 대한 권면은 문영학 목사, 교우들에 대한 권면은 이윤재 목사가 담당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념사업은 역사 편찬 사업이었다. 당회는 1998년 3월 1일, 20주년에 맞춘 역사 편찬을 위해 사진 및 자료 수집 책임자로 이정석 장로, 동선옥 전도사, 이연우 집사를 선임하였다. 창립 20주년을 기해 지나간 2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이후, 교회사 편찬위원을 정하고 교회사 편찬을 추진하였다. 위원은 9명으로 꾸려졌다(장로: 황경주, 집사: 김구태 안길권 원도연, 권사: 배인순, 청년: 김신현 성민식 황의석 황의찬). 편찬위원들은 ‘전주강림교회 20년 자료집’, ‘전주강림교회 20년사’, ‘안창엽 목사 설교집’ 세 가지 책의 발간을 목표로 2000년 1월부터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개척교회 시절 순회 전도사로서 수고가 많았던 송마리아 전도사, 초창기 장로 중 하나였던 송영봉 장로, 가장 오랫동안 교회의 역사를 함께한 신은순 권사와 이계생 사모 등을 인터뷰하고, 안창엽 목사 설교 테이프를 수



20주년 감사예배 모습

‘선교와 사랑의 현장’ 강림교회 당회장에 양인석 목사 취임



강림교회가 오늘로서 교회창립 20주년의 대역사를 맞았다. 지난 1981년 7월 3일 전주시 경원동에서 온성 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한 강림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선교와 사랑의 현장으로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처음 5명이 모여 시작한 이 교회는 20년만에 1천여명의 등록교인을 거닌 전주 시내의 대표적인 중견교회로 성장해왔다. 그동안 이 교회는 초대 당회장으로 개척의 험난한 역사를 일구어왔던 고 안창엽 목사의 뒤를 이어 양인석 목사가 시무하고 있으며, 오늘 기념예배에서는 양인석 목사의 취임식도 같이 이루어진다.

양인석 목사의 취임과 함께 강림교회는 지난 1999년 11월 고 안창엽 목사의 소천 이후 약 1년반만에 정식 당회장을 모심으로 교회에 완전히 정상화된다. 양인석 목사의 취임은

오늘 창립기념예배는 11시에 전교인 연합예배로 드려지며 예배 직후 12시부터 나눔 공동체가 이어진다. 이후 1시 30분부터는 창립기념예배 그리고 3시부터는 양인석 목사 취임예배가 이어진다. 4시부터는 각 기관별로 찬양경연대회가 열려 취임축하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강림교회는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창립 20주년 감사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다.

양인석 목사의 취임을 전한 교회 신문



역사편찬위원들과 송마리아 전도사

집하여 녹취하는 일을 진행하였다. 아쉽게도 최종적인 편찬에 이르지 못하고 “전주강림교회 20년 소사”를 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역사 편찬 노력으로 교회의 초창기 역사에 대한 복원과 자료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이후로 자료를 남기고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이 크게 향상되었다. “전주강림교회 20년 소사”는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라는 교회 회보에 게재되었다.

(2) 30주년 기념사업

교회 창립 30주년인 2011년을 앞두고, 2008년 11월 2일 당회는 김영선J, 류시영, 안길권, 이정석, 황경주 5인의 장로를 30주년 준비위원으로 선임하였다. 2009년 9월 6일 당회는 다시 사업별 준비 담당자를 지정하였다. 기획에 안송엽 장로, 안창엽 목

사 설교집 출간에 최규익 집사와 원도연 집사, 30년사 집필에 황경주 장로, 기념행사 담당에는 당해년도 행사부장(성기봉 집사)이 선임되었다.

30주년 기념사업의 첫 시작은 공모를 통하여 교회 로고를 만든 것이었다(2010년 11월 28일). 하단 3개의 물결 모양으로 교회가 지향하는 교육·섬김·심음을 표현하였고, 중앙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중앙의 십자가로부터 퍼져 나가는 빛줄기로는 선교와 사랑의 현장인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로고 전반을 채우고 있는 초록색으로 희망과 생명과 성장을 상징하였다. 같은 날인 2010년 11월 28일 교회 마당 주변에 30주년 기념식수로 느티나무를 심었다. 이 기념식수에는 과란하늘어린이집, 강성수·홍옥경, 이병호·최정민, 장지석·성영자, 황경주·정귀임, 류시영·오순희 가정이 참여하였고 조경은 안병우·양옥순 가정이 담당하였다.



전주강림교회 로고

그 외에도 다채로운 행사와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30주년이 되는 2011년에는 최재룡 목사를 2013년까지 3년간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파송하였으며, 2월 20일



위임예식에서 서약하는 양인석 목사



위임예식에서 서약하는 교우들



교회창립 30주년(2011년 7월 3일)



30년사 편찬을 위해 수집된 자료들
황경주 장로의 30년사 자료집

주일 오후에 그 파송예배가 있었다. 2011년 2월 21~24일에는 30주년 기념 부흥사경회를 열었다(심재선 목사, 서울회락교회). 5월 8일에는 30주년 기념 전교인 체육대회를 금암초등학교에서 개최하였다. 6월 11일에는 7차 임직예식과 은퇴예식 그리고 양인석 목사 위임예식을 30주년 기념행사로 진행하였다. 7월 2일에는 옛 교우들을 초청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고, 창립 30주년 기념 주일인 7월 3일 감사예배를 함께 드렸다. 매년 창립기념주일에 개최하던 기관별 찬양대회는 전북교육문화회관을 빌려 더욱 성대한 잔치로 치렀고, CBS 전북방송을 통해 방송으로도 송출되었다.

20주년 때 완결되지 못한 안창엽 목사 설교집 출간과 교회사 편찬이 다시 한번 추진되었다. 설교집 출간은 다시 한번 무산되었지만, 역사 편찬 작업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30년사 집필을 담당한 황경주 장로는 교회의 30년 역사를 6개의 시대로 나누고, 새로이 시작되는 미래의 역사를 일곱 번째 시대로 배치하였다. 그 구분은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교회의 초창기’(1981년 7월~1983년 8월), ‘하나님이 뿌리 내리게 하실 때-교회의 정착기’(1983년 9월~1985년), ‘하나님이 키우실 때-교회 부흥

기’(1986~1988년), ‘하나님이 이끄실 때-교회의 발전기’(1989~1999년),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교회의 시련과 극복기’(2000~2001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교회의 성장기’(2002~2010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교회 내일의 비전’(2011년 이후)이었다.

각 시대의 주요한 사건들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들을 분류하여 배치한 것과 자료가 매우 희소한 개척 단계의 역사를 복원해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20년사 편찬을 위해 모은 자료와 초창기 인물들을 인터뷰하여 만들었던 녹취 내용을 정리하는 힘든 과정을 거친 귀한 내용이었다. 또한, 안창엽 목사 서거 후 힘겨웠던 상황의 전개 과정을 세부 자료들과 함께 기록하였으며, 여러 가지 연도별 누적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최종적인 출간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교회 역사 서술을 위한 자료의 집성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남김으로써 다음의 역사 서술을 위해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자료의 기록, 수집, 보존은 더욱 꼼꼼해지고 체계화될 수 있었다.

4) 직원 선택 내규의 재제정과 3차·4차·5차 임직예식

전주강림교회는 1992년부터 ‘직원 선택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총회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수용하는 가운데, 후보 추천권을 구역과 자치기관 그리고 당회에 부여하는 내용이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선택된 이들을 3차·4차 임직예식을 통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바 있었다. 양인석 목사 부임 이후 이 직원 선택 내규를 새롭게 작성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2002년 6월 9일 당회는 직원 선택 내규를 새롭게 작성하는 문제를 연구기로 하였다. 기존의 직원 선택 내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직원 선택 내규’의 초안이 7월 14일 당회에 제출되어 그 취지와 방향에 대한 당회 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추가적인 검토와 조정을 거쳐 11월 10일 제출된 안을 승인하고 제직회에 부의기로 하였다. 11월 17일 소집된 제직회는 새로운 직원



5차 임직예식: 장로들(선배 장로들과 함께, 2003년 9월 13일)



5차 임직예식: 안수집사들(당회원들과 함께, 2003년 9월 13일)



5차 임직예식: 권사들(당회원들과 함께, 2003년 9월 13일)

선택 내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당회는 12월 29일 이에 대한 시행 세칙도 제정하였다.

새로운 ‘직원 선택 내규’의 골자는 다음의 다섯 가지였다. 첫째, 담임목사의 정년을 만70세에서 만65세로 단축하고, 매 6년마다 제직회에서 신임을 묻는다(과반 투표로 재신임). 둘째, 장로의 시무 정년은 만70세로 유지하되 그 임기를 10년 단임으로 한다. 셋째, 당회의 언권회원 자격을 부여하던 협동장로 제도를 폐지하고 봉사장로 제도를 도입한다. 봉사장로는 당회원 자격은 없지만, 교회의 각종 기구와 활동에서 시무장로와 동일하게 봉사할 수 있다. 넷째, 10년 단임의 시무 임기를 마친 장로는 만70세가 되기까지 봉사장로로 섬긴다. 시무장로를 역임한 봉사장로는 당회의 언권회원이 되며, 노회 활동도 할 수 있다. 다섯째, 장로 임기제는 이 내규가 작성된 이후 임직하는 장로들부터 적용한다.

새롭게 제정된 직원 선택 내규에 따라 장로·집사·권사로 선택된 이들의 임직예식이 2011년까지 세 차례 있었다. 2003년 9월 13일의 5차 임직예식은 2003년 1월 19일 당회에서 후보를 공천하고 1월 26일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선택한 이들을 장로·집사·권사로 임직하였다. 5차 임직예식은 온호섭 장로와 유계순, 이윤례 권사의 은퇴예식도 겸하였다. 2007년 10월 13일의 6차 임직예식을 위해 당회는 2007년 2월 4일 후보를 공천하고 3월 25일 공동의회에서 후보를 선택하였다. 이때 장로 후보자는 1월 14일 제직회에서 예비 투표를 통해 공천 후보자 15인을 추천받고, 추천된 이들에 대해 당회가 심사한 후 공천하였다. 6차 임직예식은 양기영 장로와 김차남, 설순자, 신정애 권사의 은퇴예식을 겸하였다. 2011년 6월 11일의 7차 임직예식을 위해, 2010년 봄의 전복노회 154회 정기노회에서 5인의 장로 추가 임직을 허락받았다. 2010년 6월 6일 당회는 7월 11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하되, 장로 후보로 여성 1명 이상을 공천하기로 결의하였다. 7월 4일 당회에서 후보를 공천하고 7월 11일 공동의회에서 장로·집사·권사 후보를 선택하였다. 2011년 6월 11일 행해진 7차 임직예식은 양인석 목사 위임예식과 류시영, 황경주 장로, 고창호 집사, 김현순, 동선옥, 박영자, 이강인, 이구일, 이명숙, 정규례, 정복남 권사의 은퇴예식을 겸하였다.



6차 임직예식: 장로들(2007년 10월 13일)



6차 임직예식: 장로들과 집사들(2007년 10월 13일)



6차 임직예식: 원사들(2007년 10월 13일)

■ 5차 임직예식(2003년 9월 13일)

- 장로 취임 : 정인기
- 장로 임직 : 김영선J 김영선L 양기영 장지석
- 집사 취임 : 김구태 허용욱
- 집사 임직 : 권윤옥 박광수 박병규 박웅규 박진범 안병용 양병택 원도연
이감철 이병호 이성복 이준홍 임석윤 정국양 정양래 최규익
최정근 황양우(18명)
- 권사 취임 : 박인희 서경자
- 권사 임직 : 강묘자 김세영 김순옥 김옥자 김옥희 김정자 김차남 동선옥
박영숙 박찬숙 박혜영 백 봉 성영자 신정애 양은순 양지순
오봉애 유말래 이계생 이구일 이기화 이복례 이순이 이영숙
이현자 이해정 장귀순 전선옥 전순례 정규례 최복순(31명)
- 은퇴 : 온호섭 장로, 유계순 이윤례 권사

■ 6차 임직예식(2007년 10월 13일)

- 장로 임직 : 강형희 김종희 안길권 이연우 이한규(5명)
- 집사 취임 : 김태영 성정수 이귀형 최왕규(4명)
- 집사 임직 : 고창호 배상근 서기원 성기봉 송원숙 송자석 신을재 안병우
이정원(9명)
- 권사 취임 : 김순안 김현순 박금옥 박정숙 임명옥 전을자 조순애(7명)
- 권사 임직 : 김귀정 김종숙 박수자 송순금 이난희 이선옥 이점순 이정숙
이정순 이정자 장선미 정복남 정영옥 최순덕 허명순(15명)
- 은퇴 : 양기영 장로, 김차남 설순자 신정애 권사

■ 7차 임직예식(2011년 6월 11일)

- 목사 위임 : 양인석



7차 임직예식: 장로들(2011년 6월 11일)



7차 임직예식: 집사들(2011년 6월 11일)



7차 임직예식: 권사들(2011년 6월 11일)

- 장로 임직 : 김구태 김세영 성정수 이병호 이복례(5명)
- 집사 임직 : 강지호 구회언 김성수 반징수 성기춘 안효초 오광중 윤철
장성화 정종섭 조영호(11명)
- 권사 취임 : 김옥단 박영임
- 권사 임직 : 강정이 김명애 김명자 김세순 김현숙 나영자 민정애 백영란
송성희 신정자 안나영 안성정 양희남 오춘호 우옥희 이성화
이인한 이정애 이진화 이효순 조성순 최순선 최은환 한현희(24명)
- 은퇴 : 류시영 황경주 장로, 고창호 집사, 김현순 동선옥 박영자 이강인 이구일
이명숙 정규례 정복남 권사

5) 연이은 개혁적 조치들

이 시기의 목회에서는 중요한 개혁적 조치들이 연이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일 세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 성도들이 주방봉사로부터 놓여나게 되었다.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전주강림교회에서도 주일 점심식사를 구역별 윤번제로 담당하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여성 교우들의 짐이었다. 이러한 관행을 변화시킨 첫걸음은 2001년부터 남선교회와 청년회 그리고 교역자 팀이 윤번으로 배식 봉사와 설거지를 담당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후 ‘주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가 시작되면서 주일 점심식사 봉사가 예배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13일 당회에서부터 주일 점심식사 봉사자의 유급화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10월 5일 제직들의 설문을 거쳐 11월 12일 당회에서 최종적으로 유급 봉사자 3인을 채용하고 배식 봉사는 남선교회가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이로써 2009년부터 여성 교우들은 주일 점심식사와 관련한 주방봉사로부터 놓여났고, 남성 교우들에게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 문화로부터 벗어나는 실천적 계기가 되었다.

둘째로 담임목사와 장로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이루어졌다. 2002년 11월 17일

최종적으로 채택된 직원 선택 내규에 따라,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단축하고, 매 6년마다 재신임을 묻게 되었다. 또한 10년 단임의 장로 임제제가 도입되었다. 담임목사와 장로들이 스스로의 특권을 내려놓은 것이었다. 이 ‘직원 선택 내규’에 따라 2006년 6월 18일 제직회에서 양인석 목사의 신임을 묻는 재신임 투표가 시행되었다. 결과는 총투표수 183표, 찬성 165표, 반대 18표, 찬성률 91%로 재신임되었다.

셋째로 여성 장로를 선택하여 세운 일이다. 한국교회에서 여성 신도들은 오랫동안 중요한 자리로부터 배제당해 왔다. 전주강림교회에서도 1988년 12월 4일 당회에서 논의한 바 강단에는 안수받은 자만 허용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 안수받은 자란 곧 남자 안수집사까지를 말하며 여성은 불허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던 중 1994년 제79회 총회에서 여성 안수의 건이 통과되고 노회 수의(隨意)를 거쳐 1995년 5월 27일 여성안수에 대한 헌법이 개정 공고된 후인, 1996년에서야 여성들이 강단에 올라 성경을 봉독하고 기도하는 일을 허락하였다. 그러고서도 여성 장로를 세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10년 7월 18일 공동의회에서 교회 설립 후 처음으로 2명의 여성 장로 후보(김세영, 이복례)를 선택하고, 2011년 6월 11일 7차 임직예식에서 장로로 세우게 되었다. 남성 중심성이라는 교회의 관행을 한 번 더 극복해내는 개혁이었다.

6)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양인석 목사는 청빙 시 제출된 「나의 신앙과 목회 여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목회 주안점을 밝힌 바 있다. “첫째, 교회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등의 균형 잡힌 목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을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한국교회는 교육 목회가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교회의 표어인 ‘선교와 사랑의 현장’은 ‘선교의 현장을 가진 교회’, ‘사랑의 현장을 가진 교회’로 이해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실천한 경로선교대학, 어린이집, 농촌교회

위원회 보고: 교회발전위원회 편
[강림교회 발전위원회 중장기발전기획안]

*교회발전위원회(위원장 안송엽 장로)는 지난 7월부터 강림교회 중장기 발전기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해왔습니다. 발전위원회의 토론회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이 기획안은 당회에서 논의를 거쳤고 향후 공식절차를 밟아 교회발전안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1. 사업명: 강림교회 10개년 발전계획
2. 사업기간: 2004년~2013년(10년)
3. 사업의 배경: ①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라는 교회발전목표를 재확인하고 ② <1000-100-1 운동>의 목표달성 이후 성장목표 수립 ③ 그동안 제시되었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함 ④ 향후 10년간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일정을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3.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업: ① 교회 재건축 및 리모델링 ② 교육관 건립 및 부지매입 ③ 복지관 건립을 통한 복지선교 ④ 해외유학센터 설립 및 인재양성사업 ⑤ 기도운동과 공동체 함양
4. 사업의 기본방향 및 내용: ① 양적인 성장보다 교회발전의 신앙적 목표에 충실 ② 지역선교의 구체적 목표는 인재양성과 청년선교 ③ 청년선교를 위해 해외 장학프로그램 실시(LA 현지 장학수 구입 및 운영) ④ 교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교육관건립과 부지매입
5. 사업단계: ① 교회내 의견수렴 ② 당회의 결정과 정책수립 ③ 전교인의 기도와 협력 ④ 사업비를 조성하여 기금확보 ⑤ 부지매입 및 필요공간의 건축
6. 세부사업기간: ① 1단계(2003. 9-12) 계획수립과 시범사업 ② 2단계(2004. 1-2005. 12) 기금마련 및 1차 사업추진 -해외 선교 제자파견 및 교육관 착공 ③ 3단계(2006. 1-2010. 12) 기금마련 및 2차 사업추진 -교육관 완공 및 본당 재건축 논의 ④ 4단계(2011. 1-2013. 12) 중장기사업배서발간 및 2014-2023 중장기사업계획 입안

■ 1000-100-1 운동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린 성도님들

백인순,조귀자,김재임,최영수,최복순,정해금,김옥주,양미경,김귀정,김상민,장지석,한해진,성기봉,강요자,성정수,전광호,안준남,박영숙,박정순,박정현,이희순,양미경,김종숙,한정란,성복순,최규익,이정희,강정익,최지자,성기봉,유숙자,이영숙,김정자,이승현,김영선,안길권,유옥희,김박래,김세영,박복래,이영국,양순임,박진범

주보에 실린 10개년 발전계획(2003년 11월 16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하고 추진해 나갈 기구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발전위원회'였다.

교회발전위원회는 2003년 1월 1일 안송엽 장로를 위원장으로 출범하였다(위원: 류시영 황경주 이한규 김세영 김중희 원지현 원도연 이감철). 교회발전위원회는 2003년 7월 19일과 9월 6일의 토론회를 통해 '중장기 발전기획안'을 도출하고 이를 9월 7일 당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2013년까지 10개년 발전계획을 제시하는 것이었는데, 전주강림교회의 목회 철학과 역사를 '지역 선교' 개념으로 정리하면서, 향후 10년간 전주강림교회가 집중해야 할 지역 선교의 영역으로 인재양성 선교를 지목하였다. 이를

와 해외 선교사 지원 등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더욱 확대시켜 민족과 온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 는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실현한다. 셋째, 통전적 영성목회 곧 균형 있는 통전적인 영성을 갖추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는 목회를 지향한다.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균형적인 목회, 종합적인 목회를 구현한다.” 이는 교육 목회에 대한 강조,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라는 전주강림교회 목회 철학의 발전적 계승, 통전적 영성을 추구하는 목회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을 목회 슬로건으로 정리한 것이 “교육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심는 교회”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회적 지향을

위해 해외 유학 및 어학연수 장학사업을 시작하고, 미국 L.A에 장학숙을 마련하며, 예배당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포함한 교육관 건립 등을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제안하였다. 그동안 집중한 복지 분야의 선교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복지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포괄하였다. 당회는 이 내용에 대해 숙의의 과정을 거친 후 11월 9일 정책당회를 거쳐, 11월 16일 주보를 통해 “강림교회 10개년 발전계획”이라는 제목의 교회발전위원회 보고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 발전계획이 향후 교회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되어 기독교 사회복지 선교를 체계화하고, 인재양성 선교를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기독교 사회복지 선교의 영역에서는 2003년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을 출범시키고 노인대학과 파란하늘어린이집을 함께 관장토록 하였다(이사장 양인석 목사, 운영위원장 황경주 장로). 출범 당시의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은 ‘운영위원회’가 전체를 총괄하는 가운데, ‘지역복지위원회’가 기존 ‘지역사랑위원회’의 사업을 이어받아 재단 직영 사업들을 담당토록 하고, ‘의료선교위원회’는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며, ‘노인대학’과 ‘파란하늘어린이집’을 부설기관으로 두었다. 2005년 11월 13일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를 재단 산하기관으로 개설하고(센터장 : 최규익), 2008년 1월 13일에는 최규익 집사(현재 목사)를 전임 사회복지사로 임명하여 재단의 사무와 사업 전반을 총괄토록 하였다.

인재양성 선교의 영역에서는, 2002년 지역사랑위원회로부터 장학사업을 분리하여 조직한 장학위원회를 2003년 ‘강림장학재단’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장학사업을 복지보다는 인재양성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한편 사업을 확대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해외어학연수 장학생을 선발하여 미국 L.A에서의 어학연수를 지원하고, 이 사업의 담당기구로 2006년 ‘해외어학연수원’을 조직하였다. 2010년 2월 17일 L.A에 장학숙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더욱 확대되었다. 해외어학연수원은 2007년부터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지원사업도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2005년 7월 3일 ‘크리스천진학연구소’를 설립하고, 2006년의 시범 사업을 거쳐 2007년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여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하였다.

4. 공간의 변화

1) 교회 소유 부동산의 변동

(1) 교회 앞마당

교회당 정면의 대지(금암동 1581-16, 445㎡/135평)를 1995년 4월 29일 매입하여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2001년 6월 19일에는 그 옆의 대지(금암동 1581-17, 200.8㎡/60.8평)를 매입하여 안송엽 장로와 성기봉 집사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2004년 2월 14일 교회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다. 다시 그 옆의 대지(금암동 1581-18)를 2007년 6월 3일부터 임차하고, 이 세 부지를 보도블록으로 포장하여 2021년 현재까지 교회 앞마당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2) 사랑관 건물 및 대지

2004년 2월 14일 교육관 건물 남측의 대지(금암동 1581-38, 178.6㎡/54.1평)와 건물 90.6㎡를 매입하였다. 이 건물은 2017년 12월 13일, ‘종합선교관 건축’ 준비를 위해 매봉 12길 3으로 교회 사무실이 이전하기까지 13년 이상 ‘사랑관’으로 불리며 교회 사무실로 기능하였다. 1층의 각 방을 당회장실, 부교역자 사무실, 남선교회실, 사회복지사실 등으로 활용하였고, 2층은 중보기도실 겸 문서 보관 창고로 활용하였다. 종합선교관 건축을 위해 2018년 1월 8일 멸실 및 철거 후 종합선교관 부지로 통합되었다.

(3) 제2주차장 부지의 매입과 주차장 조성

2006년 5월 30일 예배당 뒤편의 대지(금암동 1581-12, 166.7㎡/50.5평)와 건물(88.84㎡)을 매입하였다. 이 건물은 2008년 5월 제2주차장 조성을 위해 철거하기까지 고등부의 분반공부 및 교사 모임 장소로 이용되었다. 제2주차장 조성을 위해,



LA 장학숙 건물

2008년 3월 31일 금암동 1581-20(161.1㎡/48.8평)과 금암동 1581-21(142㎡/43평), 5월 14일 금암동 1581-11(62.9㎡/49.4평)을 추가로 매입한 뒤에 1581-11, 12, 20, 21의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제2주차장으로 조성하였다. 이 가운데 1581-20, 21은 2018년 종합선교관 건축부지로 통합되고 2021년 현재는 그 나머지만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4) 미국 L.A 장학숙

2010년 2월 17일에는 해외어학연수생 파견 사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국 L.A에 장학숙으로 사용할 건물을 매입하였다(123 South Ardmore Avenue Los Angeles, CA90004 U.S.A.). 8,000평방피트(약 225평)의 대지에 지어진 2,011평방피트(약 56.5평) 건평의 2층 건물로 1층과 2층에 각각 방 3개, 화장실 2개, 식당 1개가 갖추어져 있었다.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교회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결과로,

2009년 9월 당회에서 미국 L.A에 장학숙 건물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일은 안송엽 장로가 진행하였다.

안송엽 장로는 이 일을 위해 총 4회 미국을 방문하여 계약과 등기,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 구비 등을 마무리하였다. 1차로, 매입 대상 건물을 물색하기 위해 2010년 1월 19일 방문하여 2월 11일까지 20여 곳의 건물을 알아보았다. 2월 17일 임시당회에 보고한 결과 대상 건물을 확정 짓고, 미국 쪽 에이전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류를 준비하였다. 2010년 5월 11일 진행된 경매에 양인석 목사가 참여하여, 42만 5천 달러에 계약하게 되었다. 7월 6~23일 안송엽 장로의 2차 방문 때 등기 서류에 최종 사인하였다. 7월 9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7월 19일 L.A 시로부터 공사 중단 명령을 받는 어려움도 있었다. 공사는 8월 9일부터 재개되었고, 안송엽 장로는 공사의 마무리와 가재도구 갖추는 일을 위해 8월 23일~9월 9일 3차로 미국을 방문하여 일을 처리하였다. 귀국 후에도 공사 상황을 계속 점검하며 진행하던 중 12월 10~21일 김구태 집사(현재 장로)와 함께 4차로 미국을 방문하여 화재보험 계약, 전기공사 점검, 환기시설 및 가스 온풍기 설치, 추가적인 가재도구 구입 등 모든 일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건물은 해외어학연수원 관할 하에 본 교회 파견 해외어학연수 장학생들의 거처로 활용하다가, 2017년 6월 7일 98만 달러에 매각하여 종합선교관 건축 기금으로 사용되었다.

(5) 교역자 사택

2001년 1월 30일, 새로 부임할 담임목사 사택으로 거성타워아파트(금암동 1568번지 523-9) 가동 90호(84.51㎡/25평)를 매입하였다. 양인석 목사는 이렇게 큰 아파트가 필요 없다며 옮기기를 원하여 거성아파트를 매각하고 2005년 5월 17일 교회당 옆 대성연립(1583-5) 나동 303호(51.35㎡/16평)를 매입하여 이거하였다. 2008년 3월 31일에는 대성연립(1583-5) 나동 103호를 추가 매입하고, 303호를 104호와 맞바꾼 후, 103호와 104호를 연결하여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2006년 5월 30일에는 대성연립주택 가동 106호를 부교역자용 사택으로 매입하였다.

2) 환경 및 시설의 변경

(1) 활동 공간의 조정과 개선

교인 수가 늘어나고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점점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공간의 용도를 재배정하거나 시설을 조정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2000년 6월 21일에는 당회실(어린이집 입구 좌측)과 당회장실(2층 올라가는 계단 밑 공간으로)의 자리바꿈이 있었다. 2002년 1월에는 교회 사무실과 당회실 환경 개선을 위해 사무용 책상과 의자를 새로 구입하였다. 목회에 있어서 행정 사무의 양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2003년 8월 3일에는 지하 예배실의 장의자를 개인용 의자로 교체하였다. 의자의 이동과 재배치를 수월케 하여 토론 활동 등 다양한 용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04년에는 보다 큰 폭의 변경 작업이 이루어졌다. 2월 8일 교회발전위원회에서 보고한 공간 조정 계획을 채택하여 종합적인 안목으로 조정한 것이었다. 예배당 1층에 있던 기존의 당회장실과 사무실을 새로 매입한 ‘사랑관’으로 이동하고, 원구름반 교실(유치부실)을 넓게 만들었다. 교육관 1층에 있던 관리인 사택은 전세를 얻어 옮기고, 교육관 1층 전체를 식당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일 점심 식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다. 교육관 2층은 중등부실과 고등부실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사이의 벽을 헐어 하나의 넓은 공간을 만들었다. 고등부 예배는 아침 9시, 중등부 예배는 10시 50분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새로 매입한 사랑관의 담장을 헐어 주변 공간의 여유를 만들고, 사랑관의 1층 공간은 당회장실, 교역자 사무실, 남선교회실, 새가족부실 겸 다용도실로 그리고 2층 방은 중보기도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4년 11월 27일 정책당회는 교육관 2층을 사용하던 중등부와 고등부의 활동 공간을 지하로 옮기고, 지하를 사용하던 소년부가 교육관 2층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관 2층은 소년부 어린이들의 활동에 용이하도록,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바닥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두 공간 모두 빔프로젝터를 설치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동용 프로젝터도 추가로 구비하였다.

예배실의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우선, 2005년에는 예배실 강단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9월 4일 완료). 강단의 휘장을 없애고 좀 더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으로 바꾸었으며, ‘선교와 사랑의 현장’과 ‘교육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심는 교회’라는 교회의 모토 글귀를 부착하였다. 좌우 측면에는 황경주 장로의 성경구절(요일 5:12, 약 1:27) 서예 작품을 부착하고, 강단은 그 높이를 낮추고 목재를 사용하여 각종 행사에도 용이한 구조로 변경하였다. 3층의 회중석에는 칸막이를 하여 유아실을 만들어, 유아를 동반한 성도들의 예배 참여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2층 예배실 입구의 유아실 2개는 영아실 1개와 경로실 1개로 용도를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방송·영상 장비를 점진적으로 확충하였다. 2002년 4월 예배실에 멀티미디어 장비인 빔프로젝터를 설치하였다. 무명 교인의 헌금에 교회 재정을 추가하여 예배실 전면과 후면에 빔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설치함으로써, 영상을 활용한 예배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2007년에는 다시 한번 본당 음향 장비들을 더 나은 성능을 가진 것으로 교체하였고, 2009년에는 전면 좌측과 우측에 방송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황 중계와 녹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에는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던 강단 위 조명시설을 교체하여 다양한 상황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2) 주차장 및 주변 환경의 개선

이 시기 자동차가 크게 증가하면서 주차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조성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2001년 6월에는 1995년에 확보한 예배당 정면 부지와 그 옆으로 추가 확보한 부지를 통합하여 주차장을 확충하였다. 2007년 6월에는 앞마당 옆의 대지(금암동 1581-18)를 임차하고, 교회당 전면 우측에 설치되었던 과란하늘어린이집 놀이시설을 교회당 우측 도로변 공간으로 옮김으로써, 교회 앞마당 전체를 주차장으로 확보하였다. 이때 조성된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교회 주변 담장을 철거함으로써 환경 자체의 개방성도 높였다. 2008년 5월에는 예배당 뒤편에 제2주차장을 조성하였다. 2006년도에 확보한 대

지(금암동 1581-12)에 더하여 1581-11, 20, 21의 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이 역시 지역주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이 제2주차장에는 무명 교인의 헌금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대도 설치하였다. 2010년 11월 28일에는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교회 마당 주변에 느티나무를 식수하고 화단과 쉼터를 조성하였다. 2011년 6월에는 8개 선교회의 후원으로 나무 그늘 밑에 벤치도 마련하였다.

교회 내부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려는 노력도 있었다. 2004년 식당 공간을 확장하여 주일 점심식사 시 번잡함을 완화하였다. 2006년에는 식당 주방에 식기 세척기를 설치하였다. 2001년부터 남자 성도들이 설거지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는데, 주일 점심에 식사를 하는 교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점점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던 것이다. 2008년에는 식수대를 증설하고 물컵, 자외선 소독기를 비치하는 등 식당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그 외에도 2006년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였고, 2010년에는 예배실과 어린이집 그리고 지하 중·고등부실 등 예배당 건물 내 각 출입문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와 지하 중·고등부실 천정 개선 공사가 이루어졌다.

II. 기구와 조직

1. 연도별 현황

1) 연도별 직원 현황

■ 2000년

- 교역자 부목사: 온성진
 전도사: 동선옥 서경자 홍철원, 교육전도사: 김주옥
- 장로 시무: 김기범 안송엽 류시영 온호섭 이정석 이희성 진교헌 황경주
 협동: 김병규 정인기, 은퇴: 권이철
- 안수집사 시무: 강형희 김기영 김영선L 김을환 김종희 박석송 박홍종
 서종선 안길권 이연우 이요셉 이한규 임건웅 전광호 최경춘
 협동: 김구태 김동수 김영선J 양기영 장지석 정삼현 황호구 이홍구
- 권사 시무: 김선주 민현숙 박영자 박정순 배인순 설순자 신은순 신향용
 양순임 염번자 오순희 유계순 이강인 이명숙 이윤례 이정옥
 정귀임 조귀자
 은퇴: 김정은 송양순 이순의
 협동: 교수현 박순례 서경자 유귀민 이양순 박인희 허숙영

- 서리집사: 남자 61명, 여자 168명, 명예 17명

■2001년

- 교역자 담임목사: 양인석
전도사: 동선옥 서경자 홍철원, 교육전도사: 김주옥
- 장로 시무: 안송엽 류시영 온호섭 이정석 이희성 진교헌 황경주
협동: 김병규 정인기, 은퇴: 권이철
- 안수집사 시무: 강형희 김기영 김영선L 김을환 김종희 박석승 박홍중
안길권 이연우 이요셉 이한규 임건웅 전광호 최경춘
협동: 김구태 김영선J 양기영 장지석 정삼현 황호구 이흥구
허용옥
- 권사 시무: 김선주 민현숙 박영자 박정순 배인순 설순자 신은순 신향용
양순임 염번자 오순희 유계순 이강인 이명숙 이윤례 이정옥
정귀임 조귀자
은퇴: 김정은 송양순 이순의
명예: 강금순 고수현 문갑례 이양순 정복순, 협동: 서경자 박인희
- 서리집사: 남자 68명, 여자 176명, 명예 18명

■2002년

- 교역자 담임목사: 양인석
부목사: 홍철원, 전도사: 노윤숙 동선옥 서경자
교육목사: 심해련, 교육전도사: 김주옥 문종남
- 장로 시무: 안송엽 류시영 온호섭 이정석 이희성 진교헌 황경주
협동: 정인기, 은퇴: 권이철
- 안수집사 시무: 강형희 김영선L 김을환 김종희 박석승 박홍중 안길권
이연우 이요셉 이한규 전광호 최경춘

- 협동 : 김구태 김영선 양기영 장지석 허용욱
- 권사 시무 : 김선주 민현숙 박영자 박정순 배인순 설순자 신은순 신향용
양순임 염번자 오순희 유계순 이강인 이명숙 이윤례 이정옥
정귀임 조귀자
은퇴 : 김정은 송양순 이순의
명예 : 강금순 고수현 문갑례 이양순 정복순, 협동 : 서경자 박인희
 - 서리집사 : 남자 70명, 여자 160명, 명예 18명

■ 2003년

- 교역자 및 상근 직원
담임목사 : 양인석, 부목사 : 홍철원, 전도사 : 노윤숙 서경자
교육목사 : 심해련, 교육전도사 : 김주옥 문종남 장동현
관리인 : 임대영
- 장로 시무 : 안송엽 류시영 온호섭 이정석 진교현 황경주
협동 : 정인기, 은퇴 : 권이철, 봉사 : 강성곤
- 안수집사 시무 : 강형희 김영선 김을환 김종희 박석송 박홍종 안길권
이연우 이요셉 이한규 전광호 최경춘
협동 : 김구태 김영선 성경수 양기영 이귀형 장지석 허용욱
- 권사 시무 : 김선주 민현숙 박영자 박정순 배인순 설순자 신은순 신향용
양순임 염번자 오순희 유계순 이강인 이명숙 이윤례 정귀임
조귀자
은퇴 : 김정은 송양순 이순의
명예 : 강금순 고수현 문갑례 이양순 정복순 유재순
협동 : 서경자 박인희 김현순 박금옥 전을자 조순애
- 서리집사 : 남자 71명, 여자 166명, 명예 18명

■ 2004년

• 교역자 및 상근 직원

담임목사 : 양인석, 부목사 : 홍철원, 전도사 : 김주옥 노윤숙 서경자

교육전도사 : 김정태 박금녀 장동현, 협동목사 : 심해련

관리인 : 임대영

• 장로 시무 : 안송엽 류시영 이정석 진교현 황경주 김영선J 김영선L

양기영 장지석 정인기

봉사 : 강성곤, 은퇴 : 권이철 온호섭, 명예 : 성규하 장석률

• 안수집사 시무 : 강형희 권윤옥 김구태 김을환 김종희 박광수 박병규 박석승

박응규 박진범 박홍중 안길권 안병용 양병택 원도연 이갑철

이병호 이성복 이연우 이요셉 이준홍 이한규 임석윤 전광호

정국양 정양래 최경춘 최규익 최정근 허용옥 황양우

협동 : 성정수 이귀형 임동철

• 권사 시무 : 강묘자 김선주 김세영 김순옥 김옥자 김옥희 김정자 김차남

동선옥 민현숙 박영숙 박영자 박인희 박정순 박찬숙 박혜영

배인순 백 봉 서경자 설순자 성영자 신은순 신정애 신향용

양순임 양은순 양지순 염번자 오봉애 오순희 유말래 이강인

이계생 이구일 이기화 이명숙 이순이 이영숙 이윤례 이현자

이혜정 장귀순 전선옥 전순례 정귀임 정규례 조귀자 최복순

은퇴 : 김정은 유계순 이순의 이윤례

명예 : 강금순 고수현 문갑례 박복남 박옥순 박희양 유봉순 유재순

이순덕 이양순 정복순

협동 : 김현순 박금옥 전을자 조순애

• 서리집사 : 남자 64명, 여자 15명, 명예 18명

■ 2005년

• 교역자 및 상근 직원

담임목사: 양인석, 부목사: 홍철원, 전도사: 김주옥 노윤숙 서경자

교육전도사: 구주희 김신 김정태 박금녀

관리인: 임대영

• 장로 시무: 안송엽 류시영 이정석 진교현 황경주 김영선J 김영선L

장지석 정인기

봉사: 강성곤, 은퇴: 권이철 양기영 오희섭, 명예: 성규하 장석률

• 안수집사 시무: 강형희 권윤옥 김구태 김종희 박광수 박병규 박석승 박웅규

박진범 박홍중 안길권 안병용 양병택 원도연 이감철 이병호

이성복 이연우 이요셉 이준홍 이한규 임석윤 전광호 정국양

정양래 최경춘 최규익 최정근 허용옥 황양우

협동: 성정수 이귀형 임동철 양문석 최왕규

• 권사 시무: 강묘자 김선주 김세영 김순옥 김옥자 김옥희 김정자 김차남

동선옥 민현숙 박영숙 박영자 박인희 박정순 박찬숙 박혜영

배인순 백 봉 서경자 설순자 성영자 신은순 신정애 신향용

양순임 양은순 양지순 염번자 오봉애 오순희 유말래 이강인

이계생 이구일 이기화 이명숙 이순이 이영숙 이윤례 이현자

이혜정 장귀순 전선옥 전순례 정귀임 정규례 조귀자 최복순

은퇴: 김정은 유계순 이윤례

명예: 강금순 고수현 문갑례 박복남 박옥순 박희양 유봉순 유재순

이순덕 이양순 정복순 정수남 정인순 한기숙

협동: 김현순 박금옥 박정숙 임명옥 전을자 조순애

• 서리집사: 남자 70명, 여자 160명, 명예 19명

■ 2006년

• 교역자 및 상근 직원

담임목사: 양인석, 부목사: 홍철원

전도사: 김정태 김주옥 노운숙 서경자

교육전도사: 구주희 김연백 남경호 박금녀

관리인: 임대영

• 장로

시무: 안송엽 류시영 이정석 진교현 황경주 김영선J 김영선L

장지석 정인기

봉사: 강성곤, 은퇴: 권이철 양기영 온호섭, 명예: 성규하 장석률

• 안수집사

시무: 강형희 권윤옥 김구태 김종희 박광수 박병규 박석승 박웅규

박진범 박홍종 안길권 안병용 양병택 원도연 이감철 이병호

이성복 이연우 이요셉 이준홍 이한규 임석운 전광호 정국양

정양래 최경춘 최규익 최정근 허용옥 황양우

협동: 김태영 성경수 이귀형 임동철 최왕규

• 권사

시무: 강묘자 김선주 김세영 김순옥 김옥자 김옥희 김정자 김차남

동선옥 민현숙 박영숙 박영자 박인희 박정순 박찬숙 박혜영

배인순 백 봉 서경자 성영자 신은순 신향용 양순임 양은순

양지순 염변자 오봉애 오순희 유말래 이강인 이계생 이구일

이기화 이명숙 이복례 이순이 이영숙 이현자 이혜정 전선옥

전순례 정귀임 정규례 조귀자 최복순

은퇴: 김정은 유계순 이윤례 설순자 신정애

명예: 강금순 고수현 문갑례 박복남 박옥순 박희양 유봉순 유재순

이순덕 이양순 정복순 정수남 한기숙

협동: 김순안 김현순 박금옥 박정숙 임명옥 전을자 조순애

• 서리집사: 남자 81명, 여자 170명, 명예 19명

■ 2007년

• 교역자 및 상근 직원

담임목사 : 양인석, 협동목사 : 김인곤 오세용

전임교역자 : 김정태 김주옥 노운숙 서경자

교육교역자 : 구주희 김연백 남경호 박금녀 허연

관리인 : 양병택

• 장로

시무 : 안송엽 류시영 이정석 진교현 황경주 김영선J 김영선L
장지석 정인기

은퇴 : 권이철 양기영 은호섭, 명예 : 강성곤 성규하 이강심 장석률

• 안수집사

시무 : 강형희 권윤옥 김구태 김종희 박광수 박석송 박웅규 박진범
박홍중 안길권 안병용 양병택 원도연 이감철 이병호 이성복
이연우 이요셉 이준홍 이한규 임석윤 전광호 정국양 정양래
최경춘 최규익 최정근 허용옥 황양우

협동 : 김태영 김윤근 성정수 이귀형 임동철 최왕규

• 권사

시무 : 강묘자 김선주 김세영 김순옥 김옥자 김옥희 김정자 동선옥
민현숙 박영숙 박영자 박인희 박정순 박찬숙 박혜영 배인순
백 봉 서경자 성영자 신은순 신향용 양순임 양은순 양지순
염번자 오봉애 오순희 유말래 이강인 이계생 이구일 이기화
이명숙 이복례 이순이 이영숙 이현자 이혜정 전선옥 전순례
정귀임 정규례 조귀자 최복순

은퇴 : 김정은 김차남 설순자 신정애 유계순 이윤례

명예 : 강금순 고수현 김효녀 박복남 박옥순 박희양 유봉순 유재순
이순덕 이양순 정복순

협동 : 김순안 김현순 박금옥 박정숙 임명옥 전을자 조순애 최점순

• 서리집사 : 남자 87명, 여자 195명, 명예 26명

■ 2008년

• 교역자 및 상근 직원

담임목사 : 양인석, 부목사 : 김정태, 전임교역자 : 노윤숙 서경자
교육교역자 : 김주옥 남경호 문승현 문화규 박금녀 최재룡
사회복지사 : 최규익, 관리인 : 양병택

• 장로

시무 : 안송엽 류시영 이정석 진교현 황경주 김영선J 김영선L
장지석 정인기 강형희 김종희 안길권 이연우 이한규(14명)
봉사 : 최근철, 은퇴 : 권이철 양기영 온호섭
명예 : 강성곤 성규하 이강심

• 안수집사

시무 : 고창호 권윤옥 김구태 김태영 박광수 박석승 박용규 박진범
박홍종 배상근 서기원 성기봉 성정수 송원숙 송자석 신을재
안병우 안병용 양병택 원도연 이감철 이귀형 이병호 이성복
이요셉 이정원 이준홍 임석윤 전광호 정국양 정양래 최경춘
최규익 최왕규 최정근 허용옥 황양우(37명)
협동 : 김윤근 김천종 임동철(3명)

• 권사

시무 : 강묘자 김귀정 김선주 김세영 김순안 김순옥 김옥자 김옥희
김정자 김종숙 동선옥 민현숙 박금옥 박수자 박영숙 박인희
박정순 박종숙 박찬숙 박혜영 배인순 백 봉 서경자 성영자
송순금 신은순 신향용 양순임 양은순 양지순 염번자 오봉애
오순희 유말래 이강인 이계생 이구일 이기화 이난희 이복례
이선옥 이순이 이영숙 이점순 이정숙 이정순 이정자 이현자
이혜정 임명옥 장선미 전선옥 전순례 전을자 정귀임 정복남
정영옥 조귀자 조순애 최복순 최순덕 허명순(62명)
은퇴 : 김정은 김차남 김현순 박영자 설순자 신정애 유계순 이명숙
이운례 정규례(10명)
명예 : 강금순 고수현 김효녀 박복남 박희양 유봉순 유재순 이순덕

이양순 정복순(10명)

협동 : 김옥단 최점순(2명)

•서리집사 : 남자 82명, 여자 174명, 명예 26명

■ 2009년

•교역자 및 상근 직원

담임목사 : 양인석, 협동목사 : 김인곤 오세용

부목사 : 김정태, 전임교역자 : 노윤숙 서경자

교육교역자 : 남경호 문승현 문화규 박금녀 지승한 최재룡

사회복지사 : 최규익, 관리인 : 양병택

•장로 시무 : 안송엽 이정석 진교현 황경주 김영선J 김영선L 장지석

정인기 강형희 김종희 안길권 이연우 이한규(13명)

봉사 : 최근철, 은퇴 : 권이철 류시영 양기영 온호섭

명예 : 강성곤 성규하 이강심

•안수집사 시무 : 권윤옥 김구태 김태영 박광수 박석송 박용규 박진범 박홍종

배상근 서기원 성기봉 성정수 송원숙 송자석 신을재 안병우

안병용 양병택 원도연 이감철 이귀형 이병호 이성복 이요셉

이정원 이준홍 임석윤 전광호 정국양 정양래 최경춘 최규익

최왕규 최정근 허용욱 황양우(36명)

협동 : 김윤근 김천중 임동철(3명), 은퇴 : 고창호

•권사 시무 : 강묘자 김귀정 김선주 김세영 김순안 김순옥 김옥자 김옥희

김정자 김종숙 동선옥 민현숙 박금옥 박수자 박영숙 박인희

박정순 박종숙 박찬숙 박혜영 배인순 백 봉 서경자 성영자

송순금 신은순 신향용 양순임 양은순 양지순 염번자 오봉애

오순희 유말래 이강인 이계생 이구일 이기화 이난희 이복례

이선옥 이순이 이영숙 이점순 이정숙 이정순 이정자 이현자

이혜정 임명옥 장선미 전선옥 전순례 전을자 정귀임 정복남

정영옥 조귀자 조순애 최복순 최순덕 허명순(62명)

은퇴 : 김정은 김차남 김현순 박영자 설순자 신정애 유계순 이명숙

이윤례 정규례(10명)

명예 : 강금순 고수현 박복남 박희양 유봉순 유재순 이순덕 이양숙

정복순(9명)

협동 : 김옥단 박영임 최점순(3명)

•서리집사 : 남자 91명, 여자 182명, 명예 26명

■ 2010년

•교역자 및 상근 직원

담임목사 : 양인석, 협동목사 : 김인곤 오세용

부목사 : 김정태, 전임교역자 : 노윤숙 서경자

교육교역자 : 남경호 문승현 문화규 박금녀 최재룡 현성실

사회복지사 : 최규익, 관리인 : 양병택

•장로 시무 : 안송엽 이정석 진교헌 황경주 김영선J 김영선L 장지석

정인기 강형희 김종희 안길권 이연우 이한규(13명)

봉사 : 최근철, 은퇴 : 권이철 류시영 양기영 온호섭

명예 : 강성곤 성규하 이강심

•안수집사 시무 : 권윤옥 김구태 김태영 박광수 박석송 박웅규 박진범 박홍종

배상근 서기원 성기봉 성정수 송원숙 송자석 신을재 안병우

안병용 양병택 원도연 이감철 이귀형 이병호 이성복 이요셉

이정원 이준홍 임석운 전광호 정국양 정양래 최경춘 최규익

최왕규 최정근 허용옥 황양우(36명)

협동 : 김윤근 김천종 임동철(3명), 은퇴 : 고창호

•권사 시무 : 강묘자 김귀정 김선주 김세영 김순안 김순옥 김옥자 김옥희

김정자 김종숙 민현숙 박금옥 박수자 박영숙 박인희 박정숙
 박정순 박찬숙 박혜영 배인순 백 봉 서경자 성영자 송순금
 신은순 신향용 양순임 양은순 양지순 염번자 오봉애 오순희
 유팔래 이계생 이기화 이난희 이복례 이선옥 이순이 이영숙
 이점순 이정숙 이정자 이현자 이해정 임명옥 장선미 전선옥
 전순례 전은혜 정귀임 정복남 정영옥 조귀자 조순애 최복순
 최정연 허명순(58명)

은퇴 : 김정은 김차남 김현순 동선옥 박영자 설순자 신정애 유계순
 이강인 이구일 이명숙 이윤례 정규례(13명)

명예 : 강금순 고수현 박복남 박희양 유봉순 유재순 이양순 정복순
 (8명)

협동 : 김옥단 박영임 송국희 조영임(4명)

•서리집사 : 남자 95명, 여자 183명, 명예 25명

■ 2011년

•교역자 및 상근 직원

담임목사 : 양인석, 협동목사 : 김인곤 오세용

케나파송선교사 : 최재룡

부목사 : 김정태, 전임교역자 : 노윤숙 서경자

교육교역자 : 김일 김혁수 남경호 문승현 문화규 박금녀

사회복지사 : 최규익, 관리인 : 양병택

•장로

사무 : 안송엽 진교현 김영선J 김영선L 장지석 정인기 강형희

김종희 안길권 이연우 이한규(11명)

봉사 : 이정석 최근철, 은퇴 : 권이철 류시영 양기영 온호섭 황경주

명예 : 강성곤 성규하 이강심

피택 : 김구태 김세영 성정수 이병호 이복례

•안수집사 시무 : 권윤옥 김태영 박광수 박병규 박석승 박웅규 박진범 박홍중
배상근 서기원 성기봉 송자석 신을재 안병용 안병우 양병택
원도연 이감철 이귀형 이성복 이요셉 이정원 이준홍 임석운
전광호 정국양 정양래 최경춘 최규익 최왕규 최정근 허용옥
황양우(33명)

협동 : 김천중 유동희(2명), 은퇴 : 고창호 김윤근(2명)

피택 : 강지호 구회언 김성수 반징수 성기춘 안효초 오광중 윤철
장성화 장종섭 조영호(11명)

•권사 시무 : 강묘자 김귀정 김선주 김순안 김순옥 김옥자 김옥희 김정자
김종숙 민현숙 박금옥 박수자 박영숙 박인희 박정숙 박정순
박찬숙 박혜영 배인순 백 봉 서경자 성영자 송순금 신은순
양순임 양은순 양지순 염번자 오봉애 오순희 유말래 이계생
이기화 이난희 이선옥 이순이 이영숙 이점순 이정숙 이정자
이현자 이해정 임명옥 장선미 전선옥 전순례 전은혜 정귀임
정영옥 조귀자 조순애 최복순 최정연 허명순 조순애 최복순
최정연 허명순(54명)

은퇴 : 김정은 김차남 김현순 동선옥 박영자 설순자 신정에 신향용
유계순 이강인 이구일 이명숙 이윤례 정규례 정복남(15명)

명예 : 강금순 고수현 박복남 박희양 유봉순 유재순 이양순 정복순
(8명)

협동 : 김옥단 박영임 서종금 송국희 이영미 조영임(6명)

피택 : 강정이 김명애 김명자 김세순 김현숙 나영자 민정애 백영란
송성희 신정자 안나영 안성정 양희남 오춘호 우옥희 이성화
이인한 이정애 이진화 이효순 조성순 최순선 최은환 한현희
(24명)

•서리집사 : 남자 79명, 추천자 18명, 여자 153명, 추천자 23명, 명예 29명

2) 연도별 조직 현황

■ 2000년

- 당회 서기 : 이정석
- 제직회 서기 : 박홍중, 회계 : 전광호
부회계 : 강형희 김영윤 김종희 박석송 배인순 이연우 장귀순 황양우
감사 : 온호섭 안길권
선교부장 장지석, 교육부장 전재형, 새신자부장 류시영, 재정부장 진교현,
홍보부장 원도연, 봉사부장 박정순, 주방관리부장 염번자, 관리부장 서종선,
경조부장 이연우, 차량관리부장 김기영, 행사부장 김영선
- 특별위원회 : 지역사회위원장 이한규, 노인대학장 양기영,
의료선교위원장 조귀자

■ 2001년

- 당회장 : 양인석, 당회 서기 : 이정석
- 제직회 서기 : 박홍중, 회계 : 김종희
부회계 : 강형희 김영선J 김영윤 박광수 박석송 배인순 성기봉 이연우 장귀순
황양우
감사 : 온호섭 전광호
선교부장 장지석, 교육부장 안길권, 새가족부장 류시영, 재정부장 진교현,
홍보부장 원도연, 봉사부장 조귀자 이명숙, 주방관리부 염번자 박정순,
관리부장 이요셉, 경조부장 이연우, 차량관리부장 강형희, 행사부장 김영윤
- 특별위원회 : 농촌선교위원장 온호섭, 지역사회위원장 이한규,
노인대학장 양기영, 의료선교위원장 신은순, 해외선교위원장 김영선J

■ 2002년

- 당회장 : 양인석, 당회 서기 : 황경주
- 제직회 서기 : 허용욱, 부서기 : 정양래, 회계 : 김종희, 특별회계 : 김영선
부회계 : 박광수 박석승 백 봉 성기봉 신을재 이한규 장귀순 최경춘 최정근
감사 : 진교헌 전광호
선교부장 류시영, 교육부장 안길권, 새가족부장 진교헌, 재정부장 이희성,
홍보부장 원도연, 방송부장 박병규, 행사부장 박홍중, 봉사부장 조귀자 박영숙,
주방관리부장 박정순 배인순, 관리부장 이한규, 시설부장 성기봉,
차량관리부장 이요셉 황양우
- 특별위원회 : 농촌선교위원장 장지석, 지역사랑위원장 류시영,
의료선교위원장 온호섭, 해외선교위원장 김영선,
경조위원장 최경춘, 장학위원장 진교헌

■ 2003년

- 당회장 : 양인석, 당회 서기 : 황경주
- 제직회 서기 : 허용욱, 부서기 : 정양래, 회계 : 김영선
부회계 : 강형희 권윤옥 김명자(62) 김세순 박석승 박혜영 박홍중 배인순
성기봉 이성복 이연우 최경춘
감사 : 진교헌 김종희
선교부장 양기영, 교육부장 안길권, 새가족부장 강성곤, 재정부장 온호섭,
홍보부장 박진범, 방송부장 박병규, 행사부장 정국양, 봉사부장 조귀자 박영숙,
주방관리부장 염번자, 관리부장 전광호, 시설부장 이한규, 차량관리부장 황양우
- 특별위원회 : 농촌선교위원장 장지석, 경조위원장 최경춘,
해외선교위원장 김종희, 예배위원장 진교헌,
교회발전위원장 안송엽, 찬양사역자 양미경
- 재단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 : 이사장 양인석, 운영위원장 황경주

– 노인대학장 류시영, 의료선교위원장 정인기
전주강림장학재단 : 이사장 양인석, 운영위원장 진교헌

■ 2004년

- 당회장 : 양인석, 당회 서기 : 정인기
- 제직회 서기 : 전광호, 부서기 : 이요셉, 회계 : 박홍중
부회계 : 강형희 권윤옥 김명자(62) 박석승 박혜영 배상근 백 봉 성기봉
성정수 염번자 이성복 임석운 최정근 한현희
감사 : 김영선J 김종희
전도부장 이연우, 교육부장 강형희, 새가족부장 정인기, 재정부장 류시영,
홍보부장 박진범, 방송부장 박병규, 행사부장 정국양, 봉사부장 강묘자,
주방관리부 박정순, 관리부장 이한규, 차량관리부장 황양우
- 특별위원회 : 농촌선교위원장 김영선L, 경조위원장 허용옥,
해외선교위원장 김종희, 예배위원장 진교헌, 교회발전위원장 안송엽
- 재단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 : 이사장 양인석, 운영위원장 양기영
– 노인대학장 양기영, 의료선교위원장 황경주
전주강림장학재단 : 이사장 양인석, 운영위원장 장지석

■ 2005년

- 당회장 : 양인석, 당회 서기 : 정인기
- 제직회 서기 : 전광호, 부서기 : 이요셉, 회계 : 최정근
부회계 : 강형희 권윤옥 김명자(63) 김종희 박석승 박혜영 배상근 백 봉
안병용 염번자 이성복 임석운 한현희 황양우
감사 : 류시영 박홍중
전도부장 정양래, 교육부장 정국양, 새가족부장 정인기, 재정부장 안송엽,
홍보부장 박병규, 방송부장 박진범, 행사부장 이한규, 봉사부장 강묘자,

주방관리부장 박영숙, 관리부장 강형희, 차량관리부장 성기봉

- 특별위원회 : 농촌선교위원장 김영선L, 경조위원장 허용욱, 해외선교위원장 원도연, 예배위원장 김영선J, 교회발전위원장 류시영
- 재단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 : 이사장 양인석, 운영위원장 황경주
 - 노인대학장 류시영, 의료선교위원장 황경주
- 전주강림장학재단 : 이사장 양인석, 운영위원장 장지석

■ 2006년

- 당회장 : 양인석, 당회 서기 : 김영선L
- 제교회 서기 : 전광호, 부서기 : 이요셉, 회계 : 최정근
- 부회계 : 강병량 권윤옥 김명자(J) 김세순 김종희 김태영(K) 김태영(L) 박석승
- 배상근 백 봉 송원숙 이성복 임석윤 한현희 황양우
- 감사 : 안송엽, 박홍종
- 전도부장 정양래, 교육부장 정국양, 새가족부장 류시영, 재정부장 진교현,
- 홍보부장 박웅규, 방송부장 박진범, 행사부장 이한규, 봉사부장 최복순,
- 주방관리부장 박영숙, 관리부장 강형희, 차량관리부장 성기봉, 영선부장 안병용
- 특별위원회 : 농촌선교위원장 김영선J, 경조위원장 김옥희,
- 해외선교위원장 허용욱, 예배위원장 김영선L,
- 교회발전위원장 장지석, 크리스천진학연구소장 안길권
- 재단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 : 이사장 양인석, 운영위원장 황경주
 - 노인대학장 류시영, 의료선교위원장 정인기
 - 강림새날아동지역센터장 최규익
 - 강림파란하늘어린이집원장 원지현
- 전주강림장학재단 : 이사장 양인석, 운영위원장 안송엽
 - 해외어학연수원장 원도연

■ 2007년

- 당회장 : 양인석, 당회 서기: 김영선J

제직회 서기: 이요셉, 부서기: 이준홍, 회계: 배상근

부회계: 권윤옥 김명자J 김종희 김태영K 박석승 송원숙 이난희 이성복

임석윤 장철현 한현희

감사: 진교현 최정근

선교부장 박영숙, 교육부장 박홍중, 새가족부장 류시영, 재정부장 이정석, 홍보부장 황양우, 봉사부장 최복순, 관리부장 정국양, 주방관리부장 이복레, 행사부장 최왕규, 방송부장 성정수, 차량관리부장 강형희, 주차관리부장 성기봉, 영선부장 안병용

- 특별위원회: 농촌선교위원장 김영선J, 경조위원장 김옥희,
해외선교위원장 허용욱, 예배위원장 김영선L, 교회발전위원장 장지석,
크리스천학원연구소장 안길권, 청소년교육문화센터장 반정수

- 재단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양인석

- 운영위원장 이한규, 총무 최규익, 회계 성정수, 서기 박금녀
- 강림경로선교대학 학장 전광호, 의료선교위원장 이병호
- 강림새날아동지역센터장 최규익
- 강림파란하늘어린이집원장 원지현

전주강림장학재단: 이사장 양인석, 운영위원장 원도연

- 해외어학연수원장 이감철

■ 2008년

- 당회장 : 양인석, 당회 서기: 장지석

- 제직회 서기: 이준홍, 부서기: 박진범, 회계: 배상근

부회계: 강병량 김명자 김상균 김태영 박웅규 송원숙 송자석 이난희 이성복

장철현 전광호 한현희

감사 : 이정석, 최정근

전도부장 박영숙, 교육부장 박홍중, 새가족부장 류시영, 재정부장 정인기,
홍보부장 황양우, 봉사부장 최복순, 관리부장 정국양, 주방관리부장 강묘자,
행사부장 최왕규, 방송부장 성정수, 차량부장 박광수, 주차관리부장 장지석,
영선부장 안병용

●특별위원회 : 농촌선교위원장 진교현, 경조위원장 강형희,

해외선교위원장 이감철, 예배위원장 김영선J,

교회발전위원장 안송엽, 크리스천진학연구소장 김태영,

청소년교육문화센터장 반징수

●재단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 : 이사장 양인석

– 운영위원장 이한규, 사무총장 사회복지사, 재무국장 박영혜

– 사무국장 박금녀, 강림경로선교대학 학장 최경춘

– 의료선교위원장 이병호,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장 최규익

– 강림파란하늘어린이집원장 원지현

전주강림장학재단 : 이사장 양인석, 운영위원장 원도연

– 해외어학연수원장 이감철

■ 2009년

●당회장 : 양인석, 당회 서기 : 안길권

●제직회 서기 : 이준홍, 부서기 : 황양우, 회계 : 최정근

부회계 : 강병량 김명자 박석승 박웅규 송자석 이난희 이성복 장철현 한현희

감사 : 정인기 배상근

전도부장 황경주, 교육부장 박홍중, 새가족부장 이정석, 재정부장 김영선L,

홍보부장 최왕규, 봉사부장 박영숙, 관리부장 서기원, 주방관리부장 장지석,

행사부장 정양래, 방송부장 성정수, 차량부장 박광수, 주차관리부장 이연우,

영선부장 은재춘

- 특별위원회 : 농촌선교위원장 진교헌, 경조위원장 강형희,
해외선교위원장 신을재, 예배위원장 김영선,
교회발전위원장 안송엽, 크리스천진학연구소장 김태영,
강림청소년교육문화센터장 임석윤
- 재단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 : 이사장 양인석
 - 운영위원장 이한규, 사무총장 사회복지사, 재무국장 박영혜
 - 사무국장 박금녀, 강림경로선교대학장 최경춘
 - 의료선교위원장 최근철,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장 최규익
 - 강림파란하늘어린이집원장 원지현
 전주강림장학재단 : 이사장 양인석, 운영위원장 김세영
 - 해외어학연수원장 신을재

■ 2010년

- 당회장 : 양인석, 당회 서기 : 강형희
- 제직회 서기 : 황양우, 부서기 : 안효초, 회계 : 최정근
부회계 : 강병량 강지호 박석승 박웅규 박홍종 선종신 송자석 양옥순 염번자
오춘호 이난희 이정원 최경춘
감사 : 김영선, 배상근
전도부장 황경주, 교육부장 김천중, 새가족부장 이정석, 재정부장 김영선
홍보부장 최왕규, 봉사부장 박영숙, 관리부장 서기원, 주방관리부장 장지석,
행사부장 정양래, 방송부장 성경수, 차량부장 이성복, 주차관리부장 박광수,
영선부장 은재춘
- 특별위원회 : 농촌선교위원장 강형희, 경조위원장 안송엽 이연우,
해외선교위원장 신을재, 예배위원장 진교헌, 교회발전위원장 안송엽,
크리스천진학연구소장 안길권, 강림청소년교육문화센터장 반징수,
창립 30주년 준비위원회장 안송엽(고 안창엽 목사 설교집 편집책임자 최규익, 30년사

편집 책임자 황경주)

- 재단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 : 이사장 양인석
 - 운영위원장 이한규, 사무총장 사회복지사, 재무국장 박영혜,
 - 사무국장 박금녀, 모세학교장 황경주, 의료선교위원장 최근철
 -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장 최규익
 - 강림과관하늘어린이집원장 원지현
- 전주강림장학재단 : 이사장 양인석, 운영위원장 김세영
 - 해외어학연수원장 신을재

■ 2011년

- 당회장 : 양인석, 당회 서기: 이연우
- 제직회 서기: 황양우, 부서기: 안효초, 회계: 배상근
 - 부회계: 강지호 박병규 박석승 박홍종 선종신 송자석 양옥순 염번자 오춘호
 - 이난희 이정원 장철현 조영호 최경춘
- 감사: 김영선, 최정근
- 전도부장 박영숙, 교육부장 김천종, 새가족부장 이연우,
- 봉사부장 이복레 강묘자, 재정부장 장지석, 관리부장 은재춘,
- 차량부장 이성복, 주차관리부장 박광수, 주방관리부장 정인기,
- 영선부장 안병우, 홍보부장 서기원, 방송부장 성정수, 행사부장 성기봉
- 특별위원회: 예배위원장 진교현, 교회발전위원장 안송엽,
 - 농촌선교위원장 강형희, 해외선교위원장 최왕규,
 - 경조위원장 안길권 이한규, 창립 30주년 준비위원회장 안송엽(교 안창엽 목사 설
 - 교집편집책임자 최규익, 30년사 편집책임자 황경주)
- 재단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 : 이사장 양인석, 운영위원장 이한규,
 - 사무총장 최규익
 - 모세학교장 황경주, 의료선교위원장 원도연

– 강림과란하늘어린이집원장 원지현

–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장 최규익

전주강림장학재단 : 이사장 양인석, 운영위원장 최근철

- 교육지원기관 : 청소년교육문화센터장 반징수, 크리스천진학연구소장 안길권,
해외어학연수원장 김구태

2. 행정기구

1) 당회와 공동의회

이 시기 당회는 매월 첫째 주일의 정기당회, 8월의 당회원 수련회, 연말의 정책 당회와 인사당회 그리고 당회원-교역자 연석회의를 축으로 활동하였다. 2002년 3월부터 정기당회에 월별 목회보고서가 서면으로 제출되기 시작하였고, 2004년부터는 매년 각 교역자의 연간 사역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것이 2006년부터는 12월 첫째 주일의 당회원-교역자 연석회의로 정착하였다. 2007년부터는 이때 제출된 보고서들을 묶어 중요한 자료로 축적하기 시작하였다. 매년 8월의 당회원 수련회는 당회원 간의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책적 토론의 장이기도 했다. 2004년부터는 11월에 정책당회를 열어 다음연도의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12월에 인사당회를 열어 다음연도 인사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정립되었다.

이 시기 들어 당회는 교회의 정책을 수립하고 각급 기구들의 활동을 조율하는 역할에 더하여 핵심적인 정책들의 실행까지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전의 농촌선교위원회와 지역사회사랑위원회에 이어 의료선교위원회(1999년 1월 1일 조직), 해외선교위원회(2001년 선교부에서 해외선교 부문을 분리하여 조직), 경조위원회(2002년 1월 1일 경조부에서 경조위원회로 개편), 예배위원회(2003년 1월 26일 조직),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 강림장학

재단, 해외어학연수원, 크리스천진학연구소, 강림청소년교육문화센터 등 많은 특별 위원회와 핵심적인 정책 실행 기구들이 모두 당회 직속으로 편제되었기 때문이었다. 2006년부터는 이 기구들의 책임자들을 구역장, 자치기관 회장, 교회학교 부장들과 묶어 ‘청지기’로 칭하면서 매년 1월에 청지기 헌신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시작인 2000년의 당회원은 김기범, 류시영, 안송엽, 온호섭, 이정석, 이희성, 진교현, 황경주 8인의 시무장로와 부목사인 온성진 목사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은퇴장로인 권이철 장로와 협동장로인 김병규, 정인기 장로가 언권회원이었다. 온성진 목사는 2000년 10월 17일 사임하였다. 2001년 2월 양인석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전북노회와의 갈등 상황에서, 2001년 8월 26일 치리회를 열어 김기범 장로에 대한 면직 처분을 내리고 9월 2일에 이를 공고하였다. 2002년 3월 3일에는 이희성 장로의 시무 사임 및 이명 요청을 수리하였다. 2003년 9월 13일의 5차 임직예식을 통해 김영선J, 김영선L, 양기영, 장지석, 정인기 5인이 당회원으로 합류하였다. 온호섭 장로가 2003년 말일, 양기영 장로는 2004년 말일로 은퇴하며 시무를 종료하였다. 2007년 10월 13일의 6차 임직예식으로 강형희, 김종희, 안길권, 이연우, 이한규 5인이 당회원으로 합류하였다. 류시영 장로가 2008년 연말, 황경주 장로가 2010년 연말로 은퇴하여 시무를 종료하였고, 이정석 장로는 2010년 연말로 시무를 사임하였다. 2011년 6월 11일의 7차 임직예식으로 김구태, 김세영, 성경수, 이병호, 이복례 5인이 당회원으로 합류하였다.

부목사 당회원으로는 2001년 11월 19일 홍철원 목사가 목사안수 후 부목사로 시무하고 2006년 4월 16일 무주 장안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김정태 목사는 2007년 11월 20일 목사안수 후 부목사로 시무하였다. 한편, 양인석 목사 이외의 당회 장직 행사자로는 1999년 12월 20일부터 2000년 10월 17일까지 정복량 목사, 2000년 10월 17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이운철 목사, 2000년 12월 17일부터 2001년 3월 14일까지 박영래 목사가 임시 당회장직을 맡았다. 강택현 목사는 2001년 3월 14일 초청 대리 당회장으로 초빙되어 양인석 목사 청빙건과 노회 탈퇴 건을 처리하였다. 2005년 3월 5일 전북노회와의 화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박영래 목사가 임시당

회장으로 당회를 인도하였고, 2008년 11월 2일 김하웅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어 전북노회 재가입 건과 양인석 목사 위임 청빙 건을 처리하였다.

공동의회는 매년의 예결산 처리를 위해 연말 또는 연초에 소집되었다. 그 이외의 문제로 소집되어 처리한 안건들은 다음과 같다. 2001년 3월 25일 초청 당회장 강택현 목사가 주재한 공동의회는 전북노회로부터의 행정적 탈퇴와 양인석 목사 위임 청빙을 결의하였다. 2003년 5차 임직예식에서 세워진 일꾼들은 2003년 1월 26일 공동의회에서 선택되었다. 2007년 6차 임직예식 임직자들을 뽑아 세운 것은 2007년 3월 25일 공동의회였다. 2011년의 7차 임직자들은 2010년 7월 11일의 공동의회에서 선택되었다. 2009년 8월 16일 공동의회는 전북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 김하웅 목사의 소집으로 양인석 목사 위임 청빙 청원의 건을 처리하였다.

2) 제직회

이 시기 제직회는 짝수 달 둘째 주일에 정기제직회로 모였다. 통상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던 것이 2004년부터 오후 예배 후로 변경되었다. 매년 1월에 제직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착되어 있었다. 2007년부터는 매년 2월 정기제직회에서 제직회 각 부장들의 보고가 이루어졌고, 4월 제직회에서는 교회학교 각 부서의 현황 보고가 있었다. 조직의 변동을 보면, 2001년에 새신자부가 새가족부로 변경되었다. 수평 이동의 일반화를 반영한 명칭 변경이었다. 2001년 7월 22일에 방송부가 신설되었다(부장: 이정석, 부원: 박병규 박웅규 안중현 임신애). 2002년에 시설부와 차량관리부가 신설되고 경조부는 경조위원회로 개편되면서 당회 직속 기구로 이동하였다. 선교부는 2004년 전도부로 명칭 변경되었다.

이 시기 제직회가 처리한 주요 안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12월 31일 임시당회장 박영래 목사의 사회로 열린 제직회는 당회가 제출한 양인석 목사 담임목사 청빙 청원의 건을 가결하였다. 2001년 3월 18일 초청 대리당회장 강택현

목사의 사회로 열린 제직회는 당회에서 제출한 전북노회로부터 행정적 탈퇴의 건과 양인석 목사 위임 청빙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공동의회로 넘겼다. 2002년 11월 17일 소집된 제직회는 담임목사의 정년 단축과 6년마다 재신임 제도, 장로 10년 단임 제도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직원 선택 내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2006년 6월 18일의 제직회는 ‘직원 선택 내규’에 따라 양인석 목사에 대한 1차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총투표수 183표, 찬성 165표, 반대 18표, 찬성률 91%로 양인석 목사를 재신임하였다. 2007년 1월 14일의 제직회는 당회에서 의뢰한 장로 공천 후보자 15인 추천의 건에 대해 투표를 통하여 추천하였다.

제직수련회는 해마다 계속되었다. 2001년 12월 9일 제직수련회에서는 양인석 목사가 “야고보서 연구”, 송운용 집사가 “교회 복지”, 안길권 집사(현재 장로)가 “제직 부서의 역할과 활동”으로 강의하였다. 2002년부터는 제직 헌신예배와 제직수련회가 결합되었다. 2002년 1월 13일에는 김양환 목사가 “악성감정, 악마성”으로 특강하였고, 2003년에는 1월 18일 송현상 목사가 “바람직한 청지기”, 2월 9일 이동민 목사가 “제직과 생활”로 강의하였다. 2005년 10월 2일에는 류인수 장로가 “신앙과 불신앙”, 양인석 목사가 “제가 제직입니다”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2006년 1월 8일에는 정복량 목사가 헌신예배에서 설교하고, 양인석 목사가 “예수님의 전도 대화법”을 강의하였다. 2007년의 강사는 백용술 목사, 2010년의 강사는 박종기 목사였다. 2011년 1월 9일의 제직 헌신예배 및 수련회는 가수 서유석 집사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 시기 재정 규모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0년 결산액 509,459,974원으로 시작하여 2004년도 가결산 515,000,000원, 2008 결산 688,933,000원, 2011년 결산 856,671,553원을 기록하였다.

3. 교회학교

1) 운영

이 시기 들어 교회학교 각 부서에 담당 교역자들이 배치되었다. 교회교육에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2001년 11월 25일 정책당회는 교육교역자들이 유치부·유년부, 소년부·중등부, 고등부·청년부로 2개 부서씩을 전담하도록 배치하기로 하였다. 이전까지는 부장과 교사들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교역자들이 윤번으로 설교하며 교육계획이나 교사교육 등에 참여하던 형태였다. 2002년 3월 3일 당회에 보고된 교역자 배치 결과를 보면, 유치부·유년부에 김주옥 전도사, 소년부·중등부에 문종남 전도사, 고등부·청년부에 심혜련 목사가 배치되었다. 교역자들이 각각의 부서를 담당하여 책임 목회를 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이후 점차 한 명의 교육교역자가 1개 부서를 담당하는 형태로 정착되었다.

■ 부서별 교역자 변동

- 유치부 : 김주옥 전도사(2001~2004년), 박금녀 전도사(2005~2020년 초)
- 유년부 : □ □ □ □ □ □ (2001~2003), (2004), □ □ □ □ □ □ (2005~2007)
안수), 김주옥 전도사(2008년), 지승한 전도사(2009년), 현성실 목사
(2010년), 김일 전도사(2011~2012년)
- 소년부 : 김주옥 전도사(2001년), 문종임 전도사(2002~2003년), 김주옥 전도사(2004~2005년), 남경호 전도사(2006~2009년), 문승현 전도사(2010~2012년 3월)
- 중등부 : 문종남 전도사(2002~2003년), 김정태 전도사(2004~2005년), 김연백 전도사(2006~2007년), 문승현 전도사(2008~2009년), 남경호 전도사(2010~2011년)
- 고등부 : 심혜련 목사(2002년), 장동현 전도사(2003~2004년), 김신 전도사(2005년),

김정태 전도사(2006년 초), 허연 목사(2006년 4.16~2007년 2.25), 최재룡 목사(2007년 3월~2010년), 김혁수 목사(2011~2012년 초)

이전 시기에 매년 2·5·9·12월 첫째 주일로 정례화되었던 교육위원회 모임이 2003년부터는 없어지고, 교역자들이 수시로 모여 협의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04년부터 연말에 교역자별 목회 활동 보고서를 당회에 제출하였다. 2005년부터는 교회 수첩에 교회학교 각 부서의 연간 계획을 수록하였다. 2006년부터는 매년 4월 정기제직회에 교회학교 부서별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매년 12월에 당회원들과 교역자들의 연석회의를 통해 보고와 평가 및 향후 방안 수립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였다. 교사교육은 교사대학, 교사 세미나, 교사 수련회 등의 이름으로 해마다 계속되었다. 2006년까지는 연말 혹은 연초에 신년도 교사들을 위한 교육의 시간을 마련하고, 봄 혹은 가을에 추가적인 교육의 장을 열었다. 2007년부터는 주로 봄과 가을에 교사대학을 개최하였다. 교사 헌신예배는 대개 교사주일(7월 둘째 주)에 맞추어 드렸다. 확인되는 이 시기의 교사대학은 다음과 같다.

■ 연도별 교사대학

- 2001년 9월 16일, 23일. 교사대학(양인석 목사, 이현구 목사, 안길권 집사)
- 2002년 4월 7일 양인석 목사 “이스라엘 역사”
4월 14일 박화경 교수(한일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11월 3일 구춘서 교수(한일장신대, 조직신학)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11월 10일 김주옥 전도사 “교사의 법칙”
- 2003년 11월 16일 차정식 교수(한일장신대, 신약학)
11월 30일 박진숙 목사
12월 28일 2004년 교사 전체 수련회
- 2004년 1월 28일 교사 수련회
9월 5일 교사 수련회

12월 19일 교사대학

- 2006년 1월 15일 안길권 집사 “변화하는 일반교육과 입시제도”,
양인석 목사 “교사의 사명”, “하나님 나라와 경건”
12월 17일 김도일 교수(장로회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 “성공적인 교회
교육의 열쇠”, “성공적인 자녀교육의 열쇠”
- 2007년 4월 1일 박화경 교수(한일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
11월 25일 교역자~교사 세미나(정읍 새힘수련원)
- 2008년 11월 23일 교사의 날
- 2009년 11월 1일 나진호 목사(동진교회)
12월 27일 신년교사 세미나
- 2010년 12월 26일 교사대학
- 2011년 3월 20일 양인석 목사 “이스라엘의 역사”
10월 23일 교사 세미나 및 위로회

교회학교를 둘러싼 교육 환경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째, 2004년에 교회학교 공간의 변화가 있었다. 우선 본당 1층의 당회장실과 유치부실(원구름반=어린이집 현관 들어가서 왼쪽의 큰 방) 사이 벽을 헐어 유치부실을 넓힘으로써 어린이들이 보다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중등부실과 고등부실로 나뉘어 있던 교육관 2층을 하나의 큰 홀로 만들어서 고등부는 오전 9시에 사용하고 중등부는 10시 50분부터 사용하도록 하였다. 2005년도부터는 이 공간을 소년부가 사용하고, 중등부와 고등부가 지하로 이동하였다.

둘째, 시청각 교육을 위한 빔프로젝터가 도입되었다. 2004년 11월 27일 정책당회의 결정에 따라, 2005년부터 소년부실과 중·고등부실에 빔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설치하고, 이동용 장비 1개를 추가로 갖추어 교회학교의 영상 시대가 시작되었다. 셋째, 2007년 성경 번역본의 변경도 중요한 변화였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개역성

경의 어려운 어휘와 어투에서 놓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에 따라 장학재단, 크리스천진학연구소,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해외어학연수원, 영어회화반 등 교회학교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프로그램들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교회학교 각 부서는 새로 생겨난 인재양성 선교 기구들과의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2) 활동들

2000년에 들어설 때 유치부(11시 모임)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의 모임 시간은 8시 30분이었다. 2001년 2월 21일부터 1부 예배시간이 9시로 변경됨에 따라 교회학교 모임 시간 역시 9시로 변경되었다. 2004년의 교회학교 공간 조정과 함께 고등부



유치부 어린이들(2009년)

만 9시 모임을 유지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모두 10시 50분으로 변경하여 이 시기 내내 유지하였다. 교회학교 모임 시간과 부모들의 예배시간을 맞춘 것인데, 그만큼 교회학교에서 교인 자녀들의 비중이 커졌음을 반영하는 변화였다.

■부서별 출석 추이의 변화(3년 간격, 연도별 중간 시기)

- 2002 : 유치 21~24, 유년 37~49, 소년 32~48, 중등 34~39, 고등 22~25
- 2005 : 유치 30~41, 유년 19~30, 소년 45~55, 중등 36~51, 고등 49~53

- 2008 : 유치 36~42, 유년 35~43, 소년 28~38, 중등 29~35, 고등 21~27
- 2011 : 유치 21~25, 유년 26~33, 소년 21~34, 중등 19~24, 고등 18~28

부서별 전담교역자 배치, 교육 환경 개선,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의 지원에 따라 일시적인 출석수 증가세를 보이다가 조금씩 숫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령기 인구의 급감 상황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교회학교의 활동은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21세기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예배-분반공부-특별활동’의 골격, 12월 마지막 주일 오후의 진급예배, 부활절과 성탄절 축하 행사를 통한 전체 공동체와의 참여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변화들도 있었다. 2001년까지 부서별 연 1회를 유지하던 교회학교 헌신예배는 2002~2005년 ‘아동부 연합헌신예배’, ‘중·고등부 연합헌신예배’로 축소되었다가 2006년 이후로는 없어졌다. 교회학교의 농촌교회 방문 활동은 점진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전 시기까지 ‘찬양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던 청소년들의 공연 행사



유년부 야외예배(2010년)



중·고등부 찬양드림 준비 모습(2003년)

는 ‘중·고등부 찬양드림’이라는 이름으로 7회를 더 진행한 후 중단되었다(2000년 8월 16일, 2001년 8월 25일, 2002년 8월 24일, 2003년 8월 23일, 2005년 8월 27일, 2006년 8월 26일, 2008년 12월 24일). 노회연합회와 관련한 활동은 2001년 노회 탈퇴로 인해 중단되었고, 노회 재가입 이후에도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노회 탈퇴 직전인 2000년도에는 아동부 호남대회에 참가하여 다수의 입상자를 배출한 바 있다(김가원 유년부 성경암송 금상, 백효나 소년부 그리기 은상, 김수아·최지혜·유혜진·강성주 소년부 중창 동상, 김수지 소년부 구연동화 동상).

이 시기 성경학교·수련회의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겨울 행사



중등부 겨울수련회(2003년)

의 경우, 아동부의 겨울성경학교는 이 시기의 초기까지만 실시되었고(2000, 2001, 2004), 중등부와 고등부는 거의 매해 겨울수련회를 가졌다. 둘째, 각 부서별 행사 외에도 의미 있는 연합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02년 겨울의 중·고·청 연합수련회, 2002년 유·소년부 여름성경학교에 농촌 자매교회인 금지교회가 참가, 중·고등부 수련회에 6개의 농촌 자매교회 참가(완주 금당, 완주 대승, 군산 광원, 남원 방동, 남원 방산, 진안 금양), 2005년 여름 전교인 가족수련회, 2007년 여름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2009년 겨울 고등부·대학부 연합수련회, 2010년 교회학교 전체 연합수련회 등이 있다.

셋째, 참여 활동 중심의 성경학교·수련회들이 시도되었다. 특히 유치부는 2007년부터 유치부의 갯벌 체험학습과 도예 체험학습 등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체험 활동 중심의 성경학교를 시도하였다. 유년부와 소년부 역시 2007년부터 ‘찾아가는 성경학교’, ‘주말학교’ 등의 이름으로 정형화된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탈피한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중등부와 고등부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겨울방학을 이용한 ‘리더십 컨퍼런스’, ‘비전캠프’, 청소년교육문화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탐방 프로그램(2008년 2월 고등부 양화진 선교사 묘역, 2009년 중등부 평택 성막센터 등), 시험이 끝난 직후의 시간을 이용한 MT 프로그램 등을 시도하였다.



교회학교 연합수련회(2010년)



고등부 겨울수련회(2010년)

■ 연도별 성경학교·수련회

• 2000년

- 2월 24~26일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 2월 25~27일 아동부 겨울성경학교
- 7월 21~23일 유치부, 유년부 여름성경학교(본교회당)
- 7월 24~26일 소년부 성경학교(장수변암 충성교회)
- 7월 27~29일 중·고등부 여름수련회(장수 천천 신기교회)

• 2001년

- 2월 19~21일 중등부 겨울수련회(여산 은평교회 이상일 목사)
- 2월 26~28일 고등부 겨울수련회(이영아 사모)
- 2월 25일 아동부 겨울수련회
- 7월 22~23일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본교회당)
- 7월 24~25일 중·고등부 여름수련회(지리산 기도원)
- 7월 25~27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본교회당)

• 2002년

- 1월 20~22일 중·고·청 연합수련회
- 7월 22~24일 유·소년부 여름성경학교(금지교회 참여)
- 7월 25~26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어린이집 아이들 참여)
- 7월 25~27일 중·고등부 수련회(농촌 자매결연교회와 연합)

• 2003년

- 1월 16~18일 중·고등부 수련회
- 7월 20~22일 유치·유년·소년부 여름성경학교(본교회당)
- 7월 24~26일 중·고등부 여름수련회(화산 종리교회)

• 2004년

- 2월 19~23일 아동부·중·고등부 겨울수련회
- 7월 25~27일 중등부 여름수련회 “우리는 하나”(화산 종리교회)

7월 26~28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민들레 홀씨”

7월 30일~8월 2일 유·소년부 여름성경학교 : 고창 갯벌 체험 등

7월 30일~8월 1일 고등부 여름수련회 “구원의 확신” (신안 상태도)

• 2005년

2월 17~19일 고등부 겨울수련회

2월 20~21일 소년부 겨울수련회

7월 27~29일 여름수련회 전교인 연합수련회

• 2006년

2월 22~24일 고등부 겨울수련회

2월 25~26일 소년부 겨울수련회

7월 15~17일 유치·유년·소년부 성경학교

7월 15~17일 고등부 여름수련회(예빛수련원)

7월 31일~8월 2일 중등부 여름수련회(수안보 이대 고사리수련관)

• 2007년

1월 7~9일 고등부 겨울수련회(무주리조트)

1월 28~29일 중등부 겨울수련회(군산해양수련원)

7월 7일 유치부 여름 주말학교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갯벌 체험학습’
(만돌 갯벌 체험학습장)

7월 14일 소년부 여름 주말학교

7월 30일~8월 1일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무주군 무풍면 증산교회)

8월 4일 유년부 자연학습(청산농원)

8월 26일 유치부 부모님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익산 팔봉 도예 체험학습장)

8월 25일~9월 15일 매주 토요일 유·소년부 찾아가는 여름학교(중앙하이츠 놀이터)

• 2008년

2월 28일~3월 1일 고등부 겨울수련회(교회, 양화진 선교사 묘역)

7월 12일 유년부 여름 주말학교 “재미있는 성경 말씀” (유년부실)

7월 25~26일 중등부 여름수련회(진안 예수사랑수양관)

7월 25~26일 고등부 여름수련회(진안 온생명살림학교)

7월 26~27일 소년부 여름성경학교(소년부실)

8월 10일 유년부 주말학교(청산농원)

8월 23~24일 유치부 체험학교(만돌 갯벌 체험장, 팔봉 도예체험장)

10월 26일 유년부 3차 주말학교

• 2009년

1월 9~10일 고등부·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부안 성전 임해수련원)

2월 20~21일 중등부 비전캠프(본교회당)

2월 26~28일 고등부·대학부 연합수련회(정읍 새힘수련원)

7월 19, 25~26일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7월 25~26일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7월 26~28일 중등부 여름수련회

7월 31~8월 2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 2010년

1월 22~23일 고등부 겨울수련회

7월 23~24일 교회학교 연합수련회(장수 번암 우석대연수원)

• 2011년

2월 18~19일 고등부 겨울수련회

7월 21~23일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7월 23~24일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7월 23~25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7월 28~30일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그밖에도 교회학교 각 부서는 이 시기에 몇 가지의 새로운 시도들에 나섰다. 우선 유치부와 유년부의 경우, 성경학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함께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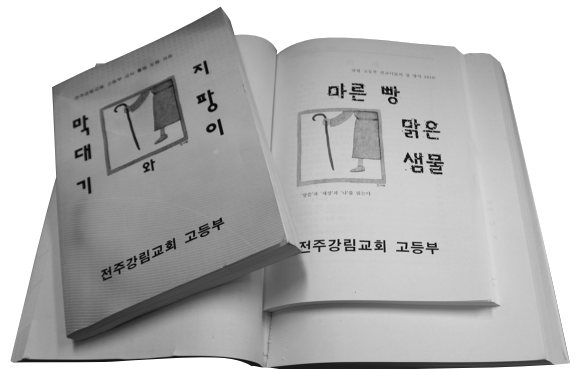


소년부 메빅 예배(2005년)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형 프로그램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소년부 역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증가시키는 가운데 2005~2006년에는 ‘MEBIG’과 ‘WOW-Q’를 결합한 어린이 참여형 예배를 시도하였다. MEBIG은 예배와 게임을 결합한 프로그램이고, WOW-Q는 월별 주제에 따른 요절 찬트, 주제 찬양과 율동, 동화, 역할극 등을 결합한 어린이 문화예배 프로그램이었다. 중등부 역시

각종 현장 탐방과 봉사 활동 등 참여성과 활동성을 강화하면서 자체 커리큘럼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고등부의 경우 적극적인 전도와 심방 활동을 토대로 교회 인근의 생명과학고 안에 전주강림교회 학생모임인 ‘전강회’(2004~2007년) 활동을 만들어냈다. 2007년부터는 분반



고등부에서 개발한 교재 「마른 빵, 맑은 샘물」

공부를 예배순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말씀나눔형 예배를 시작하였다. 그에 따른 자체 교재 「마른 빵, 맑은 샘물」을 마가복음 2년 과정과 교리공부 1년 과정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교사용 교재 「막대기와 지팡이」도 함께 펴냈다. 2008~2010년에는 학교별 반편성, 학교의 개학과 방학에 맞춘 선교 파송·귀환예배,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등을 통해 ‘가정-학교-교회’ 생활의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3) 연도별 조직 현황

■ 교육위원회

• 2000년

위원장 : 안창엽

위원 : 원지현 이정석 김기범 이희성 안송엽 황경주 안길권 김주옥 홍철원
온성진

• 2001년

위원장 : 류시영

기획위원 : 안송엽 황경주 안길권 김세영 원도연

실행위원 : 원지현 이정석 김기범 이희성 안송엽 황경주 김영선(51) 동선옥
서경자 홍철원 김주옥

• 2002년

위원장 : 양인석, 부위원장 : 류시영

실행위원 : 이해정 강형희 이연우 안송엽 이정석 김구태 김주옥 문종남 심해련

• 2003년

위원장 : 양인석, 부위원장 : 류시영

실행위원 : 이해정 강형희 이연우 안송엽 이정석 김구태 김주옥 문종남 심해련

• 2004년

위원장 : 양인석, 부위원장 : 강형희

실행위원 : 원지현 황경주 김구태 김세영 안송엽 이정석 김주옥 장동현 박금녀
김정태

• 2005년

위원장 : 양인석, 부위원장 : 김주옥

실행위원 : 원지현 이연우 김구태 김세영 안송엽 장지석 이정석 김주옥 박금녀
김정태 김신 구주희

• 2006년

위원장 : 양인석, 부위원장 : 김주옥

실행위원 : 이해정 이연우 이정석 안송엽 황경주 장지석 김구태 김정태 박금녀
구주희 남경호 김연백

• 2007년

위원장 : 양인석, 부위원장 : 김주옥

실행위원 : 이해정 오봉애 이연우 안송엽 황경주 김종희 김구태 김정태 박금녀
구주희 남경호 김연백 허연

• 2008년

위원장 : 양인석

실행위원 : 신송춘 김종희 이연우 김구태 안길권 안송엽 황경주 박금녀 김주옥
남경호 문승현 최재룡 문화규

• 2009년

위원장 : 양인석

실행위원 : 신송춘 김종희 안진상 안송엽 안길권 이병호 반징수 박금녀 지승한
남경호 문승현 최재룡 문화규

• 2010년

위원장 : 양인석

실행위원 : 김지연 김영선L 안진상 김종희 이감철 이병호 원도연 박금녀

현성실 문승현 남경호 최재룡 문화규

• 2011년

위원장 : 양인석

실행위원 : 김정태 신송춘 김영선L 안진상 김종희 박수자 이감철 이병호

박금녀 문승현 남경호 김일 김혁수 문화규 크리스천진학연구소장

청소년교육문화센터장

■ 유치부

• 2000년

부장 : 원지현, 총무 : 신송춘

교사 : 박상미 안진경 양은영 양혜영 유별 이혜정 임정현

• 2001년

교역자 : 김주옥, 부장 : 원지현, 총무 : 신송춘

교사 : 김연숙 안선아 안진경 양은영 양혜영 이혜정 장성화

• 2002년

교역자 : 김주옥, 부장 : 이혜정, 총무 : 안진경

교사 : 김연숙 김현경 신송춘 안선아 안진희 양은영 양혜영 원지현 조은정

최화영

• 2003년

교역자 : 김주옥, 부장 : 이혜정, 총무 : 안진경

교사 : 강경희 신송춘 안진희 양은영 양혜영 원지현 이종향 조은정 최화영

• 2004년

교역자 : 김주옥, 부장 : 원지현, 총무 : 신송춘

교사 : 강경희 김효정 안진희 양은영 양혜영 임영옥 장성화 진영은

• 2005년

교역자 : 박금녀, 부장 : 원지현

교사 : 김옥자 김정선 김효정 신송춘 안진경 양혜영 유별 이해정 정은지

• 2006년

교역자 : 박금녀, 부장 : 이해정

교사 : 강경희 김옥자 김효정 백기완 신송춘 안진경 유별 전을자 진영은

• 2007년

교역자 : 박금녀, 부장 : 이해정, 총무 : 유별

교사 : 강경희 고아라 국승란 김옥자 신송춘 안수경 안진경 은하빈 진영은

• 2008년

교역자 : 박금녀, 부장 : 신송춘, 총무 : 유별

교사 : 강경희 국승란 김옥자 김은혜 김효정 문주란 박은혜 은하빈 이해정
이희승 주선화 진영은

• 2009년

교역자 : 박금녀, 부장 : 신송춘

교사 : 강경희 김지연 김효정 문주란 박은혜 서동일 은하빈 이해정 주선화
최지혜

• 2010년

교역자 : 박금녀, 부장 : 김지연

교사 : 강경희 문주란 박은혜 신송춘 유지은 유혜진 주선화 최종명 최지혜

• 2011년

교역자 : 박금녀, 부장 : 신송춘

교사 : 강을 김리향 문주란 박은혜 유지은 유혜진 이슬 주선화 최지혜

■ 유년부

• 2000년

부장 : 이정석, 총무 : 강형희

교사 : 김완진 김지연 박상미 안선아 안효종 오봉애 이지향

• 2001년

교역자 : 김주옥, 부장 : 이정석, 총무 : 안진상

교사 : 김기훈 김명자 김신정 김태훈 김호경 김효정 박상미 배인순 안효종
오봉애 정지원 최복순

• 2002년

교역자 : 김주옥, 부장 : 강형희, 총무 : 안진상

교사 : 김명자 김화진 배인순 이대로 전현승 정승희 조민희 최복순 황지원

• 2003년

교역자 : 김주옥, 부장 : 강형희, 총무 : 안진상

교사 : 김선례 김성호 김호경 배인순 안춘남 오봉애 이대로 임신혜 전현승
정승희 최복순 황지원

• 2004년

교역자 : □ , 부장 : 황경주, 총무 : 안진상

교사 : 김선례 김연숙 박효정 안춘남 오봉애 이대로 전현승

• 2005년

교역자 : 구주희, 부장 : 이연우

교사 : 오봉애 김연숙 안진상 안춘남 문주란 황지원 박효정 유영현 김영표

• 2006년

교역자 : 구주희, 부장 : 이연우

교사 : 길경현 김선례 문주란 박효정 소활란 안진상 안춘남 오봉애 유성현
황지원

• 2007년

교역자 : 구주희, 부장 : 오봉애, 총무 : 안진상

교사 : 길경현 김선례 박효정 소활란 안춘남 안태경 이현경 전현승 조은정
황지원

• 2008년

교역자 : 김주옥, 부장 : 김종희, 총무 : 안진상

교사 : 길경현 김명자 박미영 박보영 안춘남 안태경 이창석 이현경 정명숙 조
은정 최진혁

• 2009년

교역자 : 지승한, 부장 : 김종희

교사 : 강성희 김수아 김옥희 송상훈 오봉애 유지혜 이희승 정지원

• 2010년

교역자 : 현성실, 부장 : 김영선L

교사 : 강성희 국승란 김대수 박미영 송상훈 송재홍 안춘남 오봉애 유지혜
이영숙 이희승 정지원 조일수

• 2011년

교역자 : 김일, 부장 : 김영선L

교사 : 강성희 국승란 김수아 김지은 박미영 송상훈 송재홍 안춘남 유지혜
이영숙 이희승 정지원 조일수

■ 소년부

• 2000년

부장 : 김기범, 총무 : 박미애

교사 : 김영산 김영애 김현숙 김혜영 나석 안지영 안진상 유시영 장지혜
정은지

• 2001년

교역자 : 김주옥, 부장 : 이연우, 총무 : 강형희

교사 : 강신정 김영애 김지연 김현숙 김혜영 박미애 안지영 유지혜 장재청
장지혜 정은지

• 2002년

교역자 : 문종임, 부장 : 이연우, 총무 : 박미애

교사 : 김신정 김영례 김지연 김현숙 나석 박재현 유지혜 이선영 전가연
정성임

• 2003년

교역자 : 문종임, 부장 : 이연우, 총무 : 박미애

교사 : 김미정 김민성 김신정 김영례 김지연 김현숙 유지혜 이미경 이선영
이진화 전가연 전수완 전화선 정성임

• 2004년

교역자 : 김주옥, 부장 : 김구태, 총무 : 박미애

교사 : 김명자 김연백 김의현 오양임 유시영 이미경 정숙희 최진혁 한은숙

• 2005년

교역자 : 김주옥, 부장 : 김구태

교사 : 김연백 김태훈 김현숙 김화진 박미애 오양임 유지은 이성국 전가연
정대혁 한은숙

• 2006년

교역자 : 남경호, 부장 : 이정석

교사 : 김미영 김화진 박미애 안미정 양민숙 유지은 이성국 정대혁 최종명
한은숙

• 2007년

교역자 : 남경호, 부장 : 이연우, 총무 : 박미애

교사 : 한은숙 김현진 김선미 김대수 유지은 김현숙 유시영 안미정 이자향

이대훈

• 2008년

교역자: 남경호, 부장: 이연우, 총무: 김현진

교사: 권인선 김대수 김주찬 김현숙 소활란 신진아 안미정 양민숙 유시영

유지은 이대훈 한은숙

• 2009년

교역자: 남경호, 부장: 안진상

교사: 권인선 신진아 양민숙 이영현 이진화 전가연 조은정 최정인 황경주

• 2010년

교역자: 문승현, 부장: 안진상

교사: 강성주 권인선 김성호 김현진 소활란 양혜영 조선자 황경주

• 2011년

교역자: 문승현, 부장: 안진상

교사: 길경현 김현진 안미정 양혜영 이성국 임두례 조선자 조은정

■ 중등부

• 2000년

부장: 이희성, 총무: 이민교

교사: 김명균 김세영 이미재 이소영 이정옥 이현옥 최규익

회장 최병옥, 부회장 박수원, 총무 박상준, 서기 박효정 신나리,

회계 정대혁 정효인

• 2001년

부장: 이희성, 총무: 이민교

교사: 김세영 박상미 윤성란 이미재 이정옥 이현옥

회장 신민정, 부회장 김대수, 총무 백수현, 서기 서효정, 회계 유지은

• 2002년

교역자 : 문종님, 부장 : 안송엽, 총무 : 이감철

교사 : 이영숙 전순례 이미재 안효선 신정순 권호진 안중현 이남훈 장현욱

강경희 안수경

회장 김셋별, 부회장 최종명, 총무 방혜준, 서기 박미영, 회계 안성현

• 2003년

교역자 : 문종님, 부장 : 안송엽, 총무 : 이감철

교사 : 권호진 김기운 김세영 라석 신정순 안민국 안효선 안효열 이남훈

이미재 전순례

회장 이경우, 부회장 유혜진, 총무 김수아, 서기 박은혜, 회계 이리시

• 2004년

교역자 : 김정태, 부장 : 김세영, 총무 : 신정순

교사 : 김경남 안효선 안효종 유별 이미재 장태성 정명숙 한상규

회장 강성주, 부회장 안강모, 총무 최지혜, 서기 유송희, 회계 최셋별

• 2005년

교역자 : 김정태, 부장 : 김세영

교사 : 김경남 송선용 신상철 안중현 안효종 오경현 이자향 임명옥 정명숙

회장 방재혁, 부회장 강미선, 총무 배인영, 서기 김고은, 회계 우충언

• 2006년

교역자 : 김정태, 부장 : 안송엽

교사 : 강신정 김명자 반징수 송선용 안수경 양혜영 유지혜 이미재 이종성

임명옥 정명숙 하승완

회장 황인혜, 부회장 김영선, 총무 이승철

• 2007년

교역자 : 김연백, 부장 : 안송엽, 총무 : 이병호

교사 : 김명자 반징수 송선용 안효종 양혜영 원지현 유지혜 이미재 장현욱

정명숙

회장 양민천, 부회장 안인경, 총무 원석현, 서기 송지원, 회계 구진희

• 2008년

교역자 : 문승현, 부장 : 김구태, 총무 : 이기형

교사 : 송선용 양혜영 원지현 유지혜 이대로 이미재 임명옥 장성화 장현욱
조선자 허명순

회장 김강석, 부회장 황보미, 총무 박성빈, 서기 김가빈, 회계 유혜령

• 2009년

교역자 : 문승현, 부장 : 안송엽

교사 : 반징수 서기원 송선용 양혜영 이기형 임명옥 장현욱 정승희 조선자
허명순

회장 성진실, 부회장 김은수, 총무 서한결, 서기 양인창, 회계 이홍찬 이효진

• 2010년

교역자 : 남경호, 부장 : 김종희

교사 : 박종권 반징수 이대로 이영현 이진화 임명옥 허명순

회장 임도움, 부회장 마재진, 총무 남다솔, 서기 김가영, 회계 김수빈

• 2011년

교역자 : 남경호, 부장 : 김종희

교사 : 김선미 김신정 박종권 박지현 백미숙 서기원 이대로 이영현 임명옥
허명순

■ 고등부

• 2000년

부장 : 안송엽, 총무 : 원도연

교사 : 고도욱 노운숙 문경숙 신윤희 안중현 유루미 이현경 장동현 한은숙

회장 이남훈, 부회장 이선영, 총무 장현욱, 서기 전영선, 회계 김성호

• 2001년

부장 : 안송엽, 총무 : 원도연

교사 : 김신현 노윤숙 문경숙 문귀록 신윤희 안중현 장동현 한은숙

회장 김민성A, 부회장 김미정, 총무 허은진, 서기 김기현 박효정,

회계 김민성B, 서어진

• 2002년

교역자 : 심혜련, 부장 : 이정석, 총무 : 원도연

교사 : 고도욱 김신현 오광중 장동현 한은숙

회장 박수원, 부회장 정대혁, 총무 김바람, 서기 박효정, 회계 박상준

• 2003년

교역자 : 장동현, 부장 : 이정석, 총무 : 고도욱

교사 : 반징수 오광중 윤가원 장현욱 한은숙

회장 김대수, 부회장 유지은, 총무 김호성, 서기 안미정, 회계 이대훈

• 2004년

교역자 : 장동현, 부장 : 안송엽

교사 : 박수자 반징수 안태경 양미경 윤가원 이남훈 이희승 조민희

회장 최종명, 부회장 박미영, 총무 김샛별, 서기 정다움 오은진, 회계 이성환

안성현

• 2005년

교역자 : 김신, 부장 : 안송엽

교사 : 강신정 박수자 박효정 반징수 서기원 안태경 양미경 이강원 이병호

장성화 전승진

회장 김종혁, 부회장 성한나, 총무 유혜진, 서기 박은혜, 회계 강지은

• 2006년

교역자 : 김정태 허연, 부장 : 황경주

교사 : 김성호 김연숙 김태훈 박수자 서기원 안태경 이병호 장성화 차승아

회장 서동일, 부회장 최지혜, 총무 이영우, 서기 정관우, 회계 김중석

• 2007년

교역자: 허연 최재룡, 부장: 황경주, 총무: 이감철

교사: 김민성 김연숙 김정은 김태훈 문승현 박수자 서기원 장태성 전광호

회장 박의인, 부회장 전형준, 총무 이신영, 서기 배인영, 회계 강미선

• 2008년

교역자: 최재룡, 부장: 안길권, 총무: 이감철

교사: 김민성 김연숙 김태훈 김현식 박수자 선호영 안중현 안진경 안효선

유혜진 장태성

회장 성은실, 총무 원세현, 회계 김고은, 서기 황인혜

• 2009년

교역자: 최재룡, 부장: 안길권, 총무: 안효선

교사: 길경현 김태훈 박수자 안진경 안효선 오광중 이감철 이남훈

회장 안인경, 총무 정온유, 회계 양민천, 서기 원석현

• 2010년

교역자: 최재룡, 부장: 이감철, 총무: 안효선

교사: 김태훈 박수자 송선용 안진경 안효선 이남훈 장현욱

회장 김환혜, 총무 김강석, 회계 최재호, 서기 박서란

• 2011년

교역자: 김혁수, 부장: 박수자, 총무: 정승희

교사: 권호진 송선용 안진경 안효선 이남훈 장현욱 전현승 정승희

4. 자치회

1) 청년회

(1) 운영

1997년부터 1·2청년부가 주일 오후 2시에 함께 모여 ‘주일 3부 예배’로 예배하고 있었다. 청년 중심의 주일 3부 예배는 2001년 7월 22일 예배를 끝으로 폐하고, 8월 4일부터 토요일 오후 4시의 ‘청년성서연구’ 모임으로 청년회 활동의 축이 변경되었다. 청년회 활동의 틀을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인 후, 7월 15일의 최종 공청회와 투표를 통해 내려진 결론이었다. 이어 7월 29일에는 1·2청년부의 조직 통합에 관한 임시총회를 열어 통합을 결의하고 2001년 8월 26일 통합 총회를 열어 조직 통합을 완결하였다. 이때부터 2005년까지 하나의 청년회로 활동하였다. 2003년까지는 성경공부 형식의 모임으로 활동하였고, 2004년부터는 토요일 오후 5시에 모여 예배하고 6시부터 성경공부모임을 갖기 시작하였다. 2005년 11월 3일 정책당회에서 ‘대학부’와 ‘청년부’를 분리키로 함에 따라 2006년부터 다시 두 개의 청년회로 활동하게 되었다. 첫해인 2006년에는 종전과 같이 토요일 오후 5시에 대학부·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각기 흩어져서 성경공부를 하였다. 이 시기에 자체적인 주보를 발간하였다.

2007~2008년에는 대학부와 청년부의 모임을 분리하여 대학부는 토요일 오후에 예배와 성경공부 모임으로, 청년부는 토요일 저녁 시간에 성경공부 모임으로 각각 활동의 축을 잡았다. 2009년에는 다시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청년예배를 개설하였다. 지하 예배실에서 대학부와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고, 각기 흩어져 성경공부와 다양한 활동을 갖는 것으로 청년 활동의 틀이 변경되었다. 활동 인원을 보면, 대학부와 청년부가 따로 활동하던 2007~2008년 대학부 모임 참석이 20~33명 선이었고, 청년부는 8~15명 선이었다. 대학부와 청년부가 함께 주일 청년예배를 중심으로 활동

하던 2009년 이후는, 한국교회 전반에서 청년들의 교회 활동 이탈이 심해지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부 14~28명, 청년부 7~16명 선의 활동 인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시기부터 청년부에 담당교역자가 배치되었다. 하나의 청년회로 활동하던 시기에는 심혜련 목사(2002~2003년), 김주옥 전도사(2004~2005년)가 청년부를 담당하였다. 대학부와 청년부로 나뉜 2006년부터 청년부 담당교역자는 김주옥 전도사(2006~2007년), 문화규 목사(2008~2011년)였다. 대학부는 김정태 전도사(2006~2007년), 최재룡 목사(2008~2010년), 문화규 목사(2011년)가 담당하였다.

(2) 활동

청년회의 연간 주요 활동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청년회 내부적인 활동들이다. 기본적인 예배와 성경공부 이외에도 해맞이 등반, 신입생 환영회, 야유회(봄, 가을), 체육대회, 사경회, 겨울과 여름의 수련회, 월례회와 정기총회 등이 중요한 골격을 이루었다. 둘째로, 전체 교회공동체에 참여하는 활동들이 있었다. 창립기념주일의 기관별 찬양대회, 1월의 신년축복새벽기도회와 여름의 기관별 헌신새벽기도회, 금요심야기도회, 12월 마지막 날의 기관별 웃놀이 대회, 주일



청년회의 해맞이(2002년)



청년문화제(2006년)

점심 설거지 분단, 농촌 자매교회 방문 활동 등을 통해 전체 교회공동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런가 하면 5월 청년주일의 헌신예배와 성년식, 청년문화제 등 청년 행사를 전교회적인 행사로 진행하고 각종 교회 행사들을 주관하는 등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교회 전체의 활동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셋째, 교회 내 다른 기관들과의 교류 활동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청년회가 둘로 나뉘어 활동하던 시기의 상호 친목은 물론, 인접 부서인 교회학교 고등부와 함께 체육대회를 하거나 고3 격려회 등을 통해 결속을 다졌다. 남선교회와도 친목 등반, 친선 축구, 체육대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교류하였다. 넷째, 대외적인 활동들이 있었다. 2001년 1월에는 폐품을 수집하여 노숙자 쉼터 자활 사업을 지원하였고, 2002년 5월 26일에는 청년문화제의 일환으로 일일찻집을 열어 불우이웃돕기에 나서기도 하였다. 2006년 6월 24~30일에는 대학부 학생들이 필리핀 레이테 산사태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2008년부터는 ‘아름다운 노인병원’을 정기적으로 찾아 봉사하였다.

한편, 2000년에는 본 교회 청년인 오승호가 장청 전국 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2001년에는 2월 23일 전주전성교회에서 열린 EYCK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전국적인 기독교 청년 연합 활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2001년 전북노회로부터의 행정적 탈퇴 이후 시찰 연합회 및 노회연합회 활동의 참여가 중단되면서 장청과 에큐메니컬운동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가 사그라들었다. 여기에는 장청 운동을 비롯

한 에큐메니컬 청년 운동 자체가 급격히 약화되고 사실상 소멸 단계로 들어선 영향도 작용하였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2003년 6월 29일에는 장청 전국연합회 헌신예배를 본교회당에서 드리기도 하였다.

1995년 청년주일(5월 21일)에 처음 등장한 성년식은 청년주일 행사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정착되었다. 주일예배 광고 시간 앞에 행해지던 성년식이 2006년부터는 오후의 ‘청년주일예배’와 결합하면서 ‘호명-권면-기도-꽃다발 증정 및 축하’의 예식순서가 정립되었다. 2007년부터는 성년이 되는 청년들의 부모님과 가



청년회(2000년)



청년주일 성년식(2009년)

족들이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행사로 확대되었다.

1994년 시작된 청년문화제는 2000년 10월 4~5일 “우리가 하나 될 때”라는 주제로 7회 행사를 열었다. 8회는 2002년 5월의 청년주일 행사와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들로 꾸러졌다. 청년회 주관 복음성가대회(5.5), 청년주일 헌신예배 및 성년식·연극공연·특강·한 생명 살리기 헌혈 행사(5.19), 불우이웃돕기 일일 찻집(5.26) 등이었다. 이후 청년문화제는 2011년 17회 행사까지 매년 거르지 않고 정례적으로 시행되었다. 2002~2005년까지는 청년주일을 기해서 5월에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였고, 2006년부터는 가을에 개최하였다. “청년!! 일어나라!!”는 주제로 열린 2003년의 9회 행사 때 수화찬양, 뮤지컬 “보내소서”, 전체 합창을 공연하였는데, 이때부터 연극, 찬양 등 공연이 청년문화제의 중심요소로 자리 잡고 몇 가지의 변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6년에는 기독교화 토론회가 들어갔고, 2007년에는 문학의 밤 행사가 들어갔으며, 2009년에는 시화전과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리기 4인 4색”(11월 5~8일, 양인석·김정태·문화규·최재룡)이라는 주제의 사경회를 결합하였다. 2010년에는 청년문화제 공연을 대학부·청년부 자매교회인 임실 진중제일교회에서 군인 장병들을 초대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3) 연도별 조직 현황

• 2000년

1청년회 부장 : 황경주

회장 황의찬, 부회장 신송춘, 총무 양은영, 서기 정인숙, 회계 김혜영

2청년회 부장 : 안길권

회장 문귀록, 부회장 장지혜, 총무 하승완, 서기 전승혜, 회계 국영란

• 2001년

1청년회 부장 : 황경주

회장 고도옥, 부회장 양혜영, 총무 박정주, 서기 문귀록, 회계 박상미A

2청년회 부장 : 김영선(51)

회장 안효중, 부회장 안중현, 총무 김신현, 서기 한규남, 회계 임신혜

• 2002년

교역자 : 심혜련, 부장 : 김구태

회장 김상민, 부회장 전가연 하승완, 회계 양개화, 총무 신정순, 서기 김신정

• 2003년

교역자 : 심혜련, 부장 : 김구태

회장 하승완, 부회장 안진경 안수경, 총무 조은정, 회계 양개화, 서기 전현승

• 2004년

교역자 : 김주옥, 부장 : 이정석

회장 하승완, 부회장 안효열 전화선, 총무 이종향, 회계 양은영, 서기 이선영

• 2005년

대학부 교역자 : 김주옥, 부장 : 장지석

회장 황지원

청년부 교역자 : 김주옥, 부장 : 이정석

회장 이세영, 부회장 양혜영, 총무 안춘남, 회계 김현중, 서기 김효정

• 2006년

대학부 교역자 : 김정태, 부장 : 장지석

회장 선호영, 부회장 김성호, 총무 백기완, 회계 강경희, 서기 차승아

청년부 교역자 : 김주옥, 부장 : 김구태

회장 정인숙, 부회장 안태경, 총무 김선례, 회계 김종택, 서기 윤자경

• 2007년

대학부 교역자 : 김정태, 부장 : 김종희

회장 장현욱, 부회장 전현승, 총무 김대수, 회계 안미정, 서기 고아라A

청년부 교역자 : 김주옥, 부장 : 김구태

회장 양혜영, 부회장 이성국, 총무 김선례, 서기 유지혜, 회계 안태경

• 2008년

대학부 교역자 : 최재룡, 부장 : 안송엽

회장 전현승, 부회장 안미정, 총무 유지은, 회계 장현욱, 서기 이현경

청년부 교역자 : 문화규, 부장 : 황경주

회장 하승완, 부회장 정승희

• 2009년

대학부 교역자 : 최재룡, 부장 : 이병호

회장 유영현, 부회장 이대로, 총무 최정인, 회계 박은혜, 서기 신진아

청년부 교역자 : 문화규, 부장 : 반징수

회장 전승진, 부회장 최진혁, 총무 김태훈, 서기 이성국, 회계 안미정

• 2010년

대학부 교역자 : 최재룡, 부장 : 이병호

회장 김민성, 부회장 박은혜, 총무 강성주, 회계 최종명, 서기 최지혜

청년부 교역자 : 문화규, 부장 : 원도연

회장 김태훈, 부회장 정승희, 총무 전현승, 서기 이대로, 회계 이안나

• 2011년

대학부 교역자 : 문화규, 부장 : 이감철

회장 강성주, 부회장 최지혜, 총무 강미선, 서기 이슬, 회계 배인영

청년부 교역자 : 문화규, 부장 : 이병호

회장 전현승, 총무 이대로, 서기 김은아, 회계 장현욱

2)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1) 조직의 변천

이 시기 들어 자치기관들의 구성방식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모세 한나회 조직이 생겨났다. 2001년 12월 26일 당회의 결의에 따라 12월 30일 60세 이상 남성 교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모세선교회’ 조직 공고가 있었다. 또한 2002년 11월 24일 정책당회는 65세 이상 여성 교인들을 ‘한나선교회’로 조직하기로 함으로써, 2003~2004년에는 모세선교회와 한나선교회로 활동하였다. 2004년 11월 27일 정책당회는 다시 모세선교회와 한나선교회를 통합하여 ‘모세한나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이에 따라 2005~2009년에는 모세한나회로 활동하였다. 이때 회원 기준은 1940년 이전 출생한 남녀 교인들이었고, 그 기준은 2011년까지 유지되었다. 2010~2011년에는 그 명칭을 ‘모세학교’로 변경하고, 경로선교대학에 참여하였다. 2012년부터는 다시 2011년 11월 27일 정책당회의 결의에 따라, 각각의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로 분리하였다.

2003년 1월 19일에는 ‘예제선교회’가 이전의 ‘부부선교회’를 개명하면서 등장하였다. 젊은 부부들로 구성하였던 것에서, 홀 신앙 가정을 포함하는 조직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회원 기준선이 2004년에는 남성 1966년 이후 출생, 여성 1969년 이후 출생이었다가, 2005년에는 남녀 모두 1970년 이후 출생자로 변경되었다. 2006~2009년에는 1971년 이후 출생자로 유지되다가, 2010년부터 1980년 이후 출생자로 변경되었다.

모세한나회와 예제선교회의 이러한 변동에 따라, 다른 남·녀 자치기관들의 구성도 조금씩 바뀌었다. 남선교회의 경우, 2000~2004년에는 2개 남선교회로(2004년 기준으로 1945~1954년생, 1955~1966년생), 2005~2006년에는 3개 남선교회로(1941~1949년생, 1950~1959년생, 1960~1969년생), 2007~2009년에는 4개 남선교회로(1941~1948년생, 1949~1955년생, 1956~1961년생, 1962~1970년생), 2010~2011년에는 5개 남선교회로(1941~1949년생, 1950~1956년생, 1957~1963년생, 1964~1970년생, 1971~1979년생) 분화하였다.

여전도회의 경우, 2000~2002년에는 6개 여전도회, 2003~2006년에는 5개 여전도회로(1940~1947년생, 1948~1953년생, 1954~1958년생, 1959~1963년생, 1964~1968년생으로 시작하여 1년씩 진급하는 방식) 활동하였다. 2007년부터는 여‘전도회’를 여‘선교회’로 바꾸고 2009년까지 7개 여선교회로(1941~1946년생, 1947~1951년생, 1952~1954년생, 1955~1958년생, 1959~1962년생, 1963~1965년생, 1966~1971년생) 그리고 2010~2011년에는 8개 여선교회로(1941~1947년생, 1948~1951년생, 1952~1954년생, 1955~1957년생, 1958~1962년생, 1963~1966년생, 1967~1972년생, 1973~1979년생) 활동하였다. 한편, 권사회가 이 시기에 하나의 자치기구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2) 활동

활동의 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3·6·8·11월 첫째 주에 모이던 기관장 회의가 교회 수첩 상으로는 2002년까지 유지되고 2003년부터 없어졌다. 기관별 정기총회는 2005년 이후 11월 말로 완전히 정착되었고, 월례회의 경우 2003년부터 매월



남·녀선교회 꽃동네 방문(2002년)

셋째 주로 정착되었다가 2009년부터 넷째 주로 변경되었다. 자치기관들의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헌신예배의 경우, 2001년까지는 기관별로 연 1회의 헌신예배가 있었다. 그러나 2002~2004년에는 몇 개 기관이 함께 연합하여 헌신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2002년 : 남선교회 연합, 1~6여 연합. 2003년 : 남선교회 연합, 1~3여 연합, 한나·4~6여 연합. 2004년 : 남선교회·모세·예제 연합, 한나·1·2여 연합, 3·4·5여 연합) 2005년부터는 주일 오후에 드리는 기관별 헌신예배가 없어졌다.

대신 2001년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시작된 기관별 헌신새벽기도회가 자치기관 활동의 새로운 축이 되었다. 2002년 처음 시작된 신년축복새벽기도회 역시 사실상 ‘기관별 헌신새벽기도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3년부터는 매주 금요일 심야기도회를 기관별로 윤번으로 담당하여 기도하였고, 2005년부터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의 기도회에 전교인이 참여하였는데, 이 역시 기관별 윤번으로 담당하였다. 이는 2009년까지 지속되었다. 자치기관들의 활동에서 또 하나의 중심축이 된 것은 ‘기관별 찬양대회’였다. 2001년 창립 20주년 때 ‘기관별 찬양축하회’가 있었고, 2002년 5월 5일에 청년부 주관으로 제1회 ‘기관별 찬양대회’가 열렸다. 2003년부터는 매년 창립기념주일 행사로 기관별 찬양대회가 열렸다. 2001년 송구영신예배 때 처음 확인되는 ‘기관 대항 율놀이’ 역시 해마다 진행되었고, 2007년부터는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에 기관별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전 시기부터 중요한 활동이었던 농촌 자매결연교회를 방문하여 교류하는 일은 이 시기에도 중요하게 지속되었다. 그 밖에도 2007년 4월 14일 여선교회는 선교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고, 2011년에는 창립 30주년 기념 식수로 심은 나무 그늘 아래에, 8개 기관이 연합으로 후원하여 나무 벤치를 설치하는 등 자치기관 활동은 이 시기 전반에 걸쳐 교회의 큰 활력이 되었다.

교회 전체의 활동에 기관 단위로 참여하는 활동 이외에도 자치 기관들은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다. 여선교회의 경우, 기관 연합수련회가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이 시기 내내 해마다 연합수련회를 실시하였고, 간혹 임역원 수련회를 연합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2004년까지는 주로 8월에 수련회를 하였는데, 2005년부터는 1월 혹은



여전도회 수련회(2005년)



남선교회 수련회(2005년)

2월에 진행하다가 점차 2월로 정착되었다. 2009년에는 서울 할렐루야교회 전도폭발 강사인 김덕자 권사를 초청하였고(2월 13일), 2010년에는 양인석 목사가 강사로 나서 “존재함의 축복”을 주제로 강의하였으며(2월 1일), 2011년에는 한일장신대 디아코니학 김옥순 교수를 강사로 초청하였다(2월 25일).

남선교회도 2005년부터 연합수련회를 갖기 시작하였다. 날짜는 매년 3.1절을 활용하였고, 장소는 주로 고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였는데, 2008년과 2010년에는 운장산 자연휴양림, 2009년에는 서천 동백정을 택하였다. 기관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갖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2000년 8월 6일 1남선교회는 “아버지의 영성 회복”이라는 주제로 부부 동반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03년 2월 29일~3월 1일 2남선교회는 “크리스찬의 대화기법 및 노인의 이해”를 주제로 수련회를 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 대부분의 자치 기관들은 봄과 가을에 나들이나 선교 유적지 방문 등의 단합행사를 가졌다. 간혹 부부 동반이나 기관들의 연합으로 단합 행사를 갖기도 하였다. 모세한나회도 2006년 9월 26일 안면도 탐방을 시작으로 매년 나들이 행사를 하였는데, 2007년부터는 강림경로선교대학의 소풍 행사와 함께 하였다.

남선교회는 이 시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0년 2월 29일, 2남선교회는 각 기관장, 회장, 부회장, 총무들과 여타 희망하는 교인들을 고산 자연휴양림으로 초청하여 “21세기 바람직한 부서 활동의 방향”이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고 안창엽 목사의 예기치 못한 별세로 불안감이 차오르고 있을 시기에, 교우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며 화합을 다지는 귀중한 기회를 만든 것이었다. 남선교회가 나서서 청년회와 함께 체육대회를 열거나 친선 등반을 하고, 부부 동반 단합 행사를 열어서 여선교회와의 협력을 다지는 일들도 이 시기 초반에 많았다. 아픔과 시름이 이어지던 교회에 소중한 치유와 화합의 기폭제가 되었던 2001년 5월 6일 ‘교회창립 20주년 기념 강림가족한마당 축제’ 역시 당시 2남선교회가 각 기관을 초대하여 진행한 ‘교회발전 토론회’ (2001년 2월 28일~3월 1일, 고산 자연휴양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다. 이 시기의 남선교회는 담임목사 부재 그리고 전북노회와의 갈등으로 힘겨울 수밖에 없던 공동체의 성원들을 위로하고 그 모두를 하나로 아우르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

냈던 것이다.

(3) 남선교회 연도별 조직 현황

• 2000년

1남 : 회장 김영선, 부회장 최경춘, 총무 김병규, 서기 박홍중, 회계 정인기

2남 : 회장 김종희, 부회장 심규열, 총무 이연우, 서기 최규익 김구태,
회계 황양우

• 2001년

1남 : 회장 최경춘, 부회장 장지석, 총무 박홍중, 서기 허영욱 김영윤,
회계 김영선 최정근

2남 : 회장 김구태, 부회장 황양우, 총무 김종희, 서기 최규익, 회계 강형희

• 2002년

1남 : 회장 전광호, 부회장 김영선(22), 총무 장지석 최경춘, 서기 정양래 박희열,
회계 이정석 이요셉

2남 : 회장 황양우, 부회장 박광수, 총무 김구태, 서기 최규익, 회계 이연우

• 2003년

1남 : 회장 김영선L, 부회장 정양래, 서기 이정석 이준홍, 회계 김종희 최정근,
총무 장지석 전광호

2남 : 회장 박광수, 부회장 성정수, 총무 황양우, 서기 최규익, 회계 이감철

• 2004년

1남 : 회장 정양래, 부회장 김종희, 총무 이정석 이희순, 서기 이준홍 권윤옥,
회계 최정근 임석윤

2남 : 회장 성정수, 부회장 안병용, 총무 박광수, 서기 성기봉 이감철,
회계 황양우

• 2005년

1남 : 회장 황경주, 부회장 최정근, 총무 이희순 허용욱, 회계 임석윤 권윤옥,

서기 이준홍 이귀형

2남 : 회장 이정석, 부회장 김영선, 총무 강형희 송자석, 서기 정국양 김종희,
회계 이연우 황양우

3남 : 회장 성정수, 부회장 박광수, 총무 성기봉, 서기 원도연, 회계 이감철

• 2006년

1남 : 회장 최정근, 부회장 임석윤, 총무 전광호 이희순, 회계 권윤옥 김태영,
서기 이준홍 이귀형

2남 : 회장 김영선, 부회장 김종희, 총무 최왕규 신을재, 서기 정국양 김구태,
회계 강형희 황양우

3남 : 회장 박광수, 부회장 성기봉, 총무 이감철, 서기 원도연, 회계 이병호

• 2007년

1남 : 회장 이귀형, 부회장 권윤옥, 총무 최정근, 회계 허용욱, 서기 이준홍

2남 : 회장 임석윤, 부회장 김종희, 총무 전광호, 서기 김태영 황행연,
회계 이한규 윤남수

3남 : 회장 이연우, 부회장 최왕규, 총무 김구태, 서기 신을재 안병우,
회계 황양우 신상섭

4남 : 회장 성기봉, 부회장 최규익, 총무 박광수, 서기 원도연, 회계 이병호

• 2008년

1남 : 회장 허용욱, 부회장 이준홍, 총무 이귀형, 회계 최정근, 서기 권윤옥

2남 : 회장 김종희, 부회장 송자석, 총무 정국양, 서기 김태영 황행연,
회계 이한규 윤남수

3남 : 회장 최왕규, 부회장 김구태, 총무 성정수, 서기 서기원 안병우,
회계 신을재 황양우

4남 : 회장 성기봉, 부회장 최규익, 총무 박광수, 서기 안진상, 회계 장성화

• 2009년

1남 : 회장 장지석, 부회장 안송엽, 총무 박홍중, 회계 최정근, 서기 이준홍

2남 : 회장 전광호, 부회장 정국양, 총무 김종희, 서기 강형희 황행연,
회계 이정석 윤남수

3남 : 회장 김구태, 부회장 황양우, 총무 성정수, 서기 서기원 안병우,
회계 신을재 박병규

4남 : 회장 이감철, 부회장 이병호, 총무 장성화, 서기 유양호, 회계 강지호

• 2010년

1남 : 회장 안송엽, 부회장 진교헌, 총무 장지석, 회계 최정근 임석윤,
서기 김영선] 이준홍

2남 : 회장 이한규, 부회장 최근철, 총무 김종희, 회계 강형희, 서기 이정석

3남 : 회장 성정수, 부회장 황양우, 총무 이성복, 서기 서기원 김주찬,
회계 박병규 구회언

4남 : 회장 이병호, 부회장 강지호, 총무 유양호, 서기 안진상, 회계 김성진

5남 : 회장 전계산, 총무 신상철

• 2011년

1남 : 회장 박홍종, 부회장 이국행, 총무 안송엽, 회계 권윤옥 이정원,
서기 김영선] 이준홍

2남 : 회장 최근철, 부회장 조영호, 총무 이한규, 회계 이정석, 서기 강형희

3남 : 회장 안길권, 부회장 이성복, 총무 성정수, 서기 최춘성 황양우,
회계 박병규 구회언

4남 : 회장 강지호, 부회장 유양호, 총무 안진상, 회계 송상훈, 서기 이희승

5남 및 예제선교회: 회장 전계산, 총무 신상철

(4) 여선교회 연도별 조직 현황

• 2000년

1여 : 회장 이장인, 부회장 이명숙, 총무 이구일, 서기 신정애 정귀례,
회계 서경자 고임순

- 2여: 회장 박혜영, 부회장 장귀순, 총무 유귀민, 서기 배인순 박정순,
회계 최복순 김영애
- 3여: 회장 안종복, 부회장 이복례, 총무 김정자, 서기 송순영 서덕렬,
회계 김옥자 이봉심
- 4여: 회장 양은순, 부회장 이종순, 총무 이현자 정성임, 서기 김세순 박경희,
회계 정명숙 양종숙
- 5여: 회장 박미애, 부회장 이미재, 총무 경순이, 서기 신순복 임태숙,
회계 김종숙 김명신
- 6여: 회장 한은숙, 부회장 최영선, 총무 김연숙, 서기 이정운 황미행,
회계 김영님 김현경

• 2001년

- 1여: 회장 이명숙, 부회장 정귀임, 총무 이강인, 서기 정귀례 신정애,
회계 박인희 민현숙
- 2여: 회장 장귀순, 부회장 최복순, 총무 박혜영, 서기 박정순 성영자,
회계 김영애 이정옥
- 3여: 회장 이복례, 부회장 이난희, 총무 안종복, 서기 송순금 서덕렬,
회계 김옥자 서영례
- 4여: 회장 이종순, 부회장 이현자, 총무 양은순 이창실, 서기 김명자 정성임,
회계 김세순 장정자
- 5여: 회장 이미재, 부회장 한인숙, 총무 박미애, 서기 한은숙 황미행,
회계 신미옥 국승란
- 6여: 회장 김현경, 부회장 원지현, 총무 김영님, 서기 설미화 양민숙,
회계 김연숙 안진희

• 2002년

- 1여: 회장 정규례, 부회장 신정애, 총무 이명숙, 서기 이강인 서경자,
회계 박인희 엄번자

2여: 회장 최복순, 부회장 이정옥, 총무 장귀순, 서기 강묘자 최지자,
회계 박영숙 장선미

3여: 회장 이복레, 부회장 김옥희, 총무 양종숙, 서기 송순금 서덕필,
회계 김옥자 서영례

4여: 회장 정성임, 부회장 김명자, 총무 이종순, 서기 박경희 한현희,
회계 양지순 경순이

5여: 회장 한인숙, 부회장 한은숙, 총무 이미재, 서기 이정운 국승란,
회계 김지연 서영숙

6여: 회장 김연숙, 부회장 설미화, 총무 안진희, 서기 김옥자 신송춘,
회계 최미숙 김현진

• 2003년

1여: 회장 박인희, 부회장 정귀임, 총무 오순희, 서기 박혜영 강정이,
회계 염번자 양순임

2여: 회장 성영자, 부회장 박영숙, 총무 최복순, 서기 김순옥 김정자,
회계 강묘자 조귀자

3여: 회장 김옥희, 부회장 이현자, 총무 이복레, 서기 양은순 최연진,
회계 전선옥 장순향

4여: 회장 김명자, 부회장 이성화, 총무 정성임, 서기 한현희 박미애,
회계 김세순 김현숙

5여: 회장 한은숙, 부회장 김지연, 총무 한인숙, 서기 황미행 양민숙,
회계 최점순 김영님

• 2004년

1여: 회장 정귀임, 부회장 박혜영, 총무 박인희, 서기 양순임 강정이,
회계 염번자 오순희

2여: 회장 박영숙, 부회장 강묘자, 총무 성영자, 서기 박수자 오봉애,
회계 김정자 김순옥

3여: 회장 이현자, 부회장 정영옥, 총무 김옥희, 서기 양은순 최연진,
회계 전선옥 장순향

4여: 회장 이성화, 부회장 한현희, 총무 김명자, 서기 박경희 임남이,
회계 김현숙 오양임

5여: 회장 전을자, 부회장 한정란, 총무 한은숙, 서기 최점순 황미행,
회계 이미재 한인숙

• 2005년

1여: 회장 정귀임, 부회장 박혜영, 총무 박인희, 서기 김귀정 염번자,
회계 박정순 양순임

2여: 회장 강묘자, 부회장 백 봉, 총무 박영숙, 서기 박수자 오봉애,
회계 김정자 김순옥

3여: 회장 정영옥, 부회장 양종숙, 총무 이현자, 서기 김옥희 이효순,
회계 장순향 최연진

4여: 회장 한현희, 부회장 김현숙, 총무 이성화, 서기 안나영 임남이,
회계 오양임 이남순

5여: 회장 최점순, 부회장 김현경, 총무 전을자, 서기 한정란 서혜화,
회계 한은숙 황미행

• 2006년

1여: 회장 신은순, 부회장 민현숙, 총무 정귀임, 서기 김귀정 염번자,
회계 박정순 양순님

2여: 회장 김옥자, 부회장 박수자, 총무 강묘자, 서기 김순옥 신순자,
회계 송순금 서덕렬

3여: 회장 정명숙, 부회장 양종숙, 총무 정영옥, 서기 양은순 이해순,
회계 양지순 안나영

4여: 회장 김현숙, 부회장 박미애, 총무 정성례, 서기 이미재 박일심,
회계 오양임 이남순

5여: 회장 양민숙, 부회장 김연숙, 총무 최점순, 서기 김현진, 회계 소활란

• 2007년

1여: 회장 서경자, 부회장 염번자, 총무 신은순, 서기 박인희, 회계 정귀임

2여: 회장 박영숙, 부회장 조귀자, 총무 백 봉, 서기 최복순 김귀정,
회계 강묘자 박정순

3여: 회장 김순옥, 부회장 김정자, 총무 김옥자, 서기 박수자 서덕렬,
회계 김순안 신순자

4여: 회장 김옥희, 부회장 박찬숙, 총무 정영옥, 서기 김종숙 박복례,
회계 양지순 김명자

5여: 회장 김세순, 부회장 안나영, 총무 정명숙, 서기 김명자 경순이,
회계 한현희 김옥자

6여: 회장 정성례, 부회장 양미영, 총무 김명신, 서기 전을자, 회계 양옥순

7여: 회장 김연숙, 부회장 김현진, 총무 양민숙, 서기 정종숙, 회계 김선미

• 2008년

1여: 회장 염번자, 부회장 민현숙, 총무 서경자, 서기 박인희 박혜영,
회계 정귀임 양순임

2여: 회장 조귀자, 부회장 백 봉, 총무 박영숙, 서기 김귀정 성영자,
회계 강묘자 박정순

3여: 회장 김정자, 부회장 박수자, 총무 김순옥, 서기 이영숙 서덕렬,
회계 김순안 신순자

4여: 회장 박찬숙, 부회장 이난희, 총무 김옥희, 서기 양은순 최순덕,
회계 김명자 장정자

5여: 회장 안나영, 부회장 김영례, 총무 김세순, 서기 김현숙 경순이,
회계 이종순 김옥자

6여: 회장 김명신, 부회장 한은숙, 총무 정성례, 서기 전을자, 회계 신미옥

7여: 회장 김현진, 부회장 최성숙, 총무 김연숙, 서기 김선미, 회계 최명자

• 2009년

- 1여: 회장 민현숙, 부회장 박혜영, 총무 엄번자, 서기 박인희 김옥단,
회계 정귀임 이정애
- 2여: 회장 백 봉, 부회장 김세영, 총무 조귀자, 서기 김귀정 성영자,
회계 박정순 이정숙
- 3여: 회장 박수자, 부회장 김순안, 총무 김정자, 서기 이영숙 조성순,
회계 김순옥 임명옥
- 4여: 회장 이난희, 부회장 최순덕, 총무 박찬숙, 서기 양은순 장순향,
회계 김명자 장정자
- 5여: 회장 김영례, 부회장 김현숙, 총무 안나영, 서기 오양남, 회계 김세순
- 6여: 회장 한은숙, 부회장 김지연, 총무 김명신, 서기 정성례, 회계 국승란
- 7여: 회장 최성숙, 부회장 소활란, 총무 김현진, 서기 김선미, 회계 김리향

• 2010년

- 1여: 회장 박혜영, 부회장 이정애, 총무 민현숙, 서기 김귀정 양순임,
회계 박정순 김옥단
- 2여: 회장 김세영, 부회장 최복순, 총무 백 봉, 서기 조귀자 강묘자,
회계 송국희 오봉애
- 3여: 회장 김순안, 부회장 허명순, 총무 박수자, 회계 서영례, 서기 김순옥
- 4여: 회장 최정연, 부회장 이순이, 총무 이난희, 서기 양은순 장순향,
회계 김명자 장정자
- 5여: 회장 김현숙, 부회장 이성화, 총무 김영례, 회계 정명숙, 서기 오양남
- 6여: 회장 신미옥, 부회장 전은혜, 총무 한은숙, 서기 이남순, 회계 김명신
- 7여: 회장 소활란, 부회장 권희정, 총무 최성숙, 회계 김리향
- 8여: 회장 강성희, 부회장 최선아, 총무 주선화, 회계 전가연

• 2011년

- 1여: 회장 이정애, 부회장 양순임, 총무 박혜영, 서기 김귀정 박영님,

회계 박정순 김옥단

2여: 회장 최복순, 부회장 송국희, 총무 김세영, 회계 양계영, 서기 강묘자

3여: 회장 허명순, 부회장 오춘호, 총무 김순안, 회계 서영례, 서기 유숙자

4여: 회장 이순이, 부회장 김명자, 총무 최정연, 서기 김명에 장순향,

회계 양은순 장정자

5여: 회장 이성화, 부회장 한현희, 총무 김현숙, 회계 이순화, 서기 정명숙

6여: 회장 전은혜, 부회장 국승란, 총무 신미옥, 서기 정성례, 회계 김명신

7여: 회장 권희정, 부회장 조일수, 회계 김리향, 서기 김경선, 총무 소활란

8여: 회장 최선아, 부회장 주선화, 총무 신송춘, 회계 이현주

(5) 모세, 한나 및 예제 선교회 조직 현황

• 2003년

모세선교회: 회장 권이철, 부회장 황경주, 총무 류시영, 회계 양기영

한나선교회: 회장 신정애, 회계 이강인, 총무 정규례

예제선교회

• 2004년

모세선교회: 회장 권이철, 부회장 황경주, 총무 허용옥, 회계 이귀형

한나선교회: 회장 김현순, 부회장 김차남, 총무 신정애, 회계 이구일

예제선교회: 회장 황의찬, 부회장 신송춘, 총무 온기찬, 회계 국선화

• 2005년

모세한나회: 회장 권이철, 부회장 박영자, 총무 류시영, 회계 이명숙

예제선교회: 회장 안진상, 부회장 신상철, 총무 김완진, 회계 정인순

• 2006년

모세한나: 자문 권이철, 회장 류시영, 부회장 박영자, 총무 강성곤, 회계 이명숙

예제선교회: 회장 고도옥, 부회장 노현주, 총무 정인순

• 2007년

모세한나 : 자문 권이철, 회장 양기영, 부회장 김현순, 총무 고창호, 회계 정규례

예제선교회 : 회장 노현주, 총무 고도욱

• 2008년

모세한나 : 자문 권이철, 회장 강성곤, 부회장 이명숙, 총무 고창호, 회계 이강인

예제선교회 : 회장 노현주, 부회장 신송춘, 총무 신상철

• 2009년

모세한나 : 자문 권이철, 회장 황경주, 부회장 이명숙, 총무 고창호, 회계 이강인

예제선교회

• 2010년

모세학교

예제선교회

• 2011년 모세학교

교장 황경주, 간사 최규익, 서기 김옥희, 회계 조귀자

교무부 : 서경자 노윤숙 양은순 안나영 전선옥 최은환

봉사부 : 강묘자 박영숙 최복순 이정순 한숙자 최연진 박영님 우옥희 오봉애

Ⅲ. 강림 공동체의 삶

1. 예배

1) 주일예배와 성례전

2001년 1월 21일부터 1부 예배의 시간이 오전 8시 30분에서 9시로 변경되었다. 또한 1997년부터 시작되었던 청년 중심의 주일 3부 예배를 2001년 7월 22일을 끝으로 폐지함으로써, 주일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정리되었다. 이 시기 예배 참석자 수를 보면 2002년 408~485명, 2006년 451~550명, 2011년 510~560명 정도의 추이를 보였다.

2001년 9월 2일부터 예배순서에서 파송의 말씀이 빠지고 주기도문송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파송 부분을 ‘말씀’에서 찬양으로 바꿈으로써, 파송의 말씀과 송영을 결합한 형태로 정착된 것이다. 2007년에도 순서상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찬양과 경배와 신앙고백의 순서를 맞바꾸어 신앙고백 후에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교독 후에는 고백의 기도라는 이름의 공동기도와 용서의 말씀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설교 후의 결단기도를 빼서 설교에 통합하고, 봉헌기도 역시 순서에서 빼고 예물봉헌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주기도문송 순서의 명칭을 파송의 찬양으로 바꾸고 평화의 기도를 파송의 찬양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부 주일예배 모습(2009년)

2002년 7월부터 주보에 주일예배 성경봉독자 명단이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성경봉독자를 예배순서 안에 표기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2월 1일부터였다. 이때 1부에는 1명, 2부에는 2명이 배치되었다. 1부 예배 성경봉독에 2명이 배치되어 구약과

신약을 각각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도부터였다. 2007년부터 시작

된 매 주일의 ‘고백의 기도’는 이전

주일예배의 설교를 토대로 하는 회개

의 기도문으로 작성되었는데, 교역자와

일부 교인들이 함께 윤번으로 작성하다

가 점차 교역자들이 윤번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2008년 10월 26일에

는 그동안 드러졌던 고백의 기도문을 모아

모음집을 발행하였다. 2008년부터 방송부에서



고백의 기도문 모음집

주일설교를 녹화하여 교회 인터넷 카페(cafe.daum.net/maranata61) ‘주일설교 다시 듣기’란에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새번역 성경』과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 『개역한글 성경』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번역본을 교체하던 상황에서 전주강림교회는 『새번역 성경』을 채택하였다. 『개역개정판 성경』에 비해 훨씬 읽기 쉬울 뿐만 아니라, 보다 최근까지의 성서학적 연구 결과들을 반영한 더 좋은 번역이기 때문이었다. 본격적인 도입 이전에 양인석 목사의 부임 초기부터 『새번역 성경』을 새벽기도회와 ‘예수 아카데미’ 등의 성경공부 시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사용 경험에서 『새번역 성경』 사용의 유익한 점들을 확인한 후, 2006년 12월 16일 당회는 한국 교계의 『21세기 찬송가』 도입 시점에 맞추어 성경을 함께 교체하면서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 11월 4일부터 이에 관한 안내문이 교회 주보에 실리기 시작하였고, 11월 11일부터 교회 재정에서 반액을 지원하는 성경·찬송가 교체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8년 첫 주일(1월 6일)부터 모든 공예배에서 『21세기 찬송가』와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였다.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통일 찬송가』를 대신하여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하게 된 것 역시 매우 큰 변화였다. 예배시간에 사용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번역이 달라지게 되었고, 익숙했던 찬송가들의 장 번호와 일부 가사들이 바뀌게 되었다. 또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작사하고 작곡한 새로운 찬송들이 대거 포함됨으로써, 예배 정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전주강림교회는 이 일을 계기로 2부 찬양대 지휘자인 송성희 권사(현재 장로)를 통하여 주일오후예배 시작 전, 『21세기 찬송가』 속의 새 찬송들을 배우고, 배운 찬송을 예배 찬송으로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시기부터 봄 세레예식은 부활주일과 결합되고, 가을에 행해오던 세레예식은 성탄절과 결합되었다. 상반기 세레예식의 경우, 2000년 부활주일에 세레예식이 있었고, 2002년 이후에는 부활주일로 정례화되었다. 하반기 세레예식의 경우, 2006년

12월 24일(주일예배)에 세례예식을 행한 후, 2007년부터는 성탄절 축하예배 때 세례예식을 행하는 것으로 정례화되었다. 2000년에는 4월 23일, 2001년에는 9월 30일과 11월 11일, 2002년에는 3월 31일과 11월 17일, 2003년에는 4월 20일과 11월 16일, 2004년에는 4월 11일과 11월 14일, 2005년에는 3월 27일과 10월 30일, 2006년 4월 16일과 12월 24일에 세례예식이 있었다. 2007년부터 하반기 세례예식은 12월 25일



부활절 세례자들(2009년)



성찬예식 장면(2009년)

로 고정되었고, 상반기 세례예식은 2007년 4월 8일, 2008년 3월 23일, 2009년 4월 12일, 2010년 4월 4일, 2011년 4월 24일이었다. 한편, 예배 내에서 세례예식의 순서가, 설교 후의 ‘결단 찬송’과 ‘예물봉헌’ 사이로 조정되었다. 이전에는 ‘성경봉독’ 직후에 위치해 있었다. 성찬예식은 이전 시기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2) 주일 오후

주일 오후 시간에 드러지는 예배의 정체성은 이 시기에 들어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주일밤예배, 주일밤찬양예배, 석양예배 등의 명칭을 거쳐 1999년 ‘주일찬양예배’로 변경되었던 명칭이, 2000년에는 ‘주일오후예배’로 그리고 2001년 2월 18일부터는 ‘주일오후찬양예배’로 바뀌었다. 이후 줄곧 주일오후찬양예배로 자리 잡았던 주일 오후 시간의 예배는 2007년부터 다시 한번 변화를 겪는다. 2007년 3월 11일부터 ‘주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설교 시간을 ‘말씀 나눔’과 ‘설교’로 나누었다. 20분가량 배정된 말씀 나눔 시간에는 8~12명으로 나누어진 목장별로 대화식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고, 설교 시간은 5분 정도로 하여 그날의 본문을 정리하는 방식이었다.

‘예수 아카데미’의 모범 참석자들로 각 목장의 리더인 ‘목자’를 세우고, 예수 아카데미에서 다루었던 마가복음서를 공부하였다. 이를 위해 주보에 말씀 나눔을 위한 기본 자료를 수록하여 제시하였다. 2007년 한 해 동안 시행한 후 설문 조사를 통해 교인들의 의견을 묻은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었다(2008년 1월 6일 당회록 참조). 2010년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다. 구역예배와 주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를 통합하여 ‘구역-말씀예배’를 시작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구역과 별개의 ‘목장’을 조직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던 구역을 개편하여 구역별로 말씀을 나누는 방식을 취한 것이었다.

주일 오후 시간은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와 각 기관의 헌신예배를 위한 시간이

기도 했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절기 축하 등 각종 행사가 이 시간에 진행되었다. 헌신예배의 경우, 2001년까지는 제직회, 남·녀 각 선교회와 청년회 등 자치기구, 교회학교 유치부·유년부·소년부·중등부·고등부 그리고 경배와찬양단이 각각 연 1회의 헌신예배를 드렸다. 2002~2004년까지는 헌신예배의 횟수를 대폭 줄여서 제직회, 남선교회 연합, 여선교회 연합, 청년회 연합, 아동부(유치부·유년부·소년부) 연합, 중·고등부 연합, 교사, 경배와찬양단, 찬양대 등의 단위로 헌신예배를 실시하였다. 2005년에는 아동부, 중·고등부, 찬양대, 교사만 헌신예배를 드렸다가, 2006년부터는 제직 헌신예배, 청지기 헌신예배(구역장, 자치기구 회장, 교회학교 부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사 헌신예배만 남기고, 자치기구 및 교회학교 부서들의 헌신예배를 없앴다.

헌신예배가 없는 주일에는 어머니 찬양대와 각 자치기관이 특송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주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로 전환하면서 목장별로 특송을 하게 되었고, 2010년 ‘구역-말씀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구역별로 특송을 하게 되었다. 오후 2시였던 예배시간이 2007년 4월 15일부터는 오후 1시 50분으로 조금 앞당겨지고, 2009년부터는 오후 1시 20분으로 더 앞당겨졌다. 한편,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주일 오후 시간에는 부교역자들에게 설교 기회를 부여하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기도 했는데, 2007년 주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가 시작된 이후로는 그런 기회가 감소하였다.

3) 수요성서학교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수요성서학교는 성서 강해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교육의 통로였다. 양인석 목사의 부임 직후인 2001년 2월 21일부터 빌레몬서 강해를 시작으로, 요나서와 마가복음서 강해가 이어졌다. 2003년 1월까지 계속된 마가복음서 강해 이후에는 룻기와 출애굽기로 이어졌다. 2004년 5월부터 디모데전·후서, 2005년 4월부터 이스라엘 역사, 2005년 9월부터 사도행전, 2008년 5월부터 창세

기, 2009년 10월부터 고린도전·후서, 2011년 11월부터 요한계시록을 강해하였다. 2006년과 2007년에는 부교역자들의 설교 참여 빈도가 높았다.

수요성서학교의 특송은 2000~2004년까지 자치기관과 구역들이 함께 담당하였는데(2001년에는 몇몇 가정씩 가족 특송),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구역들이 담당하다가, 2010년부터는 특송이 없어졌다. 주일 오후의 ‘구역-말씀예배’ 특송을 구역별로 담당하면서 수요성서학교 특송을 없앤 것이다. 한편, 2009년 2월 1일 당회는 수요성서학교를 오전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모세·한나선교회의 요청을 허락하고, 2009년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요성서학교 오전반을 개설하였다. 이를 계기로 목요일에 모이던 강림선교대학의 모임을 수요일로 변경하여 3월 4일부터 오전 9시 30분에 수요성서학교 오전반과 경로선교대학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4) 각종 기도회

2001년 3월 4일 주간부터 ‘천-백-십-일 운동’의 일환으로, 새벽기도회를 1부(5시)와 2부(6시 30분)로 나누어 드리기 시작하였다. 천-백-십-일 가운데 ‘백’이 ‘100명이 새벽에 기도하기’였는데, 보다 많은 성도가 새벽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벽기도회 시간을 증설한 것이었다. 같은 해 4월 15일부터는 2부 새벽기도회의 시간을 6시로 변경하였고, 2008년 8월 4일부터 새벽 1·2부를 통합하고 시간을 5시 30분으로 변경하였다.

2001년 7월 1~20일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 특별새벽기도회와 8월 13일~9월 22일 기관별 헌신새벽기도회를 계기로 하여 매년 여름마다 기관별 헌신새벽기도회가 정례화되었다. 기관별 헌신새벽기도회는 각 자치기관별로 한 주간씩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기도회의 인도와 대표기도, 성경봉독, 특송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2년부터는 신년축복 새벽기도회를 해마다 연초에 갖기 시작하

였다. 기관별 헌신새벽기도회와 마찬가지로, 신년축복 새벽기도회 역시 자치기관들이 경건회의 순서와 특송을 담당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였다. 2001년 사순절 기간에는 권사회 주도로 릴레이 기도회를 갖기도 하였다.

매월 넷째 주일이 지난 금요일 밤에는 전교인이 함께 하는 심야기도회로 모이던 이전 시기의 전통이 이 시기 내내 이어졌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교인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마지막 금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금요일을 교역자, 당회원, 찬양대, 교회학교 각 부서, 특별위원회, 각 자치기관(남선교회·여선교회·예제선교회·청년회)이 나누어 맡아 기도하였다. 이 기도회에는 교역자들이 배치되어 기도하기 전 경건회를 인도한 후, 각 기관별 헌안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다.

5) 예배 관련 기구들의 활동

2001년부터 ‘성가대’라는 용어를 ‘찬양대’로 변경하였다. 1부 찬양대 지휘를 맡고 있던 이진산 집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당회는 2001년 8월 15일



1부 찬양대의 모습(2009년)



2부 찬양대의 모습(2007년)

회의에서 안길권 집사(현재 장로)를 1부 찬양대 지휘자로 임명하였다. 안길권 집사는 2005년 7월 노현주 집사가 다음 지휘자로 임명되기까지 1부 찬양대 지휘자로 봉사하였다. 예배 관련의 제직회 조직으로 2001년 8월 ‘방송부’가 신설되었다. 방송부는 2008년부터 예배시간의 음향과 영상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 인터넷 카페³ 운영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2008년부터는 주일설교를 녹화하여 ‘주일설교 다시 듣기’란을 통해 지나간 설교들을 영상으로 다시 접할 수 있게 하였다. 2003년에는 예배위원회도 조직되어 예배와 관련한 여러 조직의 책임자들이 협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위원장: 진교현, 위원: 박석송 안길권 박병규 박진범 홍철원 이강인 송성희 서희정).

기존에 활동하던 예배 조직들 가운데 ‘국악찬양대’는 2002년부터 조직에서 없어졌고, 가브리엘 찬양단(중·고등부), 청년드림(청년부) 등으로 분화되었던 경배와 찬양 관련 조직은 2005년 이후 경배와찬양단으로 단일화되었다. 2005년부터 선교헌금 항목에 ‘경찬선교헌금’이 만들어져서, 경배와 찬양단 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

3 cafe.daum.net/maranata61



경배와찬양단(2010년)

이 마련되었다. 경배와찬양단에서는 2004년부터 연 1회 이상 ‘찬양예배’, ‘열린예배’, ‘찬양열린예배’ 등의 이름으로 찬양 중심 예배를 준비하고 주관하였다.

1990년대부터 주일 오후 찬양예배를 중심으로 활동해 오던 ‘어머니

찬양대’는 2007년 이후 활동이 약화되다가 2010년부터는 교회 조직에서 빠지게 되었다. 2007년 ‘주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 출범 후 그 특송을 목장별로, 그 후로는 구역별로 특송을 맡게 됨으로써 활동의 장이 없어졌던 것이다. 한편, 2001년부터 오르간 반주자가 임명되었다. 예배 음악에 오르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7년 6월 10일, 한 가정의 헌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르간이 설치되었다. 2011년부터 1부 찬양대에서도 기악부(현악+관악)가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6월에는 ‘기쁜 노래 중창단’이 조직되어 예배와 찬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 찬양 조직의 연도별 현황

• 2000년

1부 찬양대 : 대장 진교헌, 총무 안종복, 지휘 이진산, 피아노 김효정

2부 찬양대 : 대장 정인기, 총무 정국양, 지휘 송성희, 피아노 황정아
어머니성가대, 경배와 찬양단

• 2001년

1부 찬양대 : 대장 안송엽, 총무 박영숙, 지휘 이진산,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박경옥

2부 찬양대 : 대장 안송엽, 총무 정국양, 지휘 송성희, 피아노 김현정,
오르간 진선미

어머니성가대, 경배와 찬양단 : 단장 김구태, 리더 고도욱

• 2002년

1부 찬양대 : 대장 황경주, 총무 박영숙, 지휘 안길권,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정은지

2부 찬양대 : 대장 김영선(22), 총무 최규익, 지휘 송성희,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김효정

어머니성가대, 경배와 찬양 : 단장 김구태, 리더 나석, 총무 전가연

• 2003년

1부 찬양대 : 대장 황경주, 총무 박영숙, 지휘 안길권,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정은지

2부 찬양대 : 대장 김영선L, 총무 전을자, 지휘 송성희,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김효정

어머니성가대, 경배와 찬양단 : 단장 김구태, 리더 김구태, 총무 전가연

• 2004년

1부 찬양대 : 대장 진교현, 총무 박영숙, 지휘 안길권,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정은지

2부 찬양대 : 대장 김영선J, 총무 이순이, 지휘 송성희,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안소영

어머니성가대 : 지휘 이영숙, 피아노 김효정

찬양드림(청년부) : 지휘 황의찬, 반주 이선영, 총무 이종향

경배와 찬양단 : 단장 최규익, 리더 고도욱, 총무 양혜영, 회계 김효정

• 2005년

1부 찬양대 : 대장 진교현, 총무 박영숙, 지휘 안길권,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정은지

2부 찬양대 : 대장 김영선J, 총무 조귀자, 지휘 송성희,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박효정

어머니성가대 : 지휘 이영숙, 피아노 김효정

경배와 찬양단 : 단장 최규익, 리더 고도옥, 총무 김정태, 회계 안중현

• 2006년

1부 찬양대 : 대장 정인기, 총무 신순자, 지휘 노현주,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정은지

2부 찬양대 : 대장 김영선L, 총무 조귀자, 지휘 송성희,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박효정

어머니 찬양대 : 지휘 이영숙, 피아노 김효정

경배와 찬양단 : 단장 최규익, 인도 김정태, 총무 안효종, 회계 양혜영

• 2007년

1부 찬양대 : 대장 정인기, 총무 신순자, 지휘 노현주,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정은지

2부 찬양대 : 대장 정양래, 총무 조귀자, 지휘 송성희,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박효정

어머니 찬양대 : 대장 김옥자, 총무 전순례, 지휘 이영숙, 피아노 김효정

경배와 찬양단 : 단장 고도옥, 인도 고도옥, 총무 양혜영, 회계 선호영

• 2008년

1부 찬양대 : 대장 김영선L, 총무 최순덕, 지휘 노현주,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박효정

2부 찬양대 : 대장 정양래, 총무 조귀자, 지휘 송성희,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안인경

어머니 찬양대 : 대장 김옥자, 총무 전순례, 지휘 이영숙, 피아노 김효정

경배와 찬양단 : 단장 고도옥, 리더 고도옥, 총무 정지상, 회계 선호영

• 2009년

1부 찬양대 : 대장 김구태, 총무 최순덕, 지휘 노현주,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박효정

2부 찬양대 : 대장 정국양, 총무 최복순, 지휘 송성희,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안인경

어머니 찬양대 : 대장 김옥자, 총무 전순례, 지휘 이영숙, 피아노 김효정
경배와 찬양단 : 단장 정인기, 인도 고도옥, 총무 정지상, 회계 이대로

• 2010년

1부 찬양대 : 대장 김구태, 총무 최정연, 지휘 노현주,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박효정

2부 찬양대 : 대장 정국양, 총무 최복순, 지휘 송성희,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안인경

경배와 찬양단 : 단장 정인기, 고문 김구태 최규익, 인도자 김태훈

• 2011년

1부 찬양대 : 대장 안병용, 지휘 노현주,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박효정

2부 찬양대 : 대장 김영선, 지휘 송성희, 피아노 김효정, 오르간 안인경
경배와 찬양단 : 단장 김세영, 총무 안중현 송재홍, 회계 양혜영

2. 절기와 행사

1) 사순절~부활주일

2000년부터 부활주일과 봄 세례예식이 결합되기 시작하였다. 성금요일 예배는 간헐적으로 행해졌다. 부활주일에배에는 대체로 찬양대의 칸타타가 연주되었고, 부



부활절 행사 모습(2006년)

활주일 오후의 축하 행사는 대부분 유치·유년·소년 등 아동 부서에서 담당하였다. 2000년의 축하 행사는 연합성가대가 축하 행사를 담당하였고, 2003년에는 가족찬양제가 있었다. 2010년에는 교회학교의 축하잔치와 함께 판토크림 드라마 “골고다 언덕길” (최경식 집사) 공연이 있었고, 2011년 축하 행사는 기쁜노래 중창단, 청년부, 경배와찬양단이 함께 꾸몄다. 2009년부터는 사순절에 기아대책본부와 함께 ‘사랑의 밥그릇’ 모금 운동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2) 창립기념주일

교회창립기념주일이 매우 강화되었다. 이 시기가 담임목사의 유고, 전북노회와의 갈등에 따른 위기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 됨을 강화하는 창립기념주일이 부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이 시기의 시작점에 있는

2001년이 교회 창립 20주년이고 마침 점이 되는 2011년은 교회 창립 30주년이었다. 2001년도의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에는 축하찬양회와 더불어 양인석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있었다. 찬양축하회에는 중등부, 고등부, 1청, 2청, 여전도회1팀, 여전도회2팀, 남선교회1팀, 남선교회2팀이 참여하여 함께 잔치를 만들었다. 2001년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창립 20주년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는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 해마다 ‘기관별 헌신새벽기도회’가 창립기념주일 행사로 결합하게 되었다.

2002년부터는 창립기념주일에배시간에 교회 약사를 낭독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기관별 찬양대회’가 창립기념주일 오후 축하 행사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창립기념주일은 가장 성대한 교회 절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기관별 찬양대회는 2002년 5월 5일 청년부가 1회 대회를 주최한 것이었는데,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하여 철저하게 음악성을 심사하는 합창대회로 진행하여, 찬양의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04년 2회 대회에는 자매교회인 고창 월산교회 찬양단이 찬조 출연하기도 하였다. 2008년부터는 기관별 연습 시간과 공간을 배정해 주기 시작하였다. 2009년부터는 경쟁 그룹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부 최하위



창립기념주일(2002년)



기관별 찬양대회의 한 모습(2009년)

팀은 다음 해 2부로 내려가고 2부 우승팀이 다음 해에는 1부에 참가하는 방식의 승강제를 도입하였다. 30주년이 되는 2011년에는 전북교육문화회관을 대관하여 찬양대회를 진행하고, 이때 타지역으로 떠났던 옛 교우들을 초대하여 교제하는 ‘홈커밍데이’ 행사도 함께 가졌다.

3)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 절기 중 맥추감사절은 2006년 6월 25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2007년부터는 지키지 않게 되었다. 농경 절기에 해당하는 맥추감사절을 도시 교회에서 지속하는 것이 억지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을의 추수감사절은 더욱 풍성한 절기가 되었다. 2002년 추수감사절(9월 29일)부터 추수감사절 오후에 구역별 찬양대회를 축하 행사로 갖기 시작했다. 구역별 찬양대회는 구역의 단합에 중점을 둔 행사였다. 찬



추수감사절 구역별 찬양대회(2010년)



추수감사절 마당잔치(2007년)

양대회 후에는 마당 행사로 음식 나눔과 전통놀이 한마당도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행사 준비 기간을 안배하여, 추석 명절이 지난 두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4) 대림절~성탄절

성탄절 절기는 이전 시기에 정착된 12월 24일 밤의 축하 행사, 25일의 성탄절 새벽기도회, 성탄절 축하예배의 틀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그중 하나는 세례예식이 성탄절과 결합된 것이다. 2007년부터 성탄절에 세례예식을 행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에는 성탄축하 행사를 ‘중·고등부 찬양드림’으로 진행하였고, 2009년에는 12월 20일 경배와찬양단의 열린찬양예배와 24일 성탄축하의 밤 그리고 25일 저녁 아카펠라 그룹 ‘다이야’ 초청 공연까지 성탄축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부터는 25일 아침의 성탄축하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리기 시작하였다. 2001년부터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기 전 저녁 시간에 ‘기관 대



성탄절 행사(2006년)

항 옷놀이 대회'가 시작되었다. 함께 모여 옷놀이를 통해 왁자지껄하게 교제를 나누고 송년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2002년부터 신년축복새벽기도회가 시작되어, 결과적으로 송구영신 절기의 확장과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5) 전교인 체육대회와 전교인 수련회

2001년 5월 6일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강림가족한마당 축제'라는 이름으로 전교인 체육대회가 전주영생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이 체육대회는 교회의 단합을 도모할 일을 모색하던 2남선교회의 사업계획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2남선교회가 각 기관을 초대하여 진행한 '교회발전 토론회'(2001년 2월 28일~3월 1일, 고산자연휴양림)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확장되었다. 이후 체육대회를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진행키로 하고, 이에 따라 담임목사인 양인석 목사가 대회장을 맡



전교인 체육대회(2007년)

고, 당회원들이 지도위원을 맡았다. 또한 2남선교회뿐만 아니라 1남선교회와 청년회까지 함께 행사를 주관하기로 하여, 세 기관의 회장들이 공동준비위원장을 맡고 (1남 최경춘, 2남 김구태, 1청 고동욱), 기획부·홍보부·진행부·차량부·식사부·시설부·봉사부·의료부·방송부 등으로 조직과 임무를 세분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였다. 당시 1남선교회 부회장이었던 장지석 집사(현재 장로)를 비롯한 성도들의 물심양면 후원으로 행사 전반에 큰 힘이 모아졌다. 5월 6일 당일의 행사는 진행위원장 김영선L 집사(현재 봉사장로)의 진행 속에 성대한 잔치가 되었다. 행사를 마치고 제출된 행사 결과 보고서는 행사의 성과가 100% 이상으로 달성되었다면서, 교회의 하나 됨을 이루고 온 교회가 그동안의 근심을 떨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해 준 행사였다고 평가하였다.

전교인 체육대회는 2001년 5월 6일의 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04년까지 매년 열렸고, 이후로는 2006년, 2007년, 2011년도와 같이 간헐적으로 개최되었다. 연도별 행사로 보면, 2001년 5월 6일 창립 20주년 기념 전교인 가족초청 축제 한마당(영생고등학교



전교인 체육대회(2011년)

교 강당), 2002년 5월 12일 창립 21주년 기념 전교인 축제 한마당(고산고등학교), 2003년 5월 4일 창립 22주년 기념 전교인 축제 한마당(고산고등학교), 2004년 5월 16일 창립 23주년 기념 전교인 축제 한마당(고산고등학교), 2006년 5월 14일 전교인 축제 한마당(고산고등학교), 2007년 5월 20일 전교인 축제 한마당(종합경기장), 2011년 5월 8일 창립 30주년 기념 전교인 체육대회(금암초등학교)로 이어졌다.

일부 기관이 중심이 된 체육행사들도 있었다. 2001년 6월 10일 2남선교회와 청년회의 축구대회, 2002년 3월 17일 2남선교회와 청년부 체육대회, 2005년 4월 17일 남선교회·청년부·대학부 친선 체육대회, 2005년 10월 30일 중등부·고등부·청년부·2남선교회·3남선교회 친선 체육대회, 2009년 6월 14일 축구선교회 주관 전교인 어울림 한마당(종합경기장 축구장) 등이 그것이다. 당회장배 탁구대회도 있었다(2회 2007년 9월 30일, 3회 2008년 11월 16일).

2005년 여름에는 전교인 수련회가 7월 27~29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전라북도 학생 해양수련원에서 열렸다. “믿음으로 가족 된 우리”라는 주제와 “우리는 주님

과 한 가족”이라는 표어 아래 진행된 전교인 수련회는 교회의 화합과 결속이 매우 밀도있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행사였다. 2박 3일 동안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의 교인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며 수련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깊어진 유대감과 단단한 조직력을 토대로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행사는 2001년부터 진행된 교회 결속 다지기가 그 정점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6) 기타

그 밖에 이 시기의 중요한 교회 행사들로는, 2000년 고 안창엽 목사 1주기 추모 예배, 2001년 7월 1일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예배 및 양인석 목사 취임예배, 5차·6차·7차 임직예식(각각 2003년 9월 13일, 2007년 10월 13일, 2011년 6월 11일), 양인석 목사 위임예식(2011년 6월 11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2011년) 등이 있었다. 금암2동 동사무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로잔치도 계속되었다. 매년 성년식과 청년문화제 등의 청년 행사가 이 시기에도 계속되었다. 청년회는 2000년 5월 21일 ‘강림 찬양잔치’, 2004년 5월 5일 기관별 찬양대회, 2003년 5월 11일과 2004년 5월 9일 성경퀴즈대회 ‘골든벨을 울려라’ 등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행사들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교회 행사들은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는 위에서 보았듯이, 중요한 절기들을 중심으로 몇몇 프로그램들이 결합되었다는 점이다. 부활절에 봄 세례식이 결합되고, 창립기념주일에 기관별찬양대회와 기관별헌신새벽기도회가 결합되었다. 추수감사절에는 구역별찬양대회가 결합되었고, 성탄절에는 세례식이, 송구영신 행사에 송구영신예배에 더해 기관대항 윗놀이 대회와 신년축복새벽기도회가 결합되었다. 이러한 결합을 통해 절기가 크게 강화되었으며, 절기와 결합된 행사들은 정례화되었고 더욱 성대해졌다.

둘째는 교인들 간의 유대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담겼다는 점이다.

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였던 것이다. 중요 절기들과 결합되었던 기관별찬양대회, 구역별찬양대회, 기관 대항 윗놀이 대회, 기관별헌신새벽기도회 등이 모두 구역 및 자치기구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더해 교회 전체를 하나로 모으려는 다른 노력도 이루어졌다. 2001년부터 이어진 전교인 체육대회가 대표적이었다. 한마디로 전주강림교회는 이 시대를 잔치의 시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잔치들이 위기를 넘어서는 힘이 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던 것이다.

3. 선교

1) 복음 전도 선교

이 시기 교회 성장의 가시적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 ‘천-백-십-일 운동’이다. ‘천’은 1,000명의 교우가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백’은 100명의 교우가 모여서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 ‘십’은 10억의 예산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교회, ‘일’은 교우 한 사람이 1명씩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양인석 목사의 제안을 2001년 3월 11일 당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창립 20주년 기념 주일인 2001년 7월



교회를 알리는 자료들

1일 ‘천-백-십-일 운동’의 추진을 선언하고 7월 15일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장으로는 안송엽 장로, 위원으로는 황경주 장로, 최경춘 집사, 김구태 집사, 이종순 집사, 김현경 집사가 임명되었다.

천-백-십-일 운동 초창기에 해당하는 2002~2003년에는 전도의 동기를 유발하는 세미나와 부흥회, 전도의 계기를 마련하는 유명인 초청 행사 등이 빈번하였다. 2002년에는 2월 24~27일 부흥회(남명우 목사), 7월

7일 선교부 주관 특별 전도 세미나(전주 CCC 대표 이정호 목사), 9월 1일 울산제일교회 박영규 집사 초청 전도 세미나, 11월 17일 의료선교위원회와 선교부 공동 주최 전도 집회, 11월 24일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간증 영상 집회 등이 이어졌다. 2003년에도 탤런트 정영숙 집사 초청 간증 집회(2월 5일), 탤런트 한인수 장로 초청 간증 집회(3월 16일), 찬양 사역자 최인혁 집사 초청 찬양집회(11월 23일)가 있었다. 2004년 2월 15일 김미경 집사(군산 양문교회) 간증 집회, 2005년 2월 25일 1일 부흥회(이승현 목사, 광주 에덴교회), 3월 13일 성우성 권사 전도 찬양 간증 집회, 2006년 4월 14일 1일 부흥회와 4월 23일 조윤숙 집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 2007년 12월 3~5일 부흥사경회(“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성도”, 목민교회 김동엽 목사), 2009년 2월 1일 일일 부흥회(설화영 사모), 2011년 2월 21~24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사경회(심재선 목사, 서울 회락교회) 등도 같은 맥락의 프로그램들이었다.

천-백-십-일 운동의 초창기가 부흥회나 전도 관련 세미나, 유명인 초청 행사 등을 통해 전도의 동기 유발에 집중하였다면, 2007년 이후로는 전도부 활동의 체계화를 통한 생활전도운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확인된다. 2007년 3월 전도부에서 이쭈시



병원 전도(2008년)

개와 팩 칼로 구성된 전도 용품을 구비하였고, 그 해부터 전도부원들이 매주 월요일 수병원 전도 활동을 시작하였다(전도부장: 박영숙 권사). 수병원 원장인 이병호 집사(현재 장로)와 원목 오세용 목사의 협조 아래, 환우 및 보호자와 함께 예배하기, 차 대접, 환자 위로, 말벗 되기 등을 통하여 우호적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었다.

2009년부터 전도부는 기존의 병원 전도 활동 외에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우선 전교인이 생활전도자(life-style evangelist)가 되자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천-백-십-일 운동’ 가운데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자고 하는 ‘일 운동’을 강조하면서 배너, 게시판, 인쇄물 등을 통해 전도의 중요성과 방법 등을 알렸다. 둘째, 전도 활동을 위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들을 준비하였다. 명함판 크기의 전도 카드, 교회를 소개하는 전도 리플릿, 소책자를 제작하여 전도에 활용토록 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 CD도 준비하였다. 셋째, 2009년 3월 2일부터 교회 앞마당 길옆에서 ‘예수님 사랑방’ 전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8년 권사회에서 시작했다가 중단된 노방전도 활



예수 사랑방(2009년)

동을 새롭게 시작한 것이었다. 몽골 텐트를 설치하고 커피 자판기와 영상홍보를 위한 CD 플레이어 그리고 브라운관 모니터를 설치하고 난로, 선풍기, 의자 등을 구비하여, 지나가는 이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전도 활동은 매주 월·화·목·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되었는데, 오전에는 전도부원이 담당하고 오후에는 여선교회원들이 요일별로 전도 활동을 담당하였다.

2) 지역교회 협력 선교

1986년 첫발을 뗀 농촌교회 협력선교는 1991년 농촌선교위원회의 출범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바 있다. 1990년까지 6개 교회였던 자매교회의 수가 1991년에는 12개 교회로, 1999년도에는 24개 교회까지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자치기관들



진안 물곡교회 방문 교류(2006년)



농촌목회자 초청 세미나(2008년)

과 교회학교까지 자매교회 방문 활동을 통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하는 전교회적 선교 활동이 되었다. 2000년대에는 이런 활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몇 가지의 노력을 가미하였다.

첫째, 방문 활동 이외의 교류 활동을 추진하였다. 우선 1997년 8월 11일까지 6회를 실시한 후 중단되었던 자매교회 목회자 부부 초청 세미나를 2001년 8월 27일과 2008년 8월 22일에 개최하였다. 함께 교제하고 농촌교회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2002년에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자매교회와 연합으로 진행하였다(7월 25~27일). 이 수련회에는 완주 금당, 완주 대승, 군산 광원, 남원 방동, 남원 방산, 진안 금양 등의 자매교회 청소년들이 함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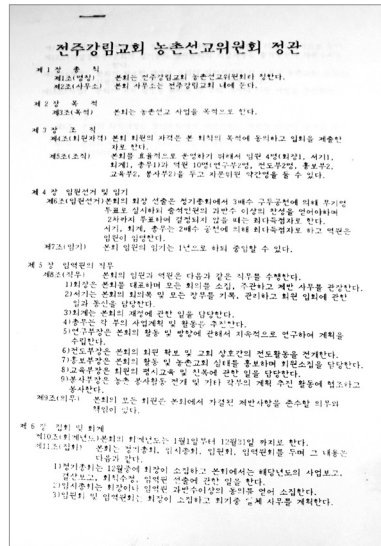
둘째, 협력선교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2004년 2월 1일 당회는 농촌선교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매교회 선정 및 지원 규정’을 채택하였다. 자매교회의 선정과 의무 사항, 지원 방법 등을 정리하였다. 2008년 11월 28일 정책당회에서는 그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지원 기간을 ‘5년 지원 후 필요에 따라

5년 추가 지원'으로 한정하고, 지원 금액의 범위를 월 10~30만 원으로 조정하며, 생활 지원비 외에 자매교회의 사업에 대해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2011년 8월 7일 당회는 자매 교회 지원 규정의 상위 근거가 되는 '농촌 선교위원회 회칙'을 승인하였다.

셋째, 도시지역 미자립교회까지 선교 협력의 범위에 포괄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시교회들이 성장 정체기에 들어서면서, 도시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자립교회들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 점을 반영하여 농촌선교위원회는 2010년부터 전주 지역의 미자립교회도 협력 선교의 파트너로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넷째, 여러 기관의 연계와 협력으로 농촌지역 봉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농촌선교위원회,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 의료선교위원회, 전도부, 대학부, 청년부가 함께 협력하여 의료 봉사와 이미용 봉사, 전도 활동을 통합한 농촌지역 봉사 활동을 기획하여 실행한 것이다. 2009년 11월 1일 최귀익 사회복지사의 총괄 아래 각 기관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15일 자매교회인 장수 원양교회를 거점으로 한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정형외과, 외과, 내과, 소아 청소년과 등의 양방 진료와 진맥, 뜸, 침 등의 한방 진료가 함께 이루어졌고, 이혈 치료, 발 마사지, 이미용 봉사 활동도 함께 결합되었다.

이를 위해 본교회의 각 기관이 함께 협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매교회인 원양교회가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 내의 홍보를 담당하는 등 매우 역동적인 협력 선교의 사례가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 의료 선교, 농촌 선교, 복음 전도 선교 등으로 제각기 역량을 축적한 선교 기관들이 한 현장, 한 프로그램 안에서 통합적으로 협력함으로



농촌선교위원회 정관



기관연합 농촌교회 봉사 활동(2011년)

써 좋은 통전적 선교 실천을 이루어 낸 일이었다. 2009년 53명의 봉사자가 참가하여 35명의 원양교회 성도와 150명의 지역주민들을 섬겼고, 2010년 11월 14일의 2년 차 사업에서는 35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원양교회로 찾아오는 성황을 이루었다. 3년 차인 2011년에는 8월로 시기를 변경하여 8월 21일에 진행하였다.

농촌선교위원회의 재정은 교회지원금, 농촌선교헌금, 각 기관의 보조금 등으로 형성되었다. 연도별 재정 규모는 2000년 31,701,793원, 2001년 28,570,678원, 2002년 28,202,166원, 2004년 29,174,669원, 2005년 34,271,639원, 2006년 32,705,979원, 2007년 35,891,649원, 2008년 30,204,919원, 2009년 29,532,899원, 2010년 30,284,919원, 2011년 28,271,879원이었다. 교회지원금은 연간 1,800만 원씩 지원되다가 2011년에는 1,2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농촌선교헌금의 경우 2004년 8,185,000원, 2005년 9,355,000원, 2006년 9,191,000원을 기록하였다. 기관 보조금의 규모를 보면 2004년 411만 원, 2005년 480만 원, 2006년 438만 원이었다. 지출 항목은 2005년의 예로 볼 때, 교역자 생활보조 2,410만 원, 장학지원 약 750만 원, 방문 활동

75만 원, 운영비 41만 원이었고, 연도별로는 자매교회의 숫자 등에 따라 항목별 지출 구조가 조금씩 달라졌다.

연도별 자매교회 현황(괄호 안은 담임 교역자)

• 2000년 : 24개 교회

진안 영광교회(이양재), 완주 운산교회(김동남), 완주 피묵교회(손부귀), 장수 신기교회(신정의), 남원 방동교회(최영철), 장수 원양교회(김재수), 군산 광원교회(이건희), 완주 금당교회(이화자), 완주 대승교회(홍옥현), 전주 나실교회(이희운), 순창 인계제일교회(백기성), 임실 운암교회(김진영), 진안 연평교회(강재희), 영동 조동교회(김진호), 남원 금지교회(박순동), 고창 생명샘교회(고창남), 장수 평촌교회(문영학), 임실제일교회(심상봉), 완주 승치교회(이혜선), 고창 월산교회(허민), 진안 물곡교회(안양호), 진안 금양교회(이춘식), 장수 충성교회(윤동한), 영광 묘량교회(김정미)

• 2004년 : 21개 교회

고창 등대교회(장명수), 운산교회(김동남), 고창 월산교회(허민), 군산 광원교회(이건희), 완주 대승교회(홍옥현), 순창 인계제일교회(최용승), 임실 운암교회(김진영), 장수 신기교회(신정의), 남원 금지교회(정성기), 고창 생명샘교회(고창남), 장수 평촌교회(문영학), 진안 물곡교회(안양호), 임실제일교회(심상봉), 남원 방동교회(최영철), 장수 원양교회(김재수), 완주 승치교회(이혜선), 장수 충성교회(윤동한), 진안 금양교회(이춘식), 완주 금당교회(이화자), 남원 베엘교회(김광열), 영동 조동교회(고병채)

• 2005년 : 21개 교회

고창 등대교회(장명수), 운산교회(김동남), 고창 월산교회(허민), 임실 평탄교회(이기철), 장수 삼고교회(이제순), 임실 진중제일교회(이광우), 남원 한마음베엘교회(김광열), 순창 인계제일교회(최용승), 임실 운암교회(김진영), 장수 신기교회(신정의), 영동 조동교회(고병채), 남원 금지교회(정성기), 고창 생명샘교회(고창남),

장수 평촌교회(문영학), 진안 물곡교회(안양호), 시흥 새순교회(이영식), 진안 소태정교회(조철규), 장수 원양교회(김재수), 완주 승치교회(이혜선), 대전 샘터교회(전광희), 진안 금양교회(이춘식)

• 2006년 : 17개 교회

고창 등대교회(장명수), 완주 운산교회(김동남), 고창 월산교회(허민), 임실 평탄교회(이기철), 장수 삼고교회(이제순), 임실 진중제일교회(이광우), 남원 한마음벤엘교회(김광열), 순창 인계제일교회(최용승), 임실 운암교회(김진영), 장수 신기교회(신정의), 고창 생명샘교회(고창남), 장수 평촌교회(문영학), 진안 물곡교회(안양호), 진안 소태정교회(조철규), 장수 원양교회(김재수), 완주 승치교회(이혜선), 무주 장안교회(홍철원)

• 2007년 : 19개 교회

고창 등대교회(장명수), 완주 운산교회(김동남), 고창 월산교회(허민), 임실 평탄교회(이기철), 장수 삼고교회(이제순), 임실 진중제일교회(이광우), 남원 한마음벤엘교회(김광열), 순창 인계제일교회(최용승), 임실 운암교회(김진영), 장수 신기교회(신정의), 고창 생명샘교회(고창남), 장수 평촌교회(문영학), 진안 물곡교회(안양호), 장수 원양교회(김재수), 완주 승치교회(이혜선), 무주 장안교회(홍철원), 장수 쌍계교회(고성필), 남원 낙원교회(엄상호), 완주 산북교회(조찬호)

• 2010년 : 19개 교회

고창 등대교회(장명수), 완주 운산교회(김동남), 임실 평탄교회(이기철), 장수 삼고교회(이제순), 임실 진중제일교회(이광우), 남원 한마음벤엘교회(김광열), 고창 생명샘교회(고창남), 장수 평촌교회(문영학), 장수 원양교회(김재수), 완주 승치교회(이혜선), 무주 장안교회(홍철원), 장수 쌍계교회(고성필), 남원 낙원교회(엄상호), 임실 사곡교회(김성준), 전주 주소망교회(강훈식), 전주 한마음교회(주건국), 전주 미송교회(오서기), 전주 포도원교회(백종범), 완주 하늘샘교회(오재호)

• 2011년 : 19개 교회

고창 등대교회(장명수), 장수 삼고교회(이제순), 임실 진중제일교회(이광우), 남원

한마음벤엘교회(김광열), 고창 생명샘교회(고창남), 장수 원양교회(김재수), 완주 승치교회(이혜선), 무주 장안교회(홍철원), 장수 쌍계교회(고성필), 남원 낙원교회(엄상호), 임실 사곡교회(김성준), 전주 주소망교회(강훈식), 전주 한마음교회(주건국), 전주 미송교회(오서기), 전주 포도원교회(백종범), 완주 하늘샘교회(오재호), 전주 좋은이웃교회(성민식), 전주 온누리교회(박종석), 전주 기쁨샘교회(박영희)

3) 해외·타문화권 선교

그동안 선교부를 중심으로 전개해 오던 해외 선교 사업이 2001년부터 ‘해외선교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었다. 1995년 개척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러시아의 모스크바 제7교회와 뿌라홀라드니교회에 대한 지원은 2002년에 중단되었다. 2002년 2월 17일 당회에, 모스크바 제7교회 담당 교역자 아르베긴 예브게니(젠야)가 침례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아 교회의 교단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집안 전체가 침례교회 목회자 집안이라 장로교회 목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당회는 러시아 선교회에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2002년 8월 4일 당회에서 모스크바 제7교회와 뿌라홀라드니교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해외 선교는 지원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속되었다. 2006년 6월 24~30일에는 대학부 학생들이 필리핀 레이테 산사태 지역 봉사활동으로 단기선교에 나서기도 했고, 2009년 10월에는 필리핀 선교지 지원을 위한 바자회가 열리기도 했다. 해외 선교 부문의 연도별 집행 내역은 2000년 4곳 1,140만 원, 2001년 4곳 1,108만 원, 2002년 5곳 475만 원, 2003년 4곳 415만 원, 2004년 8곳 990만 원, 2005년 10곳 1,230만 원, 2006년 7곳 800만 원, 2007년 8곳 900만 원, 2008년 8곳 680만 원, 2009년 10곳 1,290만 원, 2010년 10곳 1,061만 원, 2011년 11곳 2,640만 원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 해외 선교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2011년 교회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최재룡 목사를 케냐 마사이족 선교사로 3년간 파송한 일이다.

2010년 12월 12일 당회에서 결의하고 2011년 2월 20일 파송예배를 드렸다(설교 김하웅 목사, 찬사 임희모 교수).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는 첫 사례였다. 최재룡牧사는 전주장림교회 파송선교사로서 케냐 남부 탄자니아와의 접경 나망가 지역에 있는 A.I.C(Africa Inland Church) 사마리아 미션(김동희·이문호 선교사)의 Mission Designer로 활동하며 다음과 같은 성과들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첫째, 사마리아 미션의 선교 역사를 정리하고 그 활동을 네 개의 분야로 구획하여 체계화하였다. 복음 전도 선교(교회), 교육 선교(학교), 보건 및 복지 선교(교아원, 보건소 등), 지역사회개발 선교(우물, 농장 등) 분야였다.

둘째, 사마리아 미션의 중장기적 선교 과제를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 조직과 재정을 구조화하였다. 이에 따라 사마리아 미션은 해당 지역에 마사이족이 주도하는 선교적 기독교 신앙공동체를 남기는 것을 선교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복음 전도 선교, 교육 선교, 보건 및 복지 선교, 지역사회개발 선교 각 분야에서 지역 출신의 스태프들이 미션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직과 재정을 분립하고 책임자들을 선임하여 권한을 위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한국의 특수교육 교사들로 구성된 국제개발 NGO 그린티처스를 통해 KOICA(한국국제개발협력단)와 결연하여 마사이 여성 문해교육 및 농업 기술 보급을 통한 지역개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다.

셋째, 미션 스쿨의 커리큘럼에 “마사이의 역사와 전통문화” 과목을 신설하였다. 마사이어 성경을 기본 텍스트로 하면서 마사이의 역사를 가르치고, 경우에 따라 마을의 장로들을 초빙하여 마사이의 전통문화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학생들 안에서 성서 이야기와 마사이의 역사 경험 그리고 마사이 전통문화가 창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선교 과정에서 파괴되기 쉬운 전통문화가 기독교 복음을 통해 재해석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이었다.

넷째, 유목민인 마사이족의 생활구조를 감안하여 센터형 예배당과 간이 예배당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센터 이외의 예배당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전통 건축법에 따라 스스로 작은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하고 미션에서는 목회



케냐 메사나니지역에 세워진 소똥집 예배당과 교인들

자만 과송하는 방식이었다. 현지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면서 복음의 신속한 확산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적용으로 3개 처의 교회가 신속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 에스테티 지역에 초등학교 강당을 겸한 센터형 예배당 건물을 짓고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인근 지역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가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 에마오이지역의 미션센터 인근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전통 가옥인 ‘소똥집’의 방식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손쉽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 연도별 현황

• 2000년 - 4곳

남미 볼리비아 브니엘교회(방파), 러시아 모스크바 제7교회, 러시아 뽀라홀라 드니교회, 네팔신학교 이춘심

• 2001년 – 4곳

러시아 모스크바 제7교회, 러시아 뿌라홀라드니교회, 방파선교회, 네팔신학교 이춘심

• 2002년 – 5곳

러시아 모스크바 제7교회, 러시아 뿌라홀라드니교회, 인도 이희운, 중국 이정호, 뉴질랜드 서성광

• 2003년 – 4곳

러시아 이소영, 네팔 이춘심, 필리핀 유준수

• 2004년 – 8곳

러시아 이소영, 헝가리 이혜돈, 케냐 김동희, 몽골 국제대학 김승수, 네팔 이춘심, 중국 김요셉, 중국 CCC 이정호, 탄자니아 조강식

• 2005년 – 10곳

러시아 이소영, 헝가리 이혜돈, 케냐 김동희, 몽골 국제대학 김승수, 인도 이희운, 중국 북경 이정호(CCC), 태국 송태규, 네팔 이춘심, 중국 귀주 김요셉(김동석), 탄자니아 조강식

• 2006년 – 7곳

러시아 이소영, 헝가리 이혜돈, 케냐 김동희, 몽골 국제대학 김승수, 인도 이희운, 뉴질랜드 서성광, 방파선교회

• 2007년 – 9곳

러시아 이소영, 헝가리 이혜돈, 케냐 김동희, 몽골 국제대학 김승수, 인도 이희운, 뉴질랜드 서성광, 방파선교회, 태국 조여익, 필리핀 유준수

• 2008년 – 8곳

헝가리 이혜돈, 몽골 국제대학 김승수, 케냐 김동희, 인도 이희운, 뉴질랜드 서성광, 태국 조여익, 필리핀 유준수, 방파선교회

• 2009년 – 10곳

헝가리 이혜돈, 몽골 국제대학 김승수, 케냐 김동희, 케냐 김주옥, 인도 이희운,

뉴질랜드 서성광, 태국 조여익, 필리핀 유준수, 방파선교회, 신총선교회

• 2010년 - 10곳

헝가리 이해돈, 몽골 국제대학 김승수, 케냐 김동희, 케냐 정인숙, 인도 이희운,
뉴질랜드 서성광, 태국 조여익, 필리핀 유준수, 방파선교회, 신총선교회

• 2011년 - 11곳

헝가리 이해돈, 케냐 김동희, 케냐 최재룡, 인도 이희운, 뉴질랜드 서성광, 태국
조여익, 필리핀 유준수, 방파선교회, 신총선교회, 인도 정광명, 필리핀 김정운

4) 지역사회 봉사 선교

(1) 지역사회사랑위원회에서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으로

1991년 조직된 ‘지역사랑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해 오던 지역사회 봉사 선교는 이 시기 들어 급격히 재구조화되었다. 우선, 일부 활동들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의료재가복지, 목회간호, 암선교 활동 등의 의료 선교 활동을 분립하여 ‘의료선교위원회’를 조직하였다(위원장 조귀자, 담당교역자 서경자, 자문의사 온호섭). 2002년에는 ‘장학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장학사업 역시 분립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사회 봉사 선교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의료 선교 활동과 장학사업이 각각의 조직을 통해 더욱 확장되고 체계화되었으며, 지역사회사랑위원회는 복지 활동 방향으로 더욱 전문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2002년 2월 10일 ‘기독교사회복지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위원: 홍철원 황경주 류시영 양기영 이한규 송운용 최규익 박영혜 원지현), 그 논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역사회사랑위원회와 의료선교위원회의 활동을 통합하여 2003년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을 출범시키고 노인대학과 파란하늘어린이집을 함께 관장토록 하였다(이사장: 양인석 목사, 운영위원장: 황경주 장로). 출범 당시의 강림

기독교사회복지재단은 ‘운영위원회’가 전체를 총괄하는 가운데, 지역복지위원회가 기존 지역사랑위원회의 사업을 이어받아 재단 직영 사업들을 담당토록 하고, 의료선교위원회는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며, 노인대학과 파란하늘어린이집을 부설 기관으로 두었다. 2005년 11월 13일 ‘새날지역아동센터’(이후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로 변경)를 재단 산하기관으로 설립하였다(센터장 : 최규익, 사회복지사 : 박금녀). 2008년 1월 13일에는 최규익 집사(현재 목사)를 전임 사회복지사로 임명하여 재단의 사무와 사업 전반을 총괄토록 하였다.

재정은 교회의 지원금, 지역선교헌금, 암선교헌금,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고, 각각의 사업 분야별 자체 수입원을 발굴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일례로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와 파란하늘어린이집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부터의 보조금이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파란하늘어린이집은 원비가 또 하나의 큰 부분을 이룬다. 지역사랑위원회로 운영되었던 2000년의 경우, 총 재정 규모는 교회지원금 680만 원을 포함한 15,503,239원이었다. 이를 극빈자 보호 300만 원, 불우이웃돕기 304만 원, 장학지원 255만 원, 경로잔치 385만 2,820원, 김장 지원 20가정 60만 원, 한글학교 30만 원, 행려자 구제 28만 6천 원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듬해에도 재정 규모와 지출 항목은 유사하였다.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으로 전환한 후인 2007년 이후의 상황을 일부 보면 아래와 같다. 이를 집행한 사업 내용은 사업 내용을 어르신 돌봄 사업, 의료 선교, 아동 보육 사업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 연도별 재정 추이

- 2007년 : 재단 직영 재정 총액 57,333,000원 / 교회지원금 37,500,000원 / 지역선교헌금 7,345,000원 / 암선교헌금 9,606,000원
- 2008년 : 재단 직영 재정 총액 56,374,000원 / 교회지원금 34,000,000원 / 지역선교헌금 7,525,000원 / 암선교헌금 11,115,000원
- 2009년 : 재단 직영 재정 총액 61,457,000원 / 교회지원금 35,950,000원 / 지역선교헌금 7,950,000원 / 암선교헌금 12,506,000원

- 2011년 : 재단 직영 재정 총액 71,187,000원 / 교회지원금 36,200,000원 / 지역선교헌금 8,660,000원 / 암선교헌금 13,211,000원

(2) 어르신 돌봄 사업: 경로잔치, 강림경로선교대학

금암지역 노인초청 경로잔치는 1992년 4월 30일에 처음 시작된 바 있었다. 이어 1993년부터 2006년까지는 금암2동 동사무소와의 공동 개최로 14년 동안 진행되었다. 2007년부터는 동사무소가 노인잔치를 단독 행사로 개최함에 따라, 같은 성격의 행사를 중복하여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경로잔치 행사는 2006년을 끝으로 중단하였다. 이 경로잔치는 교회와 지역 관공서가 협력하여 지역의 잔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14년 동안 이어왔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선교의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경로잔치는 2000년 8월 13일, 2001년 10월 13일, 2002년 10월 5일, 2003년 10월 11일, 2004년 10월 8일, 2005년 10월 14일, 2006년 10월 12일에 교회 앞



경로잔치 식사 모습(2006년)



강림경로선교대학 현판식

마당에서 진행되었다. 마지막 경로잔치가 된 2006년의 경우로 보면, 어르신 450명, 봉사자 50명, 내빈 50명, 공연 출연자 50명 등 총 600명 규모의 행사였다. 행사 비용은 식비 260만 원, 선물 및 시상비 190만 원 등 총 600만 원이 소요되었다. 행사 내용을 보면, 개회식에 이어 파란하늘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인사와 시립 국악단의 축하 공연이 있었다. 이어서 점심식사를 한 후 풍물 및 각설이 타령 공연, 장기자랑, 들불 풍물패와 함께하는 농악 한마당 등을 벌이고 마무리하였다.

1993년 시작된 강림노인대학은 2006년에 이르러 한 차례의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강림경로선교대학’으로 변경된 것이다. 단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었다. 그 동안 지역 노인들에게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던 것에서, 예배와 말씀이 있는 신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다. 이미 지역사회 안에 노인 여가 시설들이 충분히 증가해 있었고, 본 교회 교우들 가운데 노령자가 크게 증가한 상황을 고려한 전환이었다. 이에 따라 모임을 수요일 오전으로 변경하고, 수요성서학교 오전반을 겸한 예배로 시작하여 주별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점심 식사 후 폐하는



강림경로선교대학 봄소풍(2009년)

운영방식으로 2006년 3월 29일 개강하였다. 이러한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노인들과 본교회의 모세·한나회 회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로 바뀌면서, 입학생 수는 2005년 160명에서 2006년 70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7년 75명, 2008년 90명, 2009년 90명, 2010년 125명, 2011년 92명 등 내실이 만들어져 갔다. ‘강림노인대학’ 시절의 연도별 등록자 수는 2000년 230명, 2001년 210명, 2002년 187명, 2003년 150명, 2004년 180명, 2005년 160명이었다.

재정 상황을 보면, 강림노인대학으로 운영되던 2001년의 총 재정 규모는 1,073만 4,036원이었고, 그 가운데 교회 보조금이 800만 원, 등록금이 193만 원이었다. 강림경로선교대학으로 전환된 후로는 2006년 1,150만 원 중 교회지원금 1천만 원, 2007년 1,651만 1천 원 중 교회지원금 1천만 원, 2008년 1,105만 원 중 교회지원금 950만 원, 2009년 1,250만 2천 원 중 교회지원금 1,095만 원, 2011년 1,470만 2천 원 중 교회지원금 1,320만 원이었다. 2006년의 예로 보면, 이 재정은 강사료 175만원, 식사비 360만 원, 간식비 48만 원, 생일 축하 54만 원, 교육관리비 60만 원, 교육비 48만

원, 행사비 380만 원 등으로 사용되었다.

2006년 기준으로 설교는 양인석 목사가 “종교와 인생”을 주제로, 정복량 목사(전주전성교회 원로목사)가 “행복한 삶”을 주제로, 염용택 목사(전주완산교회 원로목사)가 “준비하는 삶”을 주제로 담당하였으며, 레크리에이션(김정태 전도사), 종이 공작(박금녀 전도사), 요가(강성곤 장로), 생일 축하, 수학여행, 매주 식사 등으로 운영되었다. 2010년의 특별 활동 프로그램을 보면 신바람 노래교실(양병택), 실버댄스(동선옥), 요가(강성곤), 이혈 치료 및 발 마사지(의료선교위원회), 영화 감상, 노인 정신건강(황경주), 성경 판소리(김선우 목사), 웃음 치료(전석진), 풍선 아트(백미숙) 등이었다. 통상 3~6월, 9~11월로 나뉘어 연간 두 학기로 운영하였고, 2010년부터는 방학 없이 운영하였다. 해마다 소풍 행사도 있었다. 주요 방문지로는 2000년 여수 오동도, 2002년 목포 해양박물관 및 향토박물관, 2004년 남해대교 및 섬진강, 2006년 일산 세계 꽃 축제, 2010년 안면도 휴양림 등이 있었다.



강림경로선교대학 교사들(2010년)

(3) 의료 선교

지역사랑위원회 산하에서 이루어지던 의료 선교 활동이 1999년부터 ‘의료선교위원회’로 분립, 조직화되었다(위원장 조귀자, 담당교역자 서경자, 자문의사 온호섭). 1996년부터 시작된 목회간호와 재가의료복지 그리고 1997년부터 본격화된 암환자 지원 활동을 통합하면서, 의료 선교 활동의 전문성을



재가의료복지 활동(2008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분화였다. 2003년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이 출범하면서, 의료선교위원회는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의 산하 기구로 들어가게 되었다. 의료선교 기구로서의 고유 활동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되, 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지역사회 봉사라고 하는 틀 안에서 활동하도록 한 것이다. 2004년 10월 3일에는 예수간호대학(현 예수대학)과 목회간호 파트너십을 맺고 봉사자 교육 등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의료선교위원회의 재정은 교회 지원금과 ‘암선교헌금’을 수입으로 하여 운용되었다. 교회 지원금은 2007년까지 매년 500만 원 내외로 지원되었고, 2008년 이후로는 교회 재정으로부터의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 교회 재정 지원금은 주로 기관 후원금으로 지출되었다. 2000년 580만 6천 원으로 시작한 재정 규모가 2004년에는 1,608만 2,660원으로 성장하였고, 2011년에는 교회 지원금이 없음에도 1,637만 7천 원의 재정 규모에 이르렀다.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출은 기관 후원 500만 원(예수병원 암환자 후원 240만 원, 아름다운집 후원 100만 원, 사랑샘터 후원 100만 원, 작은자의자립센터 후원 60만 원), 지역 및 교회 내 환자 지원 1,015만여 원(암환자 후원 440만 원, 환자 심방비

70만 원, 재가 환자 후원 351만 원, 저소득가정 장기환자 지원 150만 원, 건강 체크 10만 1600원)이었고 그 외에 교육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활동 내용은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의료적 돌봄과 복지적 돌봄을 결합한 의료복지 활동이다. 금암2동 동사무소와 협력하면서 지역의 저소득층 장기 환자들에게는 가정당 연 40만 원씩을 지원하고, 암환자들에게는 연간 50만 원씩을 지원하였다. 또한 찾아가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 말벗 되기, 청소, 식사 도우미, 병원 동행, 머리 손질, 목욕 봉사, 운동 돕기, 손발톱 다듬기, 전문 기관과의 연결 등의 방문 봉사 활동을 하였다.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고, 종종 환자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가는 활동도 있었다.

둘째, 건강 검진 활동이다.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 후 당뇨, 혈압측정 및 의료 상담과 같은 건강 체크 봉사가 계속되었다. 2001년 6월 14일과 2002년 6월 8일에는 서울 성모병원과의 협력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건강 검진 봉사를 하였고, 2002년 11월 21일에는 선교부와의 협력 사업으로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하였다. 2009년 1월 13일에는 ‘전북 사상체질 감별학회’와 협력으로 체질 감별 및 한방 치료 봉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시설 방문 봉사활동이다. 1998년 시작된 ‘사랑과 평화의 집’ 방문 봉사 활동이 2002년까지 매월 실시되었다. 2003년에는 봉사 기관이 ‘예수 재활원’으로 변경되었고, 2004년부터는 중단되었다.

넷째, 보건의료와 관련한 교육과 특강들을 개설하였다. 2000년 김임 신경정신과 원장, 2001년 예수간호대 정정숙 교수와 이병호 집사, 2002년 은홍배 박사(“청소년 심리 이해”)와 손인경 박사(“할렐루야 건강법”), 2003년 차영남 예수간호대 교수(정신건강 특강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2004년 이병호 집사(“골다공증과 노인성 질환”)와 예수간호대 김강미자 교수(“암 예방과 암환자 가정 간호”), 2005년 김임 신경정신과 원장(“갱년기 우울증 그리고 내적 치유”), 2007년 최진희 수병원 내과 전문의(“성인성 질환과 예방 관리”), 2009년 주병진 예수병원 국제 의료협력단 사무총장(“한국 의료선교의 역사”) 등의 특강이 있었다.

한편, 2007년에는 이갑재 교수(이귀형 집사 아들)를 강사로 하여 4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12주 과정으로 “이혈 건강 요법” 강좌를 개설하여 의료 선교 봉사자들을 비롯한 교인들에게 건강 관리 교육을 제공하였다. 의료 선교 봉사자들은 예수간호대학의 목회간호자원봉사자 교육, 예수병원의 호스피스 교육, 발 마사지 교육(강사: 김애자) 등을 이수하였다.

(4) 아동 보육 사업: 파란하늘어린이집,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

1996년 선교원으로 시작하고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전주강림교회 부설기관으로 자리 잡은 파란하늘어린이집은 이 시기 들어 교회와 지역의 영유아들을 길러내는 요람으로 든든히 서게 되었다. 2005년 결산 내용을 보면, 파란하늘어린이집의 재정은 보육료 1억 307만 5천 원, 정부 보조금 1억 3,214만 2620원, 교회 보조금 1980만 원 등 총 2억 5974만 6023원의 규모로 운영되었다. 2006년 5월 기준으로 전주강림교회부설 파란하늘어린이집의 정원은 3세 5명, 4세 14명, 5세 20명, 6세 20명, 7세 20명으로 총 79명이었고, 재적 인원은 3세 6명, 4세 12명, 5세 16명, 6세 15명, 7세 20명이었다. 이 어린이들을 원장 1명(원지현), 보육교사 6명(이혜정, 김현경, 장현희, 황은성, 신민선, 신송춘), 총무 1명(안진희), 취사 1명의 인원으로 돌보았다. 한편, 2003년 3월 9일 당회는 파란하늘어린이집의 운영 주체를 운영위원회에서 당회로 변경하였다.

2005년 11월 13일 ‘새날지역아동센터’를 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 부설기관으로 개설함으로써, 지역 아동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



파란하늘어린이집 농사 체험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 활동 모습(2006년)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 나들이(2009년)

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새날지역아동센터는 김정태 전도사가 2005년 2월 7일에 개설하였던 것을, 2005년 11월 3일 정책당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사업 제안을 승인하여 교회가 인수하게 된 것이었다. 2005년 11월 13일 개원 예배를 드리고, 2006년 1월 20일 운영위원회 조직 모임을 가졌다(위원장: 양인석, 위원: 최찬욱 황경주 이한규 강병량 박영혜 성기봉 김종희 최규익, 간사: 박금녀). 2006년 2월 8일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센터장은 최규익 집사(현재 목사), 생활복지사는 박금녀 전도사가 담당하였다. 박금녀 전도사는 2010년 9월 30일까지 실무를 담당하고 사임하였다.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건전한 놀이 및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방과 후의 아동들에게 안전한 활동 공간과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놀이 활동, 문화 활동, 자기계발 활동, 학습 지도, 생활지도 등의 프로그램들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을 위해 교회에서는 매년 1,800만 원씩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하고, 교인들이 후원금, 물품 기부, 재능 기부 등을 통해 협력하였다. 이를 밑거름 삼아 20여 명의 아동을 돌보았다. 자체적인 모금 활동과 지방비 및 국비 보조금

등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2007년 6,101만여 원이었던 총 재정 규모가 2011년에는 9,239만 원까지 성장하면서 제공하는 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5) 인재양성 선교

(1) 장학사업: 전주강림장학재단

2002년 2월 3일 당회에서 장학위원회가 처음으로 조직되고 2월 10일 주보에 그 내용이 게시되었다(위원장 : 진교현, 위원 : 권이철 강성곤 안송엽 이희성 은호섭 이병호 허용욱 김영선 박용규 정혜선 김신수 이선옥 정국양 오여성). 2000년 3월 4일 당회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안송엽 장로에게 초안을 작성토록 맡긴 데서 출발한 결실이었다. 장학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장학사업은 지역사랑위원회에서 관장하면서 매년 필요한 이들을 찾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장학사업을 지역사랑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장학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복지’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 인재 양성’의 관점에서 장학사업을 펴나가게 되었다. 당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장



장학금 수여식 장면(2010년)

학위원회가 2003년에는 ‘강림장학재단’으로 전환되면서 담임목사가 당연직 이사장을 맡고 실질적으로는 운영위원장이 이끌어가는 구조를 택하였다.

2003년 처음 작성된 장학금 지급 세칙은 연 2회(2월, 8월)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중·고등부와 대학부 학생, 신학생, 유학생으로 선발 대상을 구분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 학업 성적, 가정 형편 등을 선발 기준으로 정하였다. 선발 인원과 지급액은 특정하지 않고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학재단 정관이 2006년 1월 22일 작성되었고, 2006년 7월 16일의 개정을 통하여 지급 세칙을 별도 작성토록 하였다. 별도로 작성된 지급 세칙에서는 장학생 선발 기준을 경제적 사유와 성적 우수자로 구분하고, 그 세부 요건을 규정하였다. 고등부 학생과 타교회 학생(고등학생)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대학부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외에 성적 장학금(최우수, 우수, 장려)을 두었다.

장학기금은 교회 지원금과 장학회원들의 회비 그리고 성도들의 장학선교헌금으로 조성하였다. 2002년 700여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명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03년 4명 400만 원, 2004년 12명 900만 원, 2005년 19명 1,600만 원, 2006년 23명 1,850만 원, 2007년 28명 2,300만 원, 2008년 18명 1,600만 원, 2009년 24명 2,050만 원, 2010년 27명 2,510만 원, 2011년 22명 1,9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누적으로는 2011년까지 174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총 1억 4,83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2)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 해외어학연수원

2004년 3월 28일 교회발전위원회(위원장: 안송엽 장로)는 어학연수생(1년)과 유학생(2년)에게 미국 L.A 현지 숙소를 지원하는 ‘유학생 장학사업 기획안’을 당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2003년부터 그 계획이 논의된 바를 구체화한 것이었으므로, 그 계획이 승인되었고, 2004년 4월 4일 설명회를 거쳐 4월 11일부터 해외어학연수 장학생 모집 광고가 시작되었다.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해외연수 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이 2004년 6월 6일에 1차로 마련되고, 그에 대한 수정안이 9월 5일에 채택됨으로써 사업 진행의 토대가 놓였다. 2004년 7월 4일 당회는 1기 어학연수 장학생(김성호, 안효열) 선발을 승인하였고, 9월 16일 김성호, 안효열 두 청년이 미국 L.A로 떠남으로써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후



LA 장학숙에서 생활하는 어학연수 학생들

2005년 이종성, 김화진, 이은철, 2006년 은하나, 2007년 김성식, 양귀희, 2009년 장현욱, 박재용, 반기리 등으로 해외어학연수 장학생 선발이 이어졌다.

교회발전위원회에서 시작한 이 사업의 담당 기관으로 '해외어학연수원'이 2006년 강림장학재단 산하에 설치되었다(원장: 원도연 집사). 2007년에는 이를 강림장학재단으로부터 독립된 교회 부설기관으로 지정하고 '해외어학연수센터'로 개칭하였다(센터장: 이감철 집사). 해외어학연수생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2009년부터 미국에 장학숙을 마련하는 일이 논의된 끝에 2010년 2월 17일 L.A에 장학숙 건물을 매입하였다(123 South Ardmore Ave, Los Angeles, CA90004, USA). 이를 계기로 하여 어학연수생 지원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고, 2011년부터는 해외어학연수센터를 '해외어학연수원'으로 명칭 변경하였다(원장: 김구태 집사).

해외어학연수 지원 사업에서 하나의 큰 분수령을 이룬 것이 2010년의 장학숙 마련이었다. 장학숙 건물을 매입하고 정비하는 일은 당시 교회발전위원장이었던 안송엽 장로가 담당하였다. 미국 장학숙 건물은 8,000평방피트(약 225평)의 대지에 지어진 2,011평방피트(약 56.5평) 건평의 2층 건물로 1층과 2층에 각각 방 3개, 화장실 2개,

식당 1개가 갖추어져 있어서 많은 학생이 함께 기거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보다 많은 청년을 어학연수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보낼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7월에 4명(선호영 한음 백효나 성은실), 10월에 8명(백준석 최종명 이명현 이강서 최민선 김지성 고명신 최진)을 어학연수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2011년에도 6월에 3명(추은지 추다혜 이환희), 10월에 5명(김종혁 서동일 성현 류종일 류종천)을 선발하였다. 2004~2009년까지 6년 동안 어학연수 장학생의 총 수가 11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훨씬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장학숙 거주자가 많아짐에 따라 생활 관리를 위해 ‘미국 강림장학숙 생활규칙’을 제정하여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한편,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해외어학연수센터 사업으로 시행되었다. 1기는 2007년 7월 10~29일 안민권, 김화진, 강경희, 이종성 4명의 대학생이 민도르섬 김귀환 선교사의 선교센터로 파견되었다. 첫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2기부터는 유준수 선교사와의 협력으로 바기오 및 산페르난도 지역에서 겨울방학



필리핀 비전트립(2014년)

기간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2008년 1월 17~31일 바기오 시각 장애인 학교에서 진행된 2기 단기 어학연수에는 8명(안미정 유지은 박태형 반석 최지혜 강성주 송지원 양민천)이 참가하여 1기에 비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3기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2010년 1월 11~30일에 진행되었다(선호영 성은실 김가빈 김수빈 김강석 이효진 황보미 남다솔).

(3) 역량 개발 지원사업: 크리스천진학연구소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크리스천진학연구소는, 교회 내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진학 및 진로에 관한 정보와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독교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7월 3일 설립되었다. 크리스천진학연구소는 이후로 청소년들의 진학과 진로에 관한 강좌와 상담, 비전 찾기 및 동기부여를 위한 기회들을 마련하였다.

상담 이외의 여러 특강 프로그램들도 진행하였다. 2006년에는 대입제도 설명회(1.22), 2007년에는 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특강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편 / 행복한 가정의 사랑 이야기” (12.30, 김용기 충북대 천문우주학교 교수), 2008년 청소년 특강 “꿈을 이루려면” (6.29, 정신과 전문의 박재상 원장), “김석봉 전도사의 소망 이야기” (12.21, 석봉 토스트 김석봉 전도사), 2010년 “2011학년도 고입·대입 입시제도의 이해와 성공적인 학습전략을 위한 특강” (9.5, 신정균 전북 과학고 교감, 한방수 신흥고 연구부장), 2011년에는 “수시 전형의 이해와 지원의 실제” (8.14, 한방수 전북진학지원단 고문) “삶을 풍성하게 하는 문학 이야기” (8.14, 이동희 전북문인협회 회장) 등이었다. 한편, 2011년부터는 법조, 교육, 의료, 행정, 사업, 서비스 등 교회 내의 전문 분야 종사자들을 멘토 그룹으로 선정하여, 청소년들이 관심 분야의 현직 전문가들과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멘토링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5년 12월 24일 당회에 ‘강림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자고 하는 제안서가 제출되었다(제안자: 안송엽, 반정수). 교회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 청소년 선교와 청소년 문화 형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진로 특강(2006년)

당회는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실험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기관 설립으로 나아가기로 하였다. 배정된 기초 예산을 토대로 2006년 한 해 동안 기독교 역사 유적지 탐방(2.25, 제암리교

회), 전통예절 및 다례 교육(3.18~5.20 매주 토요일, 4·5·6학년, 강옥수), 탁구교실(4~10월, 안진상 주용환), 인간관계훈련(4.8~6.24), 독서논술 지도(4.22~7.9 토요일 격주, 필리핀 레이테 산사태 구호 지원 활동(6.24~30, 청년부), 리더십 훈련(9.9~11.15), 영어성경회화 강좌(10.1~12.31 주일 오후 1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006년의 실험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2007년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교회 부설기관의 하나로 개설되었다.

2007년에는 신앙교육 세미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4.1, 한일장신대 박화경 교수), 천연염색 & 다례 교육(5월, 강옥수), 청소년 초청 문화 콘서트 ‘자유와 하나’(8.15), 부모 신앙교육 세미나(10.21), “별도 보고 신앙훈련도 하고”(11.17~18, 남원 산동면 만행산 천문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08년에도 문화기행(2.23, 강진 다산초당, 대학부), 기독교 역사 유적지 탐방(2.24, 양화진 선교사 묘역), 전통예절·다례·천연염색 체험활동(강옥수), 자연체험학교(5월), 갯벌체험활동(6월), 도자기체험학습(8월), 숲골 유가공 치즈 체험(10월) 등이 이어졌다. 2009년에는 ‘설맞이 우리 옷 바르게 입기와 절하기’ 특강(1.17, 강옥수), 초등부 드럼 강좌(3개월 과정, 김민성), 유소년 축구단 활동(놀토 프로그램), 영어 회화반(주일 오후) 등을 개설하였다.

2010년에는 전통예절 특강 “한복입고 세배하자”(2.7, 강옥수), 부모님과 함께 하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염색 체험

는 성막 체험(2.27, 평택 세계성막복음센터), 드럼 및 기타 강좌, 가족과 함께 하는 지리산 둘레길 걷기(11.13, 15가정 46명 참가),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11.20, 5가정+대학·청년·중·고등부) 등의 활동이 있었다. 특히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학부모를 위한 특별 강좌’를 4주 간에 걸쳐 수요성서학교 시간에 개설하였다. “좋은 부모 되기”(5.5, 한은경 : 두란노 어머니학교 본부장), “아이들의 종교교육”(5.12, 박화경 : 한일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 “아이들의 미디어 교육”(5.19, 장세희 : 참교육 학부모회 미디어 강사), “새로운 교육을 향하여—핀란드의 사례”(5.26, 안승문 : 한국·핀란드 교육교류협회 설립 추진위원장) 등이 그 내용이었다. 학부모를 위한 특별 강좌는 2011년 5월에도 있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길”(5.11, 이은순 교수), “자녀들과 대화하는 법”(5.18, 김충렬 교수), “다중지능과 개인차 존중 교육”(5.25, 온기찬 교수) 등의 내용이었다. 그 외에도 전통예절 특강 “한복 입고 세배하자”(1.30, 강옥수), 사랑의 연탄나눔(11.26)이 있었다.

4. 목회

1) 목회 상황 개관

안창엽 목사 소천 후 예배 인도와 설교는 부목사인 온성진 목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2000년 10월 17일 온성전 목사가 사임한 후부터 2001년 2월 11일 양인석 목사가 부임하기까지는 홍철원 전도사가 예배 인도를 담당하고, 한일장신대 교수들이 설교 목사로 초빙되었다(박종기 목사 1회, 이영호 목사 2회, 김태훈 목사 11회). 교회 내의 행정적인 제반 사항은 당회원 모임을 수시로 소집하여 처리해 나가고 있었다. 양인석 목사는 2001년 2월 11일 예배 인도를 시작으로 전주강림교회에서의 목회를 시작하였다. 양인석 목사에 대한 교회 내에서의 부임 절차는 2001년 3월 25일 공동의회 청빙 결의와 7월 1일 취임예배를 통해 완료되었다.

2002년 11월 10일 확정된 내규에서 6년마다 제직회에서 담임목사의 신임을 묻기로 함에 따라, 양인석 목사의 부임 후 6년째가 되는 해인 2006년도에 첫 번째 재신임 투표가 실시되었다. 2006년 6월 18일 주일오후예배 후 모인 제직회는 양인석 목사의 재신임을 묻는 안건에 대해 투표하여 91%의 찬성률(총투표 183, 찬성 165, 반대 18)로 재신임안을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양인석 목사는 잠시 안식 기간을 갖고(7월 4일~9월 6일, 10월 10일~12월 6일), 2차 임기의 목회를 시작하였다. 안식 기간 동안의 설교는 송현상 목사와 이종록 목사가 담당하였다.

한편, 전북노회와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2009년 3월 15일 전북노회 152회 정기노회에서 전북노회로의 복귀가 이루어짐에 따라 양인석 목사의 신분 역시 ‘전주노회 전도목사’에서 ‘전북노회 전주강림교회 담임목사’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9년 8월 2일 당회와 8월 16일 공동의회에서 양인석 목사를 전주강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2013년 10월 13일 전북노회 153회 정기노회에서 허락되었다. 2011년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6차 임직예식과 함께 양인석

목사 위임예식을 행함으로써, 노회와 관련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 시기 시작점에서 교회는 고 안창엽 목사 1주기 추모 예식(2000년 11월 25일)과 2001년 2주기 추모예식을 교회 행사로 진행하면서 목회적 계승을 다짐하였고, 2003년도까지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라는 슬로건을 유지하였다. 2004년부터는 선교와 사랑의 현장을 계승해야 할 목회 철학으로 규정해 두고, ‘교육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심는 교회’라는 정책적 슬로건을 내걸었다. 뒤이어 사용된 ‘금년에는 더욱 더 기도하게 하소서’ (2005년), ‘한 영혼을 내게 주소서’ (2006~2007년)는 ‘천-백-십-일 운동’의 추진에 맞물린 표어였다. ‘성경 읽는 교회’ (2008년), ‘성경 읽고 말씀 따라 살자’ (2009년)는 예배용 성경을 『개역한글 성경』에서 『새번역 성경』으로 변경하여 정착시키는 과정에 연관된 표어였다. ‘구역 사랑을 회복하자’ (2010년)는 구역 개편 및 ‘구역-말씀예배’의 출범에 따른 표어였고,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 (2011년)는 창립 30주년으로 장년에 이른 교회의 나아갈 바를 되짚는 표어였다.

목회 상황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표어들이 사용되었지만, 이 시기 목회의 초점은 ‘교육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심는 교회’였다. 이는 양인석 목사가 2001년 취임 직후 제시한 교회의 정책적 목표였다. 그는 2001년 7월 1일 창립 20주년 기념주일 예배에서 “21세기의 강림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씨를 뿌리는 교회’, ‘책임 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를 그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주 뒤인 7월 15일부터 3주간의 설교를 통해, 그 ‘21세기 강림공동체의 비전’과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라는 전주강림교회의 목회 철학을 구체화할 정책적 목표로 교육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심는 교회를 제시면서 목회의 지향점으로 삼았다. 그 세 편의 설교 요약본은 다음과 같다.

교육하는 교회(2001.7.15)

사무엘기 상 22장 1~5절 / 마태복음 28장 16~20절

오늘의 본문은 위기에 처한 다윗의 형편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 싸움 때마다 승전을 거두어 사울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 높아지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하여 다윗은 아둘람 굴에 피신합니다.

천하의 다윗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고 캄캄한 아둘람 굴에서 비참한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즉 다윗의 도피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품어줍니다. 식량과 식수 등 기초 생활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품을 넓혀 이들을 품어주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킵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사람들을 받아주고 교육시키고 훈련함으로 찬란한 내일을 향하여 실력을 기릅니다. 이들이 400여명 가량 되었는데 이 아둘람 굴에서 어려운 시기에 다윗이 훈련시킨 사람들이 후에 다윗 왕가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20주년을 맞이한 전주강림교회는 “선교와 사랑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교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주강림교회의 품을 넓혀서 사람을 품고, 이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에 눈앞의 성과물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장래의 희망임은 분명합니다. 이제 21세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어주며, 신앙교육의 횃불을 높이 드는 교회가 되어 봅시다.

섬기는 교회(2001.7.22)

출애굽기 3장 1~8절 / 빌립보서 3장 5~12절

유대인들의 장점은 높은 교육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교육열도 세계 어느 민족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높

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여전히 병든 사회, 문제가 많은 사회입니다. 이는 교육은 열심히 하는데 왜 교육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 즉 “교육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모세는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간을 교육받고 온갖 특권을 누리며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고민은 자신이 받은 이 교육과 자신이 가진 재능을 오직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동족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받은 교육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이 훌륭한 교육을 받은 데에는, 노예생활로 고통하며 아픔을 당하는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진 수준 높은 교육, 자신이 가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주신 많은 삶의 환경과 개인적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교육이 이웃을 섬기기 위한 교육이며, 우리가 이룩한 성공은 섬기기 위한 성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전주강림교회는 21세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좋은 환경, 우리 교회가 가진 다양한 재원들을 가지고 민족과 사회를 섬기며 이웃들을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봅시다.

심는 교회(2001.7.29)

시편 126편 1~6절 / 갈라디아서 6장 6~10절

현대인들은 자신의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시간을 소비하고, 돈을 투자하고, 땀을 흘립니다. 우리는 때로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땀 흘

리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육체는 타락하고 악한 것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시기하고 헐뜯고 속이는 악한 행위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심는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기도를 심는 자는 후대까지도 기도의 열매를 거둡니다. 둘째로는 사람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큰 인물이 없는 난장이의 시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물을 심고, 키우는 데 인색했다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물을 심고, 인물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로는 시간과 돈과 땀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 삶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땀 흘리며 노력합니다. 기독교인은 일상적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투자하고 심어야 합니다.

20살이 된 전주강림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를 심고, 사람을 심고, 시간과 물질을 심을 때 전주강림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육하고, 섬기고, 심는 교회가 된다면 강림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시기 부교역자 및 직원은 다음과 같았다. 1996년 3월 17일부터 부목사로 시무하고 있던 온성진 목사는 2000년 10월 17일 사임하였다. 1994년 1월 1일부터 심방전도사로 시무하던 동선옥 전도사는 2003년 1월 1일 퇴임하였다. 동선옥 전도사

는 2002년 한 해 동안 시간제 심방전도사로 일하였고, 퇴임 후에는 권사로 교회를 섬겼다. 1993년 12월 5일부터 심방전도사로 시무하던 서경자 전도사는 이 시기 내내 그 직무를 계속하였다. 2000년 1월 2일에는 홍철원 전도사가 전임전도사로 부임하여, 2001년 11월 19일 목사안수 후 부목사로 시무하였다. 홍철원 목사는 2006년 4월 16일 무주 장안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2002년 1월 1일에는 노윤숙 전도사가 시간제 심방전도사로 부임하였다가, 2003년 1월 1일부터 전임으로 전환하여 11월 30일까지 시무하였다. 1998년 2월 1일부터 교육전도사로 시무하던 김주옥 전도사는 2004년 1월 1일부터 교육 담당 전임전도사로 시무하였다. 건강상의 문제로 2008년에는 다시 유년부 담당 교육전도사로 전환하였다. 2004년부터 교육전도사로 시무하고 있던 김정태 전도사가 2006년 1월 1일부터 전임전도사로 전환하였고, 2007년 11월 20일 목사안수 후 부목사로 시무하였다. 2008년 1월 13일에는 최규익 집사(현재 목사)가 전임 사회복지사로 임명되었다. 한편, 교회 관리인으로 섬기던 임대영 집사는 2006년 5월 7일 사임하고, 같은 해 9월 10일부터 양병택 집사가 관리인으로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교육 교역자(시간제 교역자)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1998년 2월 1일 부임한 김주옥 전도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교육전도사로 일한 후 전임으로 전환되었다. 김주옥 전도사는 2008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시 유년부 담당 교육 교역자로 시무하였다. 2002년 1월 1일에는 심혜련 목사와 문종남 전도사가 교육 교역자로 부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무하였다. 심혜련 목사는 고등부와 청년부, 문종남 전도사는 소년부와 중등부를 담당하였다. 2003년 1월 1일에는 장동현 전도사가 부임하여 2004년 12월 4일까지 고등부를 담당하였다. 2004년 1월 1일에는 김정태 전도사와 박금녀 전도사가 부임하였다. 박금녀 전도사는 유년부를 1년 담당한 뒤 2005년부터 계속해서 유치부를 담당하였고, 김정태 전도사는 중등부와 고등부를 거쳐 2006년부터 전임 교역자로 전환하였다.

2004년 12월 5일 부임한 김신 전도사가 2005년까지 고등부를 담당하였다. 구주희 전도사는 2005년 1월 2일 부임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년부를 담당하였다.



2009년의 교역자들

(2007년 3월 12일 목사안수). 남경호 전도사는 2006년 1월 1일 부임하여 소년부를 담당하다가 2011년에는 중등부를 담당하였다. 김연백 전도사가 2006년 1월 1일 부임하여 중등부를 담당하고 2007년 11월 25일 사임하였다. 허연 목사는 2006년 4월 16일 부임하여 2007년 2월 25일까지 고등부를 담당하였다. 최재룡 목사는 2007년 3월 25일 부임하여 2010년까지 고등부를 담당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대학부를 함께 담당하였고, 2011년 케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문승현 전도사는 2007년 11월 25일 중등부 담당 교역자로 부임하여 2011년부터는 소년부를 담당하였다. 2008년 1월 1일에는 문화규 목사가 청년부 담당 교역자로 부임하였다. 지승한 전도사는 2008년 11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27일까지 유년부를 담당하였다. 현성실 목사는 2009년 12월 27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년부를 담당하였다. 2011년 1월 1일 김일 전도사가 유년부 담당 교역자로, 김혁수 목사가 고등부 담당 교역자로 부임하였다.

2) 목양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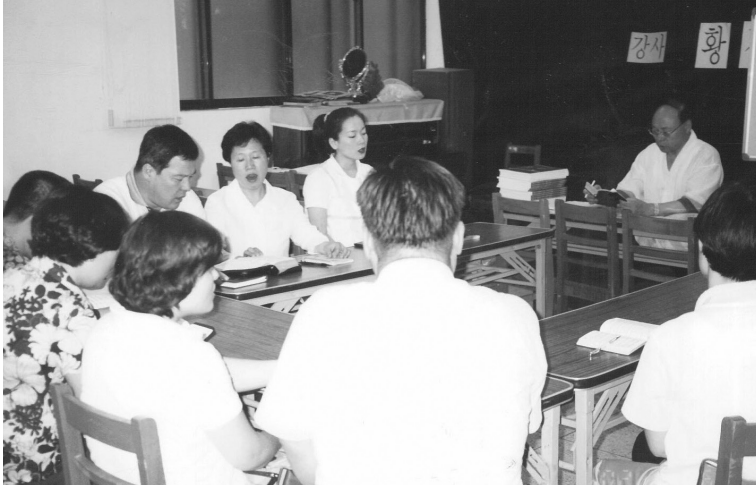
(1) 목양 활동

이 시기 들어 한국교회의 중요한 전통이었던 심방 활동의 목회적 비중이 크게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핵가족 중심의 폐쇄적인 주거 구조와 다세대 주택 상황은 가정 내에 여러 사람이 방문하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기 어렵게 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에 나서는 시대가 되면서, 낮에 방문 가능한 가정이 적어지고, 밤의 방문은 크게 폐를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시기 대심방의 변화를 보면 이러한 사회 변동 상황이 고스란히 목회 활동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실시되던 대심방이 2000년부터는 봄에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07년부터는 가정 단위 심방에서 구역 단위 심방으로 대심방의 모양새가 바뀌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희망하는 가정들만을 대상으로 대심방을 실시한 데 이어, 2011년부터는 공식적인 대심방이 폐지되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찾아가는 심방을 실시하고, 요양병원 등 장기 가료 환자들에 대한 심방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였다.

주목할 점은, 기존의 심방 활동을 대체하는 목양적 활동들이 떠오른 부분이다. 주로 목회자들의 전유물과 같았던 목양 활동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자의 전문성과 관심에 따라 목양 활동에 기여하는 공동체적 목양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한 돌봄 활동들이다. 2002년 제직회의 ‘경조부’를 ‘경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당회 직속 기구로 전환하였다. 경조위원회는 결혼, 장례 등 교인들의 애경사를 치를 때에 도움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특히 장례식에서의 역할이 컸다. 위로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등 장례의 과정을 안내하고, 운구복을 맞춰 입고 함께 운구하는 일도 맡았다. 이처럼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교우들이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곁에 함께 있어 주는 일을 하



부부학교(2003년)

였다. 경조 활동의 정착에는 이한규 장로가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전임사회복지사의 부임으로 안정화 되었다. 이전 시기부터 서경자 전도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던 목회간호 활동 역시 강화되었다. 의료선교위원회가 조직되어 각종 건강 강좌를 개설하고 매주 교인들에게 건강 체크 봉사를 제공하였다. 또한 병환 중에 있는 이들에게 부분적인 치료비 지원이나 반찬 배달 등으로 사랑을 나누었다. 2008년 3월 23일부터는 무료 법률상담도 시작되어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이 일은 변호사인 전휴정 집사가 담당하였다. 이러한 활동들 역시 매우 중요한 목양활동이 되었다.

둘째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 활동이다. 이 일의 중심은 ‘강림부모학교’였다. 강림부모학교는 2003년 5월 25일 당회의 결의로 설치되었다. 강림부모학교는 적극적 부모 역할 모델을 토대로 좋은 부모, 행복한 부부가 되어 모범적인 크리스천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부모교육전문강사(APT 강사)인 황경주 장로가 전임강사를 맡아 2003년 6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제1기 1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



부모학교 3기(2004년)

다. 이후 2009년 제9기까지 총 104명이 수료하였다. 2008년 6월 1일부터는 무료 가족 치료 및 부모 교육 상담도 시작되었다(상담사: 황경주 장로). 그 외에도 청소년교육문화 센터를 통한 각종 가족 단위 프로그램, 크리스천진학연구소를 통한 자녀들의 진로·진학 지도, 각종 자녀교육 강좌 등이 건강한 가정 만들기와 연관된 목양 프로그램에 해당하였다.

셋째, 각종 취미 및 친교 활동을 통한 상호 교류와 돌봄이 이루어졌다. 특히 운동 동아리들의 활동이 눈에 띄는 시기였다.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2000년 8월 25일 주보에 ‘테니스 선교회’의 활동 흔적이 남아있다. 2007년부터는 축구선교회의 활동이 매우 두드러졌다. 거의 매주 남성 청·장년들이 운동장에 모여 함께 운동하고 다른 교회와 시합도 하였다. 축구선교회는 2009년 6월 14일 어울림 한마당(종합경기장 축구장)을 주관하고 함께 힘을 모아 지하 중·고등부실 천장 개선 공사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점진적으로 축구를 통한 돌봄 활동을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뻗어나갔다. 그 외에도 탁구 선교회, 마라톤 선교회 등의 간헐적인 활동이 있었고, 2010년 5월



축구 선교회(2009년)

에는 색소폰 동호회의 활동이 시작된 바 있다. 또한 이 시기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의 활동에서 친교의 측면이 크게 강화됨으로써, 동년배의 성도들끼리 서로 사귀며 서로를 돌보는 중요한 축이 되어 주었다. 이처럼 취미나 친교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인들 간의 교류와 간접적인 돌봄 역시 중요한 기여가 되었다.

넷째, 새가족부 활동이 강화되었다. 1993년에 조직되었던 ‘새신자부’가, 교인들의 교회 간 수평 이동이 일반화된 점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 ‘새가족부’로 개칭되었다. 새가족부의 임무는 새로 등록한 교인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여 강림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돕는 것에 있다. 새가족부의 활동은 등록 및 환대, 후속 심방, 양육, 관계망 형성 지원 등 네 가지로 덩어리 지을 수 있는 세부 매뉴얼에 따라 활동하였다.

■ 새가족 돌봄 과정

- 등록 및 환대 : 새가족 발견 → 등록 권장 → 등록카드를 이용한 등록 → 새가족 사진 촬영 → 광고 시간에 새가족 소개 → 환영 → 예배 후 담임

목사와 상담 → 식당 새가족석으로 안내 식사 합석 환대 →

- 후속 심방 : 1차 심방(심방 전도사: 주소지와 환경 파악) → 2차 심방(담임 목사와 해당 구역원 동행) → 전화 심방 → 문자 심방 → 가정 심방 →
- 양육 지원 : 사랑의 편지 10회, 초신자 신앙 기초성경 공부, 신앙도서 대여, 이메일과 양육지 활용, 바나바 지정 돌봄 → 분기별로 새가족과 함께 하는 열린 예배 →
- 관계망 형성 지원 : 구역 안내, 선교회 안내 → 바나바 활동 계속

등록 및 환대 부분으로는 새가족 발견, 등록 권장, 등록카드를 이용한 등록, 새가족 사진 촬영, 광고 시간에 새가족 소개 및 환영, 예배 후 담임 목사와 상담, 식당 새가족석으로 안내하여 함께 식사하며 교제 등 등록 당일의 일들에 관한 행동 지침들이 있다. 후속 심방으로는 1차 심방(심방전도사: 주소지와 환경 파악), 2차 심방(담임 목사와 해당 구역원과 동행), 전화 및 문자 심방, 필요에 따른 가정 방문 심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육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사랑의 편지 10회 보내기, 초신자 신앙 기초 성경 공부, 신앙도서 대여, 이메일과 양육지 활용, 추가적인 양육과정 안내(7주 교리교



새가족 사랑나눔(2008년)

육과정, 수요성서학교, 예수 아카데미, 새벽기도회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관계망 형성 지원 활동으로는 구역 및 선교회 안내, 돌봄 책임자인 바나바 지정, ‘새가족 사랑 나눔’ 행사를 통한 교회 정착 축하 잔치 등이었다.

연 2회 정도 실시한 새가족 사랑 나눔 행사는 주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당회원, 구역자, 각 선교회 회장, 해당 구역장 등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며 새가족들에게 교회와 교회의 주요 일꾼들을 소개하고, 오후 예배 자리에서 새가족들을 한 사람씩 교우들에게 소개하고 환영하는 자리였다. 또한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신앙간증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행사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 시기에는 매년 80% 내외의 새가족 정착률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새가족부 활동은 함께하는 성도들이 손과 발을 맞추며 조직적으로 새가족들을 돌보는 귀중한 목양 활동이었다.

(2) 양육 활동

이 시기 신앙교육 관련 가장 중요한 지점은 ‘예수 아카데미’였다. 2006년 3월 4일 처음 개설된 예수 아카데미는 15주 내외의 학기제로 토요일 오전 9~12시에 모여 두 과목을 공부하였다. 한 과목은 양인석 목사와 함께하는 소그룹 성경공부로, 다른 한 과목은 신학 강의로 배정하였다. 성경공부는 양인석 목사가 성경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을 한 후,



예수 아카데미 진행 모습(2009년)

소그룹으로 나뉘어 제시된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다시 전체로 모여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6년부터 2008년 1학기까지 4학기 동안은 마가복음서를 중심으로 공관복음서를 공부하였고(2006년에는 1학기만 진행), 2008년 2학기과 2009년 1학

기는 출애굽기, 2009년 2학기에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였다.

신학 강의로는 2006년 1학기 선교학(김대용 목사), 2007년 1학기 성경의 형성사(채은하 교수/ 한일장신대), 2007년 2학기 구약의 중심 주제(이종록 교수/ 한일장신대), 2008년 1학기 한국교회사(최재룡 목사), 2008년 2학기과 2009년 1학기 신앙고백의 역사(최재룡 목사), 2009년 2학기 세계교회사(최재룡 목사)를 개설하였다.

예수 아카데미는 교회 안에 신학적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허심탄회하게 질문하고 탐구하는 신앙의 풍토를 조성하였다. 이 예수 아카데미에서의 성경공부 방식이 2007년 시작된 ‘주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와 2010년 시작된 ‘구역-말씀예배’의 진행 방식으로 이어졌다. 또한 예수 아카데미에서 다루었던 마가복음서를 초기 주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의 텍스트로 삼고, 예수 아카데미의 적극 참여자들이 주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의 목장별 인도자들이 되어 ‘그룹별 말씀 나눔’의 방식이 예배 안에 안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예수 아카데미는 그 이전부터 진행해 오던 소그룹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밑거름 삼아 형성된 교육 과정이었다. 양인석 목사는 취임 직후인 2001년 7월 28일부터 토



이 시기의 주보들

요일 오후 6시에 ‘예수제자교육 1단계’라는 이름의 소그룹 성경공부를 시작하였다. 이 성경공부는 장로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듬해인 2002년 3월부터는 ‘기초성서연구반’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7시 30분에 개설하였다. 7주간의 과정으로 10명을 한 기수로 하는 소그룹 단기 성경공부 과정이었다. 이후 8월 6일부터 2기 과정을 시작하였는데, 이때는 ‘모둠별 기초성경공부’라는 이름으로 화요일 저녁 시간에 개설하였다. 10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없애고 참여 인원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식 성경공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9월에도 7주간의 모둠별 성경공부 과정이 개설된 바 있다.

성서 권별 강해로 진행되는 수요성서학교와 새벽기도회는 여전히 중요한 신앙교육의 틀이었다. 한편 주보를 통한 신앙 양육은 이 시기 들어 그 방식이 바뀌었다. 가정에서의 성경공부를 위해 제시되던 ‘주간성경공부’ 코너가 2003년 3월 2일로 종료되고 3월 16일부터 그 주의 설교 요약을 싣기 시작하였다. 2004년부터는 설교 요약란에 지난주의 설교 요약을 올려서 한 주 전의 설교를 되새겨 볼 수 있게 하였다. 2007년부터는 지난주 설교를 근거한 ‘고백의 기도’가 주일예배순서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되새김’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지난주 설교 요약과 고백의 기도는 인터넷 카페에도 제시되어 인터넷을 통한 접근과 공유도 가능하게 하였다. 2008년부터는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설교 다시 듣기’ 영상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이 신앙교육의 매체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3) 구역 운영

구역 활동은 1980년대 교회 성장의 중추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설되던 구역은 1992년 24개 구역에 도달한 후 정체기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파트 중심의 주거 구조와 맞벌이의 일반화 등으로 인해 각 가정별로 돌아가며 모이는 구역예배가 약화되었다. 매주 금요일의 구역인도자 공부와 구역예배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주일 구역별 찬양대회는 구역 식구들 간의 단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



구역말씀예배 모습(2010년)

였다. 구역을 줄기로 한
목양 관리에 힘을 모으
기 위해 교구별로 담당
교역자가 배치되었다.
2005년부터는 각 구역의
구역장과 인도자를 남녀
각 1명씩으로 하여 2명
의 구역장과 2명의 인
도자가 함께 협력하며
구역을 돌보게 하였다.

2006년부터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충동원 구역예배’의 날로 지정하여 월 1회라도 모든 구역원이 최선을 다해 모이도록 독려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 활동이 점진적으로 약화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것이 2010년의 구역 개편과 ‘구역-말씀예배’였다. 2009년 11월 8일 정책당회에서, 구역편성을 지역 중심 체제로부터 소통의 용이성을 중심으로 하여 25개 구역으로 재편하고 구역예배를 주일 오후로 옮기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0년, 목장 체제로 이루어지던 주일 오후 주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와 구역예배를 통합하여 구역-말씀예배가 시작되었다. 주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의 형식을 채택하고, 말씀 나눔의 단위를 목장에서 구역으로 변경한 것이었다. 이로써 예배당에서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앉아 그날의 주제를 가지고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누는 형식의 구역예배가 출범하였다.

새롭게 시도되는 구역예배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안배가 있었다. 구역-말씀예배시간에 유치부실과 유년부실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부모들이 마음 놓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구역인도자들을 위한 성경공부를 실시하였으며, 구역원들의 출석과 전도 그리고 특송



구역별 야외예배(2010년)

참가자 등을 점수화하여 시상도 하였다. 2011년부터는 구역인도자들을 위한 말씀나눔 자료를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매주일 구역별로 돌아가며 특송을 하면서 구역원들을 전체 교회 앞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봄과 가을에는 ‘목장별 야외예배’ 혹은 ‘구역별 야외예배’ 시간도 배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주일 오후의 구역-말씀예배 시간은 매우 역동적인 양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구역원들 간의 상호 이해와 사귄이 매우 깊어지게 되었다. 이 시간의 참가자 수도 2011년의 예로 보았을 때 220~260명이 되어, 구역예배와 주일오후예배 모두 약화되어 가고 있던 당시 한국교회 일반의 경향을 역행하는 활력을 보여주었다. 사그라져 가던 구역의 부활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었다.

■ 구역 조직의 연도별 편성 현황

● 2000년(구역장/원찰)

11구역: 신은순 김순님
 13구역: 유귀민 김종숙
 21구역: 김영애 이순이
 23구역: 우옥희 유혜숙
 31구역: 이정순 전선옥
 33구역: 박정순 임태숙
 41구역: 장선미 최순덕
 43구역: 조귀자 한정란
 51구역: 안종복 박숙자
 53구역: 정영옥 형성남
 61구역: 이종순 신순복
 63구역: 김옥자 김옥희

12구역: 이정옥 양은순
 14구역: 송춘영 김재순
 22구역: 김경숙 최연진
 24구역: 박인희 이성화
 32구역: 양종숙 강인숙
 34구역: 민현숙 유숙자
 42구역: 곽인순 강묘자
 44구역: 최복순 이현자
 52구역: 염번자 고남주
 54구역: 정명숙 태성옥
 62구역: 김세순 최영선
 64구역: 백영란 김영님

● 2001년(구역장/원찰)

11구역: 이봉심 최점순
 13구역: 송춘영 김재순
 21구역: 이순이 양지순
 23구역: 우옥희 유혜숙
 31구역: 박영숙 이주옥
 33구역: 박정순 임태숙
 41구역: 안종복 신순자
 43구역: 이정운 한정란
 51구역: 이구일 오순희
 53구역: 정영옥 형성남
 61구역: 이종순 김명자

12구역: 양은순 김연숙
 22구역: 오봉애 최연진
 24구역: 김세영 이성화
 32구역: 양종숙 강인숙
 34구역: 신정애 이진화
 42구역: 송순금 강묘자
 44구역: 이난희 이현자
 52구역: 염번자 고남주
 54구역: 정명숙 태성옥
 62구역: 김세순 신미옥

63구역: 김옥희 김영남

64구역: 김영애 박찬숙

• 2002년(구역장2/인도자/원찰)

11구역: 정국양 박영자 신은순 한인숙 12구역: 장지석 유계순 양은순 김연숙
13구역: 이성복 정귀임 김재순 한현희 21구역: 강형희 이순이 김경숙 최연진
22구역: 김영선 이구일 우옥희 유혜숙 23구역: 황양우 이성화 김세영 정성례
31구역: 양기영 이정순 박영숙 이주옥 32구역: 전광호 박혜영 양종숙 김지연
33구역: 김구태 이윤례 박정순 임태숙 34구역: 박병규 정규례 신정애 유숙자
41구역: 김영선 장선미 전순례 신순자 42구역: 허용옥 강묘자 송순금 박금옥
43구역: 강성곤 조귀자 이정운 한정란 44구역: 오종갑 양순남 이현자 이연숙
51구역: 박홍중 염번자 고납주 황미행 52구역: 이기경 형성남 정영옥 최강원
53구역: 장동현 백 봉 박인희 최미숙 61구역: 최경춘 배인순 신순복 김명신
62구역: 정양래 박미애 김세순 신미옥 63구역: 이연우 이강인 김옥희 김현경

• 2003년(구역장2/인도자2/원찰)

11구역: 온호섭 박영자 정국양 최점순 한인숙
12구역: 안길권 유계순 양은순 이감철 김연숙
13구역: 황경주 정귀임 김재순 이성복 한현희
21구역: 강형희 이순이 김경숙 고창호 최연진
22구역: 김영선L 우옥희 김영선J 전순례 양민숙
23구역: 황양우 이성화 김세영 황양우 정성례
31구역: 이요셉 전선옥 양기영 박영숙 이주옥
32구역: 이정석 박혜영 전광호 양종숙 장현희
33구역: 류시영 이복례 김구태 박정순 임태숙
34구역: 박병규 신정애 박병규 민현숙 유숙자
41구역: 임동철 조귀자 장철현 신순자 최순덕
42구역: 허용옥 강묘자 이귀형 송순금 김순례
43구역: 강성곤 한정란 강성곤 김현순 서혜화

44구역: 오종갑 양순님 오종갑 최복순 이현자

51구역: 박홍중 엄번자 박광수 고남주 황미행

52구역: 이기경 오춘호 최규익 정영옥 최강원

53구역: 정인기 백 봉 진교헌 박인희 최미숙

61구역: 최경춘 배인순 이한규 경순이 이인한

62구역: 정양래 박미애 안병용 김세순 신미옥

63구역: 안송엽 이강인 김종희 김옥희 형성남

● 2004년(구역장2/인도자2/권찰)

11구역: 양기영 한인숙 정국양 최점순 신은순

12구역: 안길권 설순자 이감철 양은순 김연숙

13구역: 황경주 김재순 황경주 이종순

21구역: 강형희 이순이 고창호 장순향 최연진

22구역: 김영선L 우옥희 김영선J 전순례 곽영자

23구역: 황양우 이성화 황양우 김세영 정성례

31구역: 이요셉 전선옥 김순옥 이주옥

32구역: 이정석 김차남 전광호 양종숙 장현희

33구역: 류시영 이복례 김구태 박정순 임태숙

34구역: 박병규 신정애 박병규 민현숙 유숙자

41구역: 임동철 조귀자 장철현 신순자 성복순

42구역: 허용옥 강묘자 이귀형 송순금 김순례

43구역: 강성곤 한혜진 강성곤 한정란 서혜화

44구역: 선종신 양순임 선종신 최복순 이현자

51구역: 박홍중 엄번자 박광수 고남주 황미행

52구역: 배상근 정영옥 최규익 허명순 최강원

53구역: 정인기 오봉애 진교헌 백 봉 박인희

61구역: 이한규 박찬숙 이한규 김명신 김영례

62구역: 정양래 김세순 안병용 박미애 신미옥

63구역: 안송엽 유말래 김종희 김옥자 김현경

• 2005년(구역장2/인도자2/권찰)

11구역: 정국양 한인숙 양기영 동선옥 신은순

12구역: 안길권 설순자 이감철 양은순 강연숙

13구역: 이성복 김재순 황경주 한현희 이종순

21구역: 강형희 이순이 고창호 장순향 최연진

22구역: 김영선L 우옥희 김영선J 전순례 박영자

23구역: 황양우 이성화 황양우 김세영 정성례

31구역: 이요셉 박영숙 이준홍 김순옥 전선옥

32구역: 이정석 김차남 권윤옥 양종숙 장현희

33구역: 류시영 이복례 이병호 이해순 이효순

34구역: 박병규 정규례 오여성 소미숙 박복례

41구역: 임동철 조귀자 장철현 신순자 최순덕

42구역: 허용옥 강묘자 이귀형 송순금 송수복

43구역: 강성곤 한혜진 강성곤 임명옥 한정란

44구역: 선종신 양순임 선종신 최복순 이현자

51구역: 박홍종 고남주 박광수 조성순 황미행

52구역: 배상근 허명순 최규익 임남이 정영옥

53구역: 진교현 이명숙 최정근 백 봉 박인희

54구역: 김상균 오봉애 정인기 백 봉 태성옥

61구역: 송원숙 박찬숙 이한규 김명신 김명자

62구역: 박진범 김영례 신을재 김명신 김현숙

63구역: 정양래 김명자 박용규 김세순 서혜화

64구역: 안병용 서영례 안병용 박미애 이남순

65구역: 김창식 유말래 안송엽 김옥자 김영남

66구역: 이연우 이강인 김종희 김옥자 양지순

• 2006년(구역장2/인도자/권찰)

11구역: 한인숙 정국양 김종숙 신은순 12구역: 설순자 안길권 양은순 김연숙
13구역: 이종순 이성복 황경주 한현희
21구역: 최연진 강형희 장순향 이정자 22구역: 우옥희 김영선L 전순례 곽영자
23구역: 이성화 황양우 김세영 정성례
31구역: 박영숙 이요셉 김순옥 전선옥 33구역: 이복례 류시영 최점순 이효순
34구역: 서경자 오여성 소미숙 유숙자
41구역: 조귀자 장철현 신순자 장선미 42구역: 박금옥 허용옥 송순금 조순애
43구역: 한혜진 강성곤 임명옥 성순덕 44구역: 이난희 선종신 최복순 이현자
51구역: 염번자 박홍종 조성순 최성숙 52구역: 정영옥 배상근 허명순 오춘호
53구역: 이명숙 진교현 정명숙 박인희 54구역: 오봉애 정인기 정명숙 이애자
61구역: 박찬숙 이한규 김명신 경순이 62구역: 김영례 박진범 김명신 서덕렬
63구역: 김명자 정양래 김세순 장정자 64구역: 서영례 안병용 박미애 신미옥
65구역: 유말래 안송엽 김옥자 김영님 66구역: 김옥희 이연우 김옥자 소활란

• 2007년(구역장2/인도자/권찰)

11구역: 신은순 정국양 김종숙 김정자 12구역: 설순자 안길권 양은순 김연숙
13구역: 이종순 이성복 황경주 한현희
21구역: 최연진 강형희 장순향 이정자 22구역: 이구일 김영선L 전순례 박윤미
23구역: 이성화 황양우 김세영 정성례
31구역: 전선옥 이요셉 박영숙 김순옥 33구역: 이복례 류시영 최점순 이효순
34구역: 서경자 오여성 유숙자 정규례
41구역: 장선미 장철현 조귀자 최순덕 42구역: 강묘자 허용옥 김순안 조순애
43구역: 한혜진 강성곤 임명옥 성순덕 44구역: 이난희 선종신 최복순 이현자
51구역: 염번자 박홍종 조성순 고남주 52구역: 허명순 배상근 송선용 정영옥
53구역: 백 봉 진교현 정명숙 박인희 54구역: 오봉애 정인기 정명숙 이애자

61구역: 박찬숙 이한규 김명신 경순이 62구역: 김영례 박진범 김명자 서덕렬
 63구역: 김명자 정양래 김세순 박일심 64구역: 이남순 안병용 박미애 신미옥
 65구역: 유말래 안송엽 김옥자 김영님 66구역: 소활란 이연우 김옥희 윤진선

●2008년(구역장/인도자/권찰)

11구역: 한인숙 김종숙 김정자	12구역: 양은순 신순자 김연숙
13구역: 이종순 황경주 한현희	
21구역: 최연진 장순향 박정숙	22구역: 박윤미 전순례 우옥희
23구역: 이성화 김세영 정성례	
31구역: 전선옥 박영숙 김순옥	32구역: 이선옥 김지연 박경희
33구역: 이복례 최점순L 이효순	34구역: 유숙자 민현숙 서경자
35구역: 양종숙 김현숙 이해정	
41구역: 조귀자 김현순 최순덕	42구역: 강묘자 김순안 박금옥
43구역: 안성정 임명옥 한혜진	44구역: 이점순 최복순 이난희
51구역: 염번자 조성순 고남주	52구역: 정영옥 송선용 최점순
53구역: 백 봉 동선옥 허명순	54구역: 오봉애 정명숙 박인희
61구역: 이인한 김명신 경순이	62구역: 김명자 김세순/이남순 양희남
63구역: 유말래 김옥자 김영님	64구역: 양지순 김옥희 소활란

●2009년(구역장/인도자/권찰)

11구역: 김정자 신은순 김종숙	12구역: 민정애 양은순 김연숙
13구역: 김재순 황경주 노현주	
21구역: 박정숙 최연진 이순이	22구역: 박윤미 전순례 우옥희
23구역: 이성화 김세영 정성례	
31구역: 장선미 박영숙 전선옥	32구역: 이선옥 김지연 박경희
33구역: 이복례 최점순L 박혜영	34구역: 유숙자 이진화 서경자
35구역: 이해정 김현숙 양종숙	
41구역: 이정애 조귀자 최순덕	42구역: 강묘자 김순안 박금옥

43구역: 한혜진 임명옥 성순덕
 51구역: 조성순 염번자 고남주
 53구역: 오봉애 정명숙 백 봉
 61구역: 이인한 김명신 김영례
 63구역: 김선주 김옥자 김현진

44구역: 이점순 최복순 이난희
 52구역: 이현자 정영옥 이연숙
 62구역: 김명자 김세순/신미옥 양희남
 64구역: 양지순 김옥희 김지연

• 2010년(구역장/인도자)

1구역: 안송엽 임명옥
 3구역: 진교현 김순옥
 5구역: 정인기 동선옥
 7구역: 김영선J 구회언
 9구역: 안길권 양은순
 11구역: 이연우 이복례
 13구역: 이한규 배인순
 15구역: 박홍종 성기봉
 17구역: 김천종 박인희
 19구역: 김구태 김정자
 21구역: 황양우 이성화
 23구역: 정양래 장정자
 25구역: 최왕규 김영례

2구역: 황경주 이귀형
 4구역: 이정석 안병우
 6구역: 김영선L 김남순
 8구역: 장지석 송상훈
 10구역: 강형희 김세영
 12구역: 김종희 허명순
 14구역: 최근철 조귀자
 16구역: 안병용 이선옥
 18구역: 최정근 박수자
 20구역: 성정수 전은혜
 22구역: 정국양 이미재
 24구역: 박병규 최정민

• 2011년(구역장/인도자)

1구역: 안송엽 임명옥
 3구역: 진교현 김순옥
 5구역: 정인기 강묘자
 7구역: 김영선J 구회언
 9구역: 안길권 양은순
 11구역: 이연우 이복례

2구역: 황경주 이귀형
 4구역: 이정석 안병우
 6구역: 김영선L 김남순
 8구역: 장지석 송상훈
 10구역: 강형희 김리향
 12구역: 김종희 허명순

13구역: 이한규 배인순

15구역: 박홍종 조영호

17구역: 김천중 김순안

19구역: 김구태 김정자

21구역: 황양우 이성화

23구역: 정양래 김명애

25구역: 최왕규 김영례

14구역: 최근철/조귀자 오광중

16구역: 안병용 김현숙

18구역: 최정근 박수자

20구역: 성정수 전은혜

22구역: 성기춘/이미재 송국희

24구역: 박병규 최정민

3) 교회 밖을 향한 태도

전주강림교회는 개척 초창기부터 노회와 전주시기독교연합회 등을 통한 교회 연합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2000년도만 하더라도 담임목사의 부재 속에서도 1월 23일 한일장신대에서 열린 ‘전북노회 선교교육대회’, 6월 4일 ‘전북장로교회 연합회 제2회 신도대회’ 등에 참여하였고, 85회 교단총회(9월 25~29일, 서울 소망교회)에 온호섭 장로가 노회를 대표하는 총대로 참석하였다. 그러나 2000년 가을부터 담임목사 청빙 문제를 둘러싸고 노회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2001년 봄 노회 이후 전북노회로부터 탈퇴하면서, 그동안 이어오던 연합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의 경우 노회연합회를 통해 진행되는 교사 강습회가 교사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만큼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청년회 역시 시찰연합회, 노회연합회, 전국연합회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오던 터라 매우 중요한 활동의 장을 포기하는 일이 되었다. 남·녀선교회 역시 이러한 연합 활동으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각 기관은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내적 힘을 응축하고 기르는 것으로 그 공백을 채워 나갔고 2009년 3월 152회 정기노회를 통해 노회에 복귀를 계기로 하여 그 연결점들을 서서히 복구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3월 10일 전북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본교회당에서 모이는 등 노회를 매개로 한 연합회

활동들이 서서히 회복되었다.

민족 문제와 사회 문제에 대한 신앙적 응답의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2001년 1월 청년회는 노숙자 쉼터 자활 사업의 일환으로 폐품을 수집하는 등 그늘진 곳의 약자들과 연대하는 일을 이어나갔다. 2002년 10월 27일에는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와 종교개혁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농민 살림을 위한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2005년 6월 26일에는 ‘유전자 조작 식품 반대 생명 운동연대’ 김은진 사무국장을 초청하여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유해성과 안전한 먹거리”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여 환경과 생태 의식을 고양하였다. 2007년 12월 2일에도 인권주간 전주시 연합예배를 본교회당에서 모였으며, 2009년부터는 사순절과 부활절 절기에 맞추어 기아대책본부의 ‘사랑의 밥그릇’ 모금 운동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담임목사인 양인석 목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선교적 지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선교상담소’(소장: 조용희 목사), 통일운동단체인 ‘전북겨레하나’ 등의 단체에 이사로 참여하거나 활동을 지원하면서, 민족과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신앙적 응답을 대변하였다.